•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687 호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7월 9일(음력 6월 7일) 수요일(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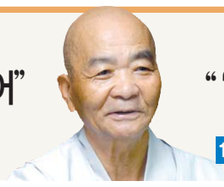
"北동포 위해 촛불 들 때"
3 북한 기아돕기 단식 법륜 스님



"산사 음악회에서 만나요"
9 불자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어"
13 함께가요 강의실- 박재동 화백



"'무념무상'의 자세 가져야"
17 선지식-각황사 조실 의룡 스님



"촛불이 보살이고 국민이 부처입니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종교편향에 불교계도 촛불을 들었다. 7월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봉행한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시국법회 공동추진위원장 수경 스님 등 출가자 1000여명과 재가자 3만여명은 '촛불을 위한 생명과 평화의 108참회'를 올렸다. 청화 스님은 '현 시국을 두 눈으로 봅시다'라는 주제의 시국법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는 보면서 광우병은 보지 못하고, 미국 부시 대통령은 보면서 국민은 못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협상 선언이 세상을 두 눈으로 보는 시작"이라 법문했다. (자세한 기사는 www.buddhanews.com에)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직장불교' 100호 발간 계기로 본 직장직능불교 현황과 과제

직장불심 되지피자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직장직능단체 활동 소식을 담아 매월 발간하고 있는 〈직장불교〉가 7월호로 통권 100호를 맞았다. 포교원은 또한 지난 7월 5~6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직장직능연합신행단체 임원수련대회'를 7년만에 개최했다. '임원수련대회' 자체가 2001년 이래 다시 열리기는 올해가 처음이라 직장직능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신심과 친목을 다지고 직장직능연합체가 직장불심을 이끄는데 새로운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다.

■ **직장직능불교의 현황**=직장직능단체가 본격적으로 결성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였다. 당시 거제 대우조선소, 울산 삼성중공업 등 영남지역 대기업 생산공장들과 서울의료원 등에 병원불자회가 탄생하면서 각 불자회가 큰 조직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운전기사불자연합회, 교사불자연합회 등 전문직 불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였다. 그러다 2000년에는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창립되면서 불자회 창립이 탄력을 받기 시작해 2004년까지 그 열기가 이어졌다. 이 시기에만 약 200여개의 단체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조직의 외연이 확산되는 것만큼 내실이 따라주지 못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직장직능불자회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 **직장직능단체 불심 왜 안 잡히나**=2004년까지 잘 운영되던 불자회가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 광진경찰서불자회와 건국대병원불자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법경 스님(서울 능인정사 주지)은 "요즘 직장인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직장일 외 다른 활동은 엄두도 못낸다는 것이다.

또 직장인들은 한 군데 오래 머무르지 않고 옮겨 다니는 특성이 있다는 것도 직장직능불자회 유지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직장은 조직체계라 계급이 낮은 직장불자들은 윗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직장직능단체 설립시 고려돼야 할 점이다.

불자회가 창립됐다 하더라도 신입회원 가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지가 힘들다. 직장직능 불자들은 종단이 각 단체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교구재를 지원해주거나 지도법사를 배치시켜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 **구성원의 발심과 노력이 중요**=직장직능단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단체 결성 초창기에는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필요하다. 구성원 간의 구심점이 있어야 모임과 법회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들이 최소한의 보시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모임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삶과 신행이 유리되지 않은 직장불자에 대한 종단의 관심과 노력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 **활성화된 직장직능단체 들여다보니**=직장직능 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잘 되고 있는 단체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인터넷 시대에 맞는 사이트 활성화다. 'GM창원 불교법우회'의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cafe.daum.net/GMBUDDHA)를 개설, 회원들끼리 인터넷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불심을 돈독히 한다.

개별 직장직능단체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도 회원들의 이탈이 적다. 서울대 교수불자회 '불이회'는 한 달에 한 번 큰스님이나 사회명사를 초청하는 특별법회를 갖는다. 성북승무사무소법우회나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등은 각각 봉사활동으로 똘똘 뭉친 단체들이다.

신행패턴을 공고히 하는 것도 직장직능단체 유지에 도움이 된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경인지역불자회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3000배 철야정진'으로 신행의 중심을 잡았다. 다른 지부에서도 강사 스님들을 초빙해 경전 강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직장직능단체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승가는 충분한 지도력과 불교적 소양을 갖춰 안정적으로 법회를 이끌고 재가는 법회를 진행할 물질적 토대와 홍보, 조직관리를 담당해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여성불자들 교단 주인공 되길"

명성 스님 '제10차 샤카디타 대회'서 기조연설

"여성불자들이 세계화와 다문화 속 과도기를 개혁과 변화로 이끄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7월 1~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과도기의 불교: 전통, 변화, 그리고 도전'을 주제로 전세계 샤카디타(Sakyadhita, '석가의 딸들'이라는 뜻의 범어)의 잔치가 열렸다. 제10차 샤카디타 대회에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은 1일 "여성불자간 소통과 역량을 강화해 교단의 주인공이 되자"며 기조연설을 했다.

명성 스님은 '역사의 평원을 넘어선 여성불자들: 21세기의 비구니승가와 리더십'을 주제로한 연설에서 "200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비구니 계율과 계맥'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가 비구니 수계제도가 없던 티베트 불교에 비구니 수계 가능성을 열었다"며 샤카디타 대회를 통한 여성불자간의 교류를 강조했다. 스님은 "여성 승가 성립에 대해 다각도의 접근과 각고의 노력, 도전이 필요하다"며, 여성불자의 역량 강화도 역설했다. 이어 스님의 연설은 몽골불교 발전이란 발원으로 이어졌다.

스님은 "13세기에 몽골은 불교가 국교일 만큼 융성했으나 20세기 초 사회주의 체제를 맞아 1990년 붕괴될 때까지 1만7000여 스님들이 숙청당하고, 수천 곳의 불교사원도 없어져 불교가 소멸직전까지 내몰렸다"고 말했다. 스님은 "몽골불교가 21세기를 맞아 세계 불교 흐름에 합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승단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최근 몽골에서 일어난 전통불교 복원 움직임을 '몽골초원에서 부활하는 불교'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표현한 스님은 "몽골불교도 비구니 승단을 조직해 여성불자를 위한 안정적인 수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성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세계평화에 기여 ▲세계 여성 불자들의 의사교환 조직망 구축 ▲다양한 불교 전통에 대해 화합과 이해 증진 ▲불법의 스승으로서 여성을 교육시키는 노력 ▲여성 불자의 불교연구 및 수행시설 개선 ▲비구니 승단이 성립되도록 노력한다는 등 샤카디타 창립 서원을 실천하며, 여성불자들 모두가 치열한 구도정신으로 살자고 당부했다.

'소통과 역량'을 강조한 명성 스님의 기조연설은 전세계 비구니와 우바이들의 패널별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관련기사 8면> 조동섭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 생산되는 세계 희귀 금강석과 올이온, 약알칼리, 게르마늄 등을 이온 결합하여 특수 소성된 친환경적인 최첨단 기능성 염주
값 245,000 | 02)723-0909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 관불수향
전단향이 그윽한 향탕수로 관불,관욕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02)3663-6777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강지연 차장
jygang@buddhapia.com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

2008년 현재 대한민국 행복지수는 71.1점이다.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가 올해 초 전국 성인 남녀 1만23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귀하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를 엮어 6월 29일 발간한 <대한민국 행복지수>에 수록된 결과다.

남녀별, 소득별, 종교별, 연령별, 가족형태별로 다양하게 나온 결과 가운데 종교인의 행복지수를 보며 충격을 이길 수 없었다.

종교별 행복지수는 개신교인이 72.9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이 71.5점, 불교 69.5점 순이었다. 불교가 최하위였던 것이다. 불교는 심지어 무종교(70.6점)보다도 낮은 행복지수를 나타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한 해탈의 경지를 설하셨는데 왜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불자들은 '덜' 행복한 것일까?

한 스님은 '복 짓는 것'에서 행복의 차이가 온다고 말한다. 복을 달라고 부처님께 비는 '기복(祈福)'에 물들어 있는 불자들이 복 짓는 것 즉 '작복(作福)'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닦을 것인가. 부처님은 보시하라고 강조한다. 육바라밀에서 보시를 처음에 놓는 것도 모두 '복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깨닫기 위해서도 '복 짓는 것'은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도 '수복(修福)제일'임을 강조하셨다. 복을 닦는 것을 습관화해서 세세생생 복을 지어야 한다. 알면서도 '기복'이 앞서는 이유를 중생이기 때문이라고 둘러대도 괜찮을까?

부처님께서는 현생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잡아함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했다.

"네 가지의 길이 있느니라. 첫째 자신이 맡은 직업에 최선을 다해 스스로 생활을 이끌어야 한다. 둘째 갖가지 재앙으로부터 재산을 잘 보호해야 한다. 셋째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방탕하거나 음흉하지 않은 착한 친구와 사귀어야 한다. 넷째 균형 있는 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 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현세에서 편안하고 즐거우리라."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불행과 행복은 자매라고 한다. 행복이 먼저 오면 불행이 뒤따르고, 불행이 먼저 오면 행복이 뒤따른다. 거대한 윤회의 수레바퀴가 한사람의 일생, 하루 일과, 한 생각 속에서도 끊임없이 돌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절망하기보다 "복이 없음은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이니 복 짓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자.

"'뚱보' 우리아이 마음의 군살까지 쫙~"

인성형 청소년비만치유학교 8월 1일부터 3주간

포교원·불교사회복지연구소 주최 파주 보광사서

이번 여름방학,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산하 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새로운 형태의 아동청소년비만치유학교를 연다.

'더 레스 더 모어(The Less The More)'. '더 적을수록 더 많다, 비울수록 더 행복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기존 비만치유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 아이들에게 불교적 중도(中道)사상을 통해 균형과 조화의 의미를 일깨우는 것이 목적이다.

첫 번째 '더 레스 더 모어' 프로그램은 8월 1일~21일 3주 동안 파주 보광사에서 진행된다.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 대상이다.

조계종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 것은 요즘 소아비만이 심상찮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소아비만저널>이 2007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 가운데 정상체중의 20%를 초과하는 '뚱뚱한 어린이'가 무려 3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아이들이 운동은 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푸드 · 탄산음료 · 인스턴트식품 등 고칼로리 식생활 패턴에만 익숙해져 나타난 결과다. 비만아동의 문제는 비단 몸의 군살로 인한 신체적 위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비만아동들 대부분이 심리적 · 정서적 불안감을 겪는 것은 물론, 운동능력 저하에 따른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지적한다. 이런 문제는 심리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로 갈 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더 레스 더 모어'는 기존의 '살만 빼면 된다'는 비만치료학교에서 벗어나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처럼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비만아동청소년들의 신체 · 심리 · 사회 · 정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근원적 비만치유를 통해 아이들을 생태적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더 레스 더 모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생활방식 변화 ▲자아존중감 강화를 통한 건강한 삶 영위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 동참 · 변화 유도 ▲건강한 자연먹거리 문화 생활화 ▲사찰 생태환경 활용 및 자연과 아동청소년 조화 균형 등이다. 이 밖에도 다도명상 · 지구촌사람들이야기 · 생태위기 · 108배 절운동 · 전통놀이 ·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3주 동안 매일 다른 일정표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것이 '더 레스 더 모어'의 특징이다.

비만치유학교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식단 운용도 눈에 띈다. 사찰음식연구소 '공양간' 박상혜 소장(혜전대 · 극동대 강사)이 비만학교 아동청소년들의 입맛을 고려하면서도 구입하기 쉬운 식재료들을 활용,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 30일분의 사찰음식의 식단을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개발 · 기획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임해영 연구실장은 "'더 레스 더 모어'는 아동청소년 비만을 사찰이 가진 재원으로 총체적으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며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수마감은 7월 26일, 참가비는 110만원. 조계종 사찰 신도는 10%할인 받을 수 있다. (02)2011-1903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2008년 군승 신고식' 봉행

신규 임관된 육 · 해 · 공 3군 군법사 14명은 6월 30일 조계종 총무원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하고 '2008년 군승 신고식'을 가졌다. 사진=박재완 기자

금정사 고소건 '무혐의' 일단락

선학원 법진 스님 기자회견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갈등의 원인이었던 '금정사 횡령 등 고소의 건'이 6월 26일 검찰로부터 무혐의로 종결 처분됐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법진 스님(한국불교선리연구원장)은 7월 3일 선학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정사의 운담 스님과 재단 일부 이사가 야합해 본인을 음해하려 했던 '금정사 횡령 등 고소의 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법진 스님은 "그간 운담과 철오 스님(총무이사) 등은 2007년 11월부터 무고로 소송을 제기하고 신도들을 종용해 거짓 사실을 투서케 하고 사부대중을 반목케 한 것에 대해 깊은 참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것이 소승의 부덕한 소치로 발생한 것임을 통감하고 선학원 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진각종 통리원 5개 부처 부·국장급 인사

새 총무부장 효심 정사

진각종 통리원(원장 회정 정사)은 7월 1일자로 통리원 총무부장에 효심(대전 대승심인당 주교) 정사를 임명하는 등 중앙종무기관 5개 부처 부 ·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총무부장 효심 정사는 1953년생으로 대승심인당, 아축심인당, 보광심인당 주교와 통리원 총무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사감원 사감위원과 제12대 종의회 의원, 대승심인당 주교를 맡고 있다.

통리원은 이날 총무국장에 원암(관음심인당 주교) 정사, 문화사회국장에 정효(탑주심인당 주교) 정사, 관재국장에 지명(승원심인당 주교) 정사를 각각 전보발령하는 한편 기획국장에 서원(선정심인당 주교) 정사, 포교국장에 신혜(보불심인당 주교) 정사를 새로 임명했다.

한편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혜정 정사는 6월 18일자로 법인사무처장에 원혜(정지심인당 주교) 정사를, 이어 6월 20일자로 위덕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겸 부총장에 배도순 경영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신도교육 지침서' 발간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7월 1일 <신도교육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에는 <입교교육 지침서> <신도임원 재교육 지침서> <전문교육 지침서>를 비롯해 '신도관련 법령', '신도교육용 교재' 등 신도교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통합 수록됐다. 포교원은 이 지침서를 전국 2000여 사찰에 배포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신도교육이야말로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불사"라며 "포교원은 신도교육을 위한 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체계화해 더 좋은 책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조동종 사단법인 설립 추진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6월 30일 총무원이 위치한 서울 도선사에서 제44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종회의장 행봉 스님 및 종회의원스님, 각 원장 스님들은 조동종 사단법인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청사 기금 마련을 위해 전 종도 및 신도가 중심이 돼 청사기금 마련을 제반불사의 기본으로 삼고 천불 및 만등불사를 봉행하기로 의결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침술,기공,최면,빙의,퇴마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예약은 사전 7일전에 하셔야 합니다.
- 절망적인 마음을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위치: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한국 빙의 퇴마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북한동포 위해 촛불 들 때”

40일째 ‘北 기아돕기 단식기도’ 중인 법륜 스님

정토회 법륜 스님이 7월 4일자로 단식 40일째다. 북한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법륜 스님은 5월 26일부터 곡기를 끊고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단식기도중인 법륜 스님을 정토회관에서 만났다.

북한은 2년 연속 수해에 따른 흉년과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 외부 지원 감소 등으로 10년 만에 대기근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은 대량아사사태가 발생하려는 초기단계이며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기에 법륜 스님은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 북한에 식량 20만 톤을 지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북한에 식량을 보내지 않으면 90년대에 발생한 대량 아사(餓死)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무리 촉구해도 안 되니까 ‘나’라도 굶어서 아픔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배가 고프면 동포들이 굶어죽는 것에 대해 한순간도 잊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먹을 것 다 먹고 잠잘 것 다 자고 기도한다면 정성이 부족하잖아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7월 4일 현재, 40일째 단식기도 중인 법륜 스님.

올해의 기아는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아사와는 다르다고 한다. 북한에는 4000여개의 마을이 있는데 하루에 한 마을에서 두세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주민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50만톤의 식량이 필요한 데, 두어 달 정도 우선 급한 것이 20만 톤이다. 미국이 50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물량이다 보니 춘궁기인 5월과 7월 사이에 발생하는 아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법륜 스님은 “지금 북한의 상황은 지진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정부가 식량 20만 톤을 북한에 보낸다면 그것은 냉각된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최소한의 담보물은 될 것이란다.

법륜 스님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북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이 소리 한 번 지르지도 못하고 죽어 가고 있는데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서울 한복판에서는 자기 입에 들어오는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시위를 벌이고 미꾸라지 풀벌레 한 마리도 죽이면 안된다고 대운하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현실의 모순점을 지적하였다. 이제는 동포가 굶어죽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촛불을 들 때라 했다.

법륜 스님은 이명박 대통령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여실히 깨달아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기를 거듭 촉구했다.

글·사진=문윤정 논설위원



북한 기아돕기 캠페인을 위해 도보행진에 나선 ‘행진21’ 회원들.

“굶주린 동포 위해…가자, 북녘으로”

‘행진21’ 도보행진 나서

북한동포돕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모임인 ‘행진21(단장 권완수)’은 7월 4일 서울 독립문에서 북한식량지원을 촉구하는 도보행진 ‘생명의 옥수수, 북녘으로 한걸음’을 시작했다.

‘행진21’에 참가한 30여명의 청년들은 7월 4~5일 1박 2일 동안 옥수수와 쌀을 짊어지고 독립문에서 임진각까지 약 50Km 구간을 도보행진한다. 행진에 앞서 ‘행진21’은 호소문을 통해 “1만원이면 북한동포 한 가족을 한 달 동안 살릴 수 있고, 1000원이면 북한동포 한명을 열흘간 살릴 수 있다”며 정부의 긴급대북식량 20만 톤 지원, 민간단체의 긴급대북식량 1만 톤 지원, 일반시민 옥수수 20kg(1만원) 모으기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정부 종교편향 예방 국무총리 특별 지시

잇따른 종교편향 사건에 대해 불교계가 법적인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가 7월 4일 ‘종교적 편향성 오해 불식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하달했다.

한 총리는 이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부처에서 특정 종교 편향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며“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종교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종교간 형평성을 고려해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곽영진 종무실장은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정보시스템에서의 사찰지명 누락과 어청수 경찰청장의 개신교 행사 포스터 사진 게재 등의 사례가 국무회의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곽 실장은 “불교계 등에서 제시하는 종교편향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등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내 종교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문화재별 화재대응 매뉴얼 배포

문화재청, 각 지자체 보급

중요목조문화재별 맞춤형 화재대응 매뉴얼이 배포돼 화재발생시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7월 2일 국보 21개소, 보물 122개소 등 143개소 중요목조문화재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감안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별 주변환경, 화재예방 공조체계 구축 등 일반적인 사항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신고 및 연락체계도 등 화재발생시 초동진화 ▲소산 우선순위, 소산 목록 및 절차 등 소산활동 ▲소방 · 전기 · 가스시설물관리, 산불방지활동 등 화재예방활동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부록으로 도면, 시설물관리 점검표도 수록됐다.

2006년 6월 문화재청의 <문화재재난대응 매뉴얼>이 일반적인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을 다룬 수준이었다면, 이번 매뉴얼은 실효성 검증을 위해 방재 관련 학계, 협회 및 관련부처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방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현장답사를 통해 매뉴얼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실시한다. 조동섭 기자

불교계 “종교편향 중단” 한목소리

곳곳서 성명서 잇따라…불교연석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종식’을 요구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중앙신도회 등 20개 불교단체가 참여하는 ‘불교연석회의(공동위원장 손안식)’는 6월 3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종교적 코드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종교편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불교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불교계 공개참회 및 대국민 사과 ▶종교 편향 행위를 자행한 공직자(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정보시스템 ‘알고가’에 사찰 정보를 누락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국 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 포스터에 등장한 어청수 경찰청장, 교내 불교문화재를 훼손한 주영기 경기여고 교장)의 참회와 사퇴 ▶공무원의 종교 편향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및 주의 훈령 시행 보장 ▶촛불시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중단 ▶평화적 집회와 시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4년 ‘서울시 봉헌’ 발언 이후 4년만에 재결성된 불교연석회의는 “이번에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대통령의 임기 5년간 불교연석회의를 존속시켜 ‘현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교연석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0여 개의 본 · 말사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명박 정부는 기독교 공화국?’, ‘이명박 정부에는 교회밖에 없나? 종교 편향 중단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2개 이상씩 일주문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교 편향 종식’을 촉구하는 유인물 5만 부와 포스터 1000장을 제작해 전국 본말사에 보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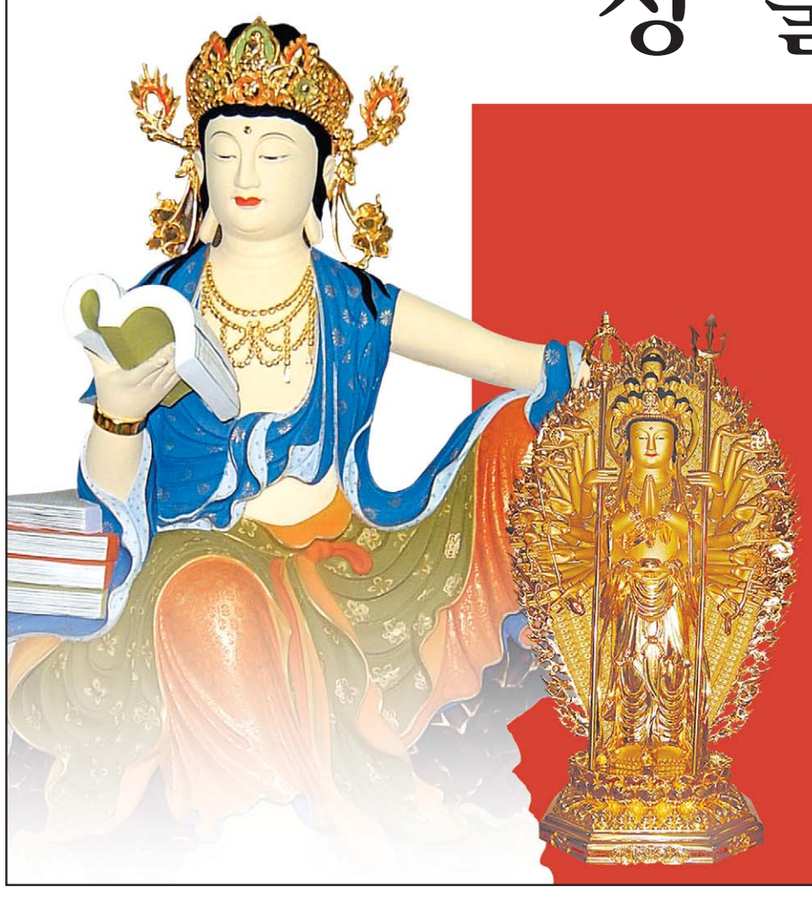
불교연석회의와는 별도로 ‘종교편향 중단 촉구’ 성명서도 잇달아 발표됐다.

영남지역 교구 본 · 말사 주지스님들이 6월 2일 규탄 성명서를 채택한 데 이어, 호남 · 충청, 경기 · 강원지역 본말사 주지스님들도 현 정부의 종교 편향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직원모임인 원우회가 2일과 4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개별단체들의 규탄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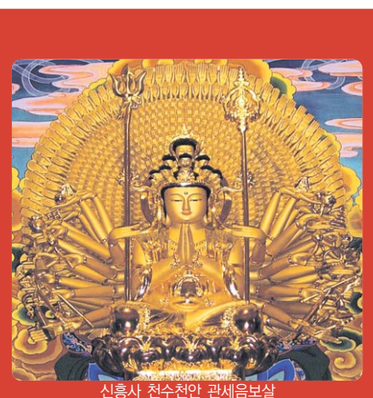
한편, 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추진위원장 수경)는 시국법문과 108배 참회, 발원문 낭독, 행진 및 문화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우 · 김강진 기자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 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몽골 방송에도 부처님 법음이…”

조계종 설립 지원으로 FM 라디오 불교방송국 개국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지원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에 FM 라디오 불교방송국이 개국됐다.

조계종과 몽골 간단사는 6월 27일 간단사에서 조계종 사회국장 도은 스님과 간단사 총무원장 초이잠츠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불교방송 ‘고동의 멜로디(Melody of Conch)’ 개국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초이잠츠 스님은 “불교방송을 개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의 조계종과 스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몽골 지역에 불교를 포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은 스님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대신해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망을 통해 모든 세상이 한 가족처럼 가까워진 요즘 몽골 불교방송이야말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뜻 깊은 불사”라며 “몽골 불교 스스로 외세종교에 맞서 동북아의 자랑스러운 불교국가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축사했다.


6월 27일 몽골 간단사에서 열린 몽골 불교방송 개국식. 간단사 총무원장 초이잠츠 스님과 조계종 사회국장 도은 스님(왼쪽)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몽골지역 젊은 층을 겨냥한 대중적인 포교방송을 지향하는 ‘고동의 멜로디’ 방송은 주파수 97.5MHz로 몽골국립방송의 안테나를 통해 울란바토르 전역에 방송된다. 방송시간은 매일 오전 7시40분부터 밤 11시 40분까지며 아침 저녁 예불과 불교교리, 청소년 상담, 음악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간단사는 이번에 개국한 라디오 방송국이 포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찰에서 부정기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긴 했지만 인쇄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새로운 포교방편이 생겨, 몽골불교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00만 명. 몽골 전체인구가 270만 여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몽골 국민 3분의 1을 대상으로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셈이다. 라디오방송의 범위가 울란바토르로 한정돼 있지만 다른 지역 몽골인들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교방송이 젊은 층 포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와스룬 스님은 “딱딱한 교리방송 위주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경전이나 교리에 대한 이야기나 법문 등을 전하고, 음악방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7월 몽골에 불교방송 설립 지원을 약속하고, 3월 간단사에 3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날 개국식에서 조계종은 참석자들에게 소형라디오를 선물했다.

김성우 기자


‘반갑다 연우야’ 봉사단(사진 오른쪽)은 6월 29일 인천 선원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전개했다.

“우리 이웃 건강지킴이가 찾아왔어요”

‘반갑다 연우야’ 강화군 선원면서 의료봉사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이 운영하는 불교의료봉사단 ‘반갑다 연우야(단장 구자선)’는 6월 29일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2리를 방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엄인웅 서울인 치과원장과 간호사 · 치위생사를 포함한 의료봉사단 15명은 지산2리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펼쳤다. 진료행사에서 치과검진과 진료뿐만 아니라 안마차량을 이용한 전신 · 발 맛사지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하재갑 지산2리 이장은 “농촌지역이 의료소외지역인데 이렇게 찾아와줘 지역주민 모두가 고마워한다”며 “농촌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기회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반갑다 연우야’는 면사무소나 지역 농협에 신청서와 안내서를 배부하고 진료신청을 받아 섬마을 · 벽촌과 같은 의료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무소득 어르신, 아동 등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02)733-7277

노덕현 기자

“음식 만들기도 수행의 일부”

첫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공양 소임자 교육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이 처음으로 열린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공양 소임자(원주스님 · 별좌 · 공양주)에 대한 교육이 7월 15 · 16일 2차에 걸쳐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진행된다.

조계종 총무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사찰에서 수행하는 스님과 재가자 공양을 담당하는 소임자에게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인지시키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할 여법한 공양으로 진정한 사찰음식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음식을 먹는 행위와 만드는 과정도 수행의 일부이며 먹을거리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교육은 선재 · 대안 · 운아 스님의 이론과 실습으로 사찰조미료 만들기와 영양학뿐만 아니라 여름별식과 저장음식 만드는 법 강좌로 진행된다. (02)2011-1776

가연숙 기자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 정릉 보림사(조실 묵산)는 7월 30일 오후 8시부터 8월 5일 오전 7시까지 보림선원 선방에서 제69회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를 개최한다.

35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법회는 거사선풍(居士禪風)을 일으킨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법문 테이프 듣기와 좌선을 병행하며 1주일간 자지 않고 참선하는 수행프로그램이다. 이 법회를 거쳐간 불자들은 불교법조인회장 전창열 변호사를 비롯해 대불련총동문회 명예회장 명호근 쌍용양회 부회장, 김문환 前 국민대 총장, 우리는선우 대표 성태용 교수(건국대), 청주지방검찰청 김진태 검사장 등 1000여명에 달한다. (010)6332-4096

김성우 기자

비로자나불 비상하강시스템 시연

조그마한 불꽃이라도 감지되는 순간, 해인사 국보급 비로자나불상 2기가 지하로 비상 하강되는 소방안전시스템이 시연된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7월 15일 오후 1시 하안거 정기소방훈련을 실시하면서 문화재비상하강시스템을 시연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설계된 이 안전시스템은 낙산사와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주요 목조문화재를 보호하는 장치로써 첫 선을 보이는 것. 이 장치의 실효성이 검증되면 향후 중요 성보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우 기자

전국교사불자연합회 8월 2~4일 수련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창홍)는 8월 2~4일 하동청소년수련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교사불자연합회 여름수련회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직무연수를 병합해 실시하는 이번 수련회는 불교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수련회는 파라미타 소개, ‘반야사상의 실천’ ‘음악을 통한 불교문화’ ‘불교심리학의 상담적 기법’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등을 주제로 한 특강, 108배, 평가회, 회향식 등으로 진행된다. 찻잔, 천연염색, 천연비누 만들기 등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도 체험하게 된다. 김성우 기자

‘2008 회당문화축제’ 개최

7월 28일부터…독도아리랑 콘서트 등 마련

제8회 회당문화축제가 7월 28~30일 울릉도 일대에서 개최된다. 진각종 회당문화축제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복지연대가 주관하는 2008 회당문화축제는 더욱 탄탄한 기획과 행사진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독도아리랑-삼색울릉, 삼색여행’을 슬로건으로 하는 올해 회당문화축제는 7월 28일 통구미항에서 군장병 250여 명을 초청하는 ‘바다지킴이 위문콘서트’, 29일 저동항 방파제에서 ‘생명사랑 불꽃콘서트’, 30일 도동항 특설무대에서 ‘YB와 함께하는 독도아리랑 콘서트’ 등 세 가지 색깔로 찾아간다. 이와함께 부대행사로 독도와 나라사랑 캠페인, 페이스 페인팅, 나염체험, 풍등띄우기 등의 체험행사와 독도 및 회당문화축제 사진전이 열린다. 특별행사로 29일에는 대형 불꽃쇼가, 30일에는 우산국 퍼레이드 등이 펼쳐진다.

회당문화축제는 1902년 울릉도에서 탄생한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문화축제로, 이제 명실상부한 울릉도 최대의 지역문화축제로 정착됐다. 무엇보다 여러 전문영역의 민간자원봉사자와 동호회 등이 중심이 된 준비위원회 운영과 울릉군민의 협조 및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

회당문화축제 준비위원회측은 “회당문화축제가 불과 8년만에 지역문화의 발굴과 문화복지의 개념이 어우러진 국민화합의 축제로 자리매김돼 가고 있다”며 “울릉도의 미(美)를 더욱 새롭게 하는 지역문화 관광상품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02)6328-0136

김성우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수치의 비밀 ◆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7. 26(토) 오전 9시 ~ 7. 27(일) 오후 1시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선착순 10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서구 불교 발전 막는 불경 '번역오류'

해외불교칼럼



서구의 지식인들이 불교에 대해 거대한 관심을 갖지만 불경의 번역에는 적지 않은 오류가 있다. 사진은 영문 불서들로 본 칼럼 내용과는 무관.

지난 봄 어느 분에게 절 공부가 깊은 독일 보살님을 소개하자 매우 감탄한 듯 물었다. "그 어려운 한자 불경을 어떻게 다 배우셨나요?" 그 보살님이 빙긋 웃었다. "저는 독일어와 영어로 된 불서들을 읽었어요." 좀 민망해 하는 그분에게 오늘날 서구불교에 대해 몇 말씀을 전해드렸다.

영국의 팔리어 전문석학인 리스 데이비즈는 1881년 '팔리어문학회'를 창립하고 <니카야(阿含經)>의 팔리어 원전을 대부분 영역해낸다. 또 미국에서는 자연주의자며 무정부주의자인 데이비드 소로가 랄프 에머슨과 함께 1884년 프랑스어 판<묘법연화경(Lotus Sutra)>의 영역 본 일부를 출판한다. 그즈음 불교, 힌두교 등 동양의 영적세계에 심취한 블라바트스키부인 등 일부 서구지식인들은 신지학(神智學) 혹은 접신학(接神學)이라 불리는 신비주의 성향의 '데오소피'를 창시하여 1875년 뉴욕에 신지학협회, 그리고 크리스마스 험프리, 1924년 런던에 '불교협회'라는 밀교모임을 만든다.

이어 1927년에는 <티베트 사자의 서>가 영역 초판이 나오고 1935년에는 분석심리학의 개척자인 칼 융의 주해로 재판된다. 하지만 불경 원전을 일차 번역한 그것을 다시 이차 외국어로 바꾸는 등 졸속과 무책임, 그로 인한 필연적 왜곡과 오류는 서구의 불교학(Buddhology) 발전을 되레 가로막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반야심경> 등 불경번역의 개척자인 에드워드 콘즈 박사, 그리고 인도학 및 비교종교학의 태두인 독일철학자 막스 뮐러 등은 산스크리트어 등을 심층 연구하여 직접 번역에 나선다. 또 영국의 모리스 웰시는 <디가니카야(長阿含經)>를 영역하여 1994년 <Thus have I heard>라는 제목으로 펴낸다. 그 내용 중 일부다. "대부분의 팔리어 경전은 '에밤메 수땀', 즉 '그렇게 내게 들려졌다'라는 강조적인 수동 형태의 문구로 시작된다." 오래전 여시아문(如是我聞)으로 한역된 이 도입구절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정갈한 긴장감과 지순한 불법의 향기를 느끼게 한다. 우리말로 '나는 그리 들었더라' 또는 '그렇게 나는 들었다'로 풀이가 됨직한 이 말에는 한자로 일시(一時), 우리말로는 '언젠가' '어느 한 때'로 해석되는 '에캄 사마얌'이란 팔리어 구절이 이어진다. 그 다음에 세존과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그분께서 머무신 곳, 행하신 일이 펼쳐진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동양어문학 교수인 존 브러프는 1950년 산스크리트어로 쓴 동일 구절의 티베트어 번역을 근거로 '어느 한 때'란 미래전향이 아니라 과거소급의 의미임을 재확인하고 산스크리트어-티베트어로 쓰인 해당경전의 도입부분의 바른 해석은 '어느 한 때 나는 그리 들었다'라 단언한다. "이는 경전의 구술자가 자신에게 전승된 바를 타인에게 전달함을 입증한다. 즉, 붓다의 행적의 시점이 화자의 회고에 선행되며 팔리어 표현도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아난다가 붓다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전하고자 스스로 이 구절을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앞서 언급한 모리스 웰시의 얘기를 들어보자. "나는 후학들에게 중세독문학을 가르치던 1951년 불문에 귀의했다. 내가 맨 처음 불경을 펼쳤을 때 느낀 감동은 거의 충격에 가까웠다. 그 첫 구절인 '나는 그리 들었더라'를 대하자마자 800년 경 현대독일어의 원형인 고고지독일어로 쓰인 '힐데브란트의 노래'의 첫 구절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 비극적 영웅서사시 또한 '나는 말해진 바를 들었다(Ik gihorta dat seggen)'로 시작된다."

이것이 일부 서사시에 통용되는 형식상 우연인지, 또는 인도-아리안어가 공유한 표현상 필연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이 말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렸음일까? 동서양의 여러 저작물과 출판사의 이름에도 이와 같은 문구를 쓴다. 그리고 어느 미국 젊은이의 아름다운 시에도 이 구절이 나온다.

'먼 옛날 그윽한 숨결처럼
그 말씀이 다가오시니
나는 그리 들었더라.'

성휴 스님

참조 : Middle Way(Maurice Walshe), Hildebranslied,The Theosophy Society, 기타

영국에 불교초교 설립 추진

영국 버밍엄 불교비하라재단은 불교대학에 앞서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6월 22일 재단 이사장 존 비어드는 현재 관련예산책정과 부지선정, 그리고 주변 환경과 주민반응을 다각도로 타당성 검토 중이라 밝혔다.

"당국의 인가와 기금지원에 따라 최초 불교학교가 계획대로 설립되면 별도의 종교적 커리큘럼보다는 국가교육지침에 따라 미취학아동 및 초등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동 재단은1998년 버밍엄 레이우드 담마파다 파고다에 불교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며 같은 위치에 대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출처: PA**

구독 문의 02-2004-8200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s there really a paradise and a hell?

극락과 나락이란 것이 정말 있나요?

An arrogant warrior asked a renowned master, "Is there really a paradise and a hell?" "Who are you?" asked the master. And he said "I am a pretty good warrior." "You, a fighting man!" sneered the master, "What kind of ruler would have you as his guard? You look like a beggar". Exasperated, the warrior was about to draw his sword. The master continued, "So you have a kitchen knife! The blade seems too dull to cut off my head." Finally, the warrior drew his sword. the master remarked, "Alas, here open the gates of hell!" At these words, the warrior perceiving the master's discipline, put away his sword and bowed. "Oh, here open the gates of paradise", smiled the master.

어느 오만한 무장이 고명한 선사를 찾아가서 물었다, "극락과 나락이란 게 있긴 있소?" 스님이 되물었다. "댁은 뉘시오?" 무장이 대답했다, "꽤 쓸 만한 전사요." 선사가 콧방귀를 튕겼다. "옳아, 쌈꾼이시군! 헌데 누가 댁을 졸개로 쓰시는가? 낯짝도 꼭 거지같이 생기셨구만." 확 치민 무장이 칼을 뽑으려는 데도 선사는 줄곧 이죽댔다, "아이고, 부엌칼을 가지셨군! 헌데 칼날이 무뎌서 어디 내 목이 쳐지겠나?" 마침내 무장이 칼을 뽑아들자 선사가 말했다. "오호라, 나락의 문이 활짝 열리도다!" 그 말에 선사의 법력을 알아차린 그가 칼을 거두고 절을 올렸다. 그러자 선사가 미소를 지었다. "오, 극락의 문이 활짝 열리도다."

번안:성휴 스님, 그림:이태수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리버 스톤 ❼

종교분쟁에서 '불교 내면'을 보다

남부베트남 종교분쟁으로 불자들 핍박
틱꽝득 스님 소신공양 모습에 큰 감화

부상을 당해 전상메달도 하나 얻어달고 계급도 오른 올리버 스톤 상병은 그 때서야 자신이 자유평화를 수호하는 정의의 십자군은커녕 남의 나라의 얼빠진 집안싸움에 스스로 끼어들었음을 알게 된다. 그 전쟁은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이미 지고 있었다.

당시 남부베트남에서 벌어진 종교분쟁은 국력을 극도로 낭비하고 민심을 사분오열시킨다. 그 분쟁은 프랑스의 식민지 분리통치가 남긴 가장 추악한 배설물이었다. 남부베트남의 약 1600만 인구 중 8할 남짓이 불자이고 프랑스 식민통치와 함께 성장한 가톨릭은 170만 정도였다.

그러나 과거 식민치하에서 프랑스유학을 다녀온 가톨릭인사들은 대체로 생업이 보장되고 신분도 현저히 상승한다. 뒤틀린 사대근성과 노예근성이 골수에 박혀 돌아온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뿌리인 베트남민족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불교, 도교문화를 경멸하고 동족인 베트남불자들을 하층민으로 취급하는 인종차별마저 서슴지 않는다. 그러자 빈곤에 허덕이는 농촌마을은 식량배급을 얻고자 통째로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불자 공무원들도 최소한의 입지를 보장받고자 대거 개종한다.

한편, 고딘디엠 대통령의 인척과 가톨릭인맥들은 내각, 의회, 군부 등 각종 요직과 이권을 독점한다. 그들은 프랑스에 이어 새로운 상전으로 등장한 미국이 제공하는 온갖 지원을 빼돌리며 전쟁 호경기를 한껏 즐긴다.

그들의 눈에는 독립항전의 주축으로 프랑스 식민통치자들을 몰아낸 호국불교계가 고맙기는커녕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협하는 장애물로 보인다. 과거 프랑스 통치자들의 앞잡이를 하던 군경관리들은 불자들을 체포, 고문, 학살하고 불탑을 폭파한다.

또한 공권력투입을 정당화하고자 의도적으로 불교계를 자극하며 불탄일에 불기(佛旗)의 게양을 금하고 예불과 전법마저 공공집회 신고를 하도록 통제한다. 게다가 종교적 배경 때문에 군사작전상 불이익과 희생 번트용으로 내몰리는 불자 군인들도 허다하다.

그리고 진급 보직 차별에 대한 항명과 무자비한 진압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자국군대 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트리꽝(釋智廣) 스님이 주도한 불교계의 반정부 운동은 비폭력무저항으로 일관한다.

올리버 스톤이 처음 사이공에 도착하기 두어 해 전인 1963년 디엠정권의 불교탄압과 내분조장에 맞서 틱꽝득(釋廣德) 스님이 미국대사관 앞에서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한다. 온몸에 불길이 타오르는데도 정좌를 흐뜨리지 않고 고요히 열반에 들어서는 그 장엄한 모습은 세계인들에게 무언의 충격을 가한다.

그 후 일주일 사이에 여러 비구, 비구니스님들이 말없이 틱꽝득 스님의 뒤를 잇는다. 일부 서구 언론이 '인간횃불(Human Torch)'이라 명명한 그 사건을 계기로 올리버 스톤을 비롯한 수많은 서구인들이 불교의 내면세계를 새로이 이해하고 불문에 들어서며, 참여불교 또한 이때 태동한다.

그러나 그즈음 외세지원을 업고 헛바람이 잔뜩 든 베트남의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마담 고딘누는 외국기자들과 만나 비단부채를 펴들고 이런 소리를 한다. "또 다른 중이 바비큐 쇼(another monk barbecue show)를 하면 난 박수를 쳐 줄래요."

특정종교의 진면목을 들추기 이전에, 그리고 선악과 업보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 일련의 사태 직후부터, 그렇듯 비이성적인 정권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들끓는다. 미국정부 역시 줄곧 엇박자로 나가는 디엠 일당이란 애완견과 더 이상 놀아줄 수가 없다.

틱꽝득 스님이 입적한지 불과 몇 달 후 그들이 그토록 애처롭게 매달리던 미국이 순식간에 안면몰수를 한다. 강아지를 끌고 다니던 외세(外勢)의 끈을 댕강 잘라버린 것이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쿠데타가 터져 디엠은 참살되고 남부베트남은 다시 혼미를 거듭하다 패망한다.

'치졸하고 야비한 종교차별'로 인한 내환(內患)은 반드시 차가운 민심이반(民心離叛)과 국론분열(國論分裂)로 이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미숙아적 외세의존'이란 외환(外患)마저 겹치게 되면 결국 자기파멸(自己破滅)의 비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올리버 스톤은 디엠정권을 통해 자아도취에 허우적대던 어느 광신적 정치패거리의 처참한 말로를 목격한다. <계속>

성휴 스님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운 송 업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캠페인 PR]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일주문



장애우와 함께하는 수련캠프 개최
사회복지법인 내원 이사장 정련 스님은 7월 23~26일, 7월 30일~8월 2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우와 함께 하는 '마음자람' 수련캠프를 연다. (055)633-3000



강진 백련사 주지에 취임
여연 스님은 7월 3일 강진 백련사에서 봉행된 주지 취임법회에서 주지로 취임했다.



연화원요양보호사교육원 개강
서울 광림사 주지 해성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설립, 6월 30일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했다.



가천의과학대 총장 취임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은 7월 1일 가천의과학대 제2대 총장에 취임했다.



'재가불자로 살아간다는 것' 강연
우리는선우 대표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과)는 7월 16일 오후 7시 선우법당에서 '재가불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힘겨움과 가능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02)2278-8672

"템플스테이 한국 관광산업 새 모델로 발전"

서울관광대상 수상한 불교문화사업단 종훈 스님



"한국불교가 1700년 역사를 지닌 산사(山寺)의 문을 열고 내·외국인에게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템플스테이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이제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내국인은 물론 세계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템플스테이로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알린 공로로 템플스테이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6월 27일 열린 서울관광대상에서 최우수서울여행상품상을 수상했다. 단장 종훈 스님(사진)은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템플스테이의 의미부터 되짚었다.

템플스테이는 '2002 한·일 월드컵' 때부터 시작, 2004년에는 공주 마곡사를 비롯한 전통사찰들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템플스테이는 현재 서울 8개 사찰을 중심으로 전국 87개 사찰에서 성실하게 운영 중이다.

스님은 "이제 템플스테이가 안정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면서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화두는 '휴식'과 '여유'다. 도시의 삭막함을 벗어나 조용히 자신을 돌보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면서 산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템플스테이의 인기 비결"이라 꼽았다.

스님은 이어 "템플스테이는 2005년 한국관광공사가 프랑스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9%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관광상품인 템플스테이는 내·외국인을 막론해 생활에 쫓겨 사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 말했다.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템플스테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다양화, 중앙과 사찰간의 체계 정비 등 숙제는 남아있는 상태다. 템플스테이가 한국 대표 관광 상품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려면 통역 등 세계인을 위한 서비스 정비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기본 틀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치열해지는 세계관광 각축전 속에 템플스테이가 한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이 되고 참가하는 내외국인들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한국에서 치료 잘 받고 있어요"

캄보디아 환자 키아 카브-오킴씨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법안, 이하 실승회)와 경희의료원불자회(회장 권혁운)가 공동으로 초빙한 캄보디아 환우 키아 카브(12)와 오킴(31)씨가 한국에서 건강을 되찾고 있다. 서울 경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두 환우를 6월 30일 만나봤다.

두 환자 중 키아 군은 상태가 무척 좋아졌다. 병문안 간 실승회 스님들과 장난치며 놀 수 있을 정도다. 한국말로 인사도 곧잘 한다. 생글생글 웃으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또박또박 외치는 키아는 병원 내에서도 인기 만점이다. 입국 시 탈장 때문에 그대로 성장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료 판정을 받은 키아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키아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7월 4일 비행기로 캄보디아 고향마을에 돌아갔다.

문제는 오킴씨다. 오킴씨 뱃속에 있던 물혹이 정밀검사 결과 암 덩어리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수술을 받았다. 알고 보니 오킴씨는 이미 2000년부터 암에 걸려있던 상태였다고 한다. 이미 2004년 본국에서 한 차례 수술도 받은 적이 있었다. 암을 단순한 혹으로 여긴 본국 의료진이 잘못 시술해 신경을 건드려 마비 증세까지 나타났던 것이다.

현재 오킴씨는 회복실에서 수술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아직 방사선 치료가 남아있어서다. 경희의료원불자회와 실승회 스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낯선 이국 땅에서, 병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터다.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 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경희의료원 불자회 권혁운 회장은 "하루는 오킴씨가 너무 답답해 보여 병원 인근 사찰 연화사에 데려갔더니 법당에서 너무나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더라"면서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불자로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오킴씨에게 발생한 수술비는 총 2000만원이다. 키아와 오킴씨를 초청하기 전, 경희의료원불자회가 이들의 수술비와 체류비, 항공비 등 일체를 모금했지만 사실 오킴씨의 수술비만으로도 모금액을 초과해 다시 모금운동을 펼쳐야 할 상황이다. 외국인이다 보니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생각지도 못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됐기 때문이다. 경희의료원에서도 최대한 이들에게 배려하고 있지만 병원이 아닌 불자회에서 환자들을 초청한 것이라 병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실승회와 경희의료원은 앞으로 오킴씨가 방사선 수술(총 5주 진행)을 받고 난 후 암이 재발하지는 않는지 경과까지 모두 지켜 본 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한 번 맺은 인연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킴씨와 한국 불자들의 인연이 올곧게 이어지려면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02)725-4277

김강진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부처님 약속 지키는 단체로"

'더 프라미스' 초대 이사장에 법등 스님



"우리 역시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아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국제사회에 돌려줘 자비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The Promise:부처님의 약속)' 창립총회가 6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사회는 이 자리에서 조계종 호계원장 법등 스님을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추대했다.

'더 프라미스'는 지난해 법등 스님을 비롯한 30인의 사부대중이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도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법등 스님은 '더 프라미스'를 통해 "종교와 인종, 지역과 차별 없이 세계 곳곳의 재난과 전쟁 분쟁 낙후 지역에서의 긴급 구난구호, 의료서비스, 교육기회 제공 등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더 프라미스'는 현재 티베트 자치구 내 쓰촨 지역 리탕군 중와중학교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컴퓨터실 등 현대식 교육설비를 갖춘 중와중학교가 완공되면 티베트 도서벽지 교육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법등 스님은 "여러분의 원력이 자비실천의 원동력이 된다"면서 "큰 욕심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단체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김강진 기자

부산 명륜심인당 이전 헌공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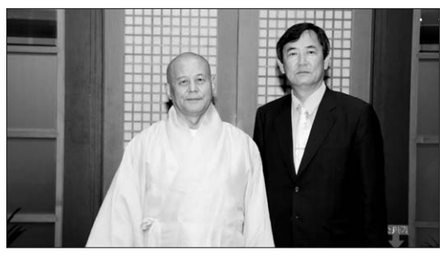
진각종 명륜심인당(주교 혜명 정사)은 6월 19일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신축 심인당에서 통리원장 회정 정사, 종의회 의장 성초 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명륜심인당은 지상 3층, 지하 3층 건물로 심인당과 부산교구청, 법담실, 자성학교 등을 갖추고 있다. **김성우 기자**

봉은·도선사 등 수월정사 관련 감사패 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6월 30일 중국 연길지역에 건립한 수월정사 불사관련 공로자에게 감사장(패)과 공로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과 총무국장 진화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감사장을, 수국사 주지 원담 스님과 청주지방검찰청 김진태 검사장은 감사패를, 총무원 사회부장 세영 스님은 공로장을 각각 받았다. **김성우 기자**

박장옥 서울시 교육감 후보 지관 스님 예방



박장옥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7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박 후보는 "정부의 종교편향으로 불자들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말하며, 교계에 지원을 부탁했다. 지관 스님은 "최선을 다하면 부처님 가피가 있을 것이다.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냈다. **조동섭 기자**

육·해·공군 사관학교 불자 생도 합동 법회



성무호국사(주지 동광)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생도 화합의 기간을 맞아 7월 1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불자 생도 합동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설곡 스님(대한불교수도원 원장), 무진 스님(화장사 주지) 등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곡 스님은 "불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떳떳하게 살기 바란다"고 법문했다. **손효선 기자**

대통합종단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종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종단에 유의 하십시오.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 총무원 (051)527-7733,5431 / 팩스 (051)527-5432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김해,창원종무원 (055)291-4218 휴대폰 011-572-4218

관음출판사필름

“여름 방학엔 청소년센터서 놀자”

지역 곳곳에 자리잡은 불교계 어린이·청소년시설

박현자(52 · 가명)씨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의 방학이 다가오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다른 부모들처럼 아이를 학원에도 보내고 싶고 좋은 교육 환경도 만들어 주고 싶지만 남편과 사별한 박씨 혼자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두 가족 생활비 충당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또 하나, 일을 하다 보니 아이가 늘 혼자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 박씨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박씨는 호소한다.

“저 같은 불자를 위해 불교계에서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시설, 우리 주변에 많이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흔히 요즘 아이들에게는 방학도 없다고들 한다. 학원이다, 보충수업이다 해서 각종 사교육을 통해 부족한 학습능력을 보충하는 시간이 바로 방학이기 때문이다.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양극화의 그늘이 크게 드리워지고 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비싼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학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아이들. 여기에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는 이른바 ‘열쇠아이’ 역시 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가진 아이들에게 개방된 공간은 사실 지역 곳곳에 있다. ‘공부방’ 또는 ‘청소년독서실’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지역 시설이 바로 이런 시설들이다. 불교계에서도 ‘방과후 교실’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 및 기관들이 전국에 있다. 형태는 크게 공부방, 지역센터, 문화센터 등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지역 속에서, 지역밀착형으로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시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독서실 또는 공부방이다. 이곳들은 그야말로 ‘지역밀착형’이다. 특히 이러한 시설은 지역의 수요에 의해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요즘은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도 개설되고 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서울지역에 약 20여 곳 정도 된다. 이중 동산불교대학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석관청소년공부방(원장 정진화, 02-941-1242)은 아동과 청소년 모두 아우르는 시설이다. 아동들의 방과후 교실과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교실은 이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이곳은 독서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1시간에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으로 전액 쓰인다. 게다가 인근 지역센터와 연계해 수영 · 글짓기 · 탁구 교실 등을 무료로 제공해주기도 한다. 컴퓨터 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하기 때문에 이 시설의 하루 이용 학생 수는 120명에 이른다. 성북2동청소년공부방을 비롯한 다른 시설들 역시 석관청소년공부방과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청소년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 방학때 갈만한 지역공부방 및 센터

구분	시설이름	지역	연락처
지역아동센터	새날복지회부설	경기 성남시 금광1동	(031)745-9808
	즐거운학교지역아동센터		
	당진지역아동센터	충남 당진군	(041)354-1385
독서실	금호청소년독서실	서울 견지동	(02)2299-2414
	월곡청소년센터	서울 하월곡3동	(02)918-3543
	용마청소년공부방	서울 면목8동	(02)496-8689
	답십리청소년독서실	서울 답십리3동	(02)2243-3648
	수유1동청소년독서실	서울 수유1동	(02)986-7623
	구로3동청소년독서실	서울 구로3동	(02)852-7771
	응암청소년독서실	서울 응암4동	(02)307-5384
	신월청소년독서실	서울 신월동	(02)2695-4611
	신림청소년독서실	서울 신림11동	(02)856-1207
	신내청소년독서실	서울 신내1동	(02)434-3887
	성북2동청소년공부방	서울 성북2동	(02)741-1028
	상계2동청소년 공부방	서울 상계2동	(02)934-2118
	구립동대문청소년독서실	서울 장안4동	(02)2247-3120
	구로구립궁동청소년독서실	서울 궁동	(02)2619-7444
	구로5동청소년독서실	서울 구로5동	(02)854-7081
	거여청소년독서실	서울 거여2동	(02)431-1425
수련관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지원센터	충남 보령시 대천동	(041)934-1434
	제천시청소년수련관	충북 제천	(043)651-7474
	구로청소년수련관	서울 구로2동	(02)838-1318
	대한불교청소년연합부여지회	충남 부여 보리사	(041)834-7755
	부산시양정청소년수련관	부산 양정2동	(051)868-0750
	신흥사청소년수련원	경기 화성시	(031)357-2695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부산 동삼1동	(051)405-5223
	목동청소년수련관	서울 목동	(02)2642-1318
	괴산수련원	충북 괴산군	(043)833-0399
	부루나청소년교육회관	인천 가좌3동	(032)577-0266
사찰	금장사 보리공부방	서울 홍은동	(02)395-0042

tip! tip! tip!

지역아동정보센터(www.icareinfo.info)를 클릭하보세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2168개(2007년 12월 기준)가 설립돼 있으므로 지역아동정보센터(www.icareinfo.info)에서 찾고자 하는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를 검색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각 지역사회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방학 시즌을 맞아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내방,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이용 요금을 면제받거나 상당부분 할인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 문화센터로 놀러가 볼까

어린이·청소년기에 놀이 문화는 무척 중요하다. 한참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시기이기도 하거니와 성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크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신나는 놀이문화와 함께 학습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들이 놀이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는 곳이 각 지역 청소년 문화센터 또는 수련원이다.

청소년지원센터들의 특징은 아이들에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만들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지원센터는 또한 각 지역별 동사무소 · 학교 · 병원 등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중 부산 양정청소년수련원 · 지원센터(원장 범산)는 ‘UCC만들기’ 등의 영상제작훈련은 물론 방학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청소년들을 찾아간다. 또한 보령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지원센터(원장 정운) 역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풍물 등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곳이다.

▲사찰에도 어린이청소년시설이?

서울 홍은동 일대에서 ‘보리공부방’은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장사(주지 본각) 약사전 1층에 마련된 이 공부방은 2006년 개원해 지금까지 원어민 교사 영어 과외 지도를 하고 있다. 여기에 과학 체육 국악 풍물 서예 등 다양한 특활프로그램도 함께 지도하며 원하는 학생의 경우 선행학습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곳이므로 보육비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교육비를 받지 않는 무료 방과후 교실이라는 점도 큰 메리트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나이 잊고 즐겁게 봉사해요”

병원봉사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호스피스 봉사는 계속해서 ‘삶’과의 이별을 목도해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타인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을 관조하게 만든다. 한 생각 바꿔보면 죽음 역시 삶의 일부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 삶의 마지막을 맞았을 때 보살펴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불제자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정해자(68·사진)씨는 요즘 일주일에 사흘 병원봉사를 통해 이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이다.

봉사자 정해자씨



일산병원서 3년째 호스피스 봉사
“노년층에게도 적절한 봉사기회를”

정씨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일반병동 환자들을 돌보고 목요일에는 일산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한다. 봉사를 시작한지는 햇수로 3년이지만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한 것은 1년 남짓 됐다.

정씨는 병원에 도착하면 간호사에게서 봉사일지를 포함한 환자 차트를 받는다. 거기에다 정씨는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환자의 기분이나 상태 등을 차근차근 써둔다. 정씨의 메모는 다음날 봉사자에게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허투루 쓸 수 없다. 환자 차트를 살펴 보면서 정씨는 그날 만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맞춰’ 다가갈지 생각한다. 그가 하는 일은 주로 환자의 머리를 감기고 발 마사지를 하고 병수발로 힘겨운 환자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 것 등이다. 정씨의 병원봉사 일과는 이렇게 돌아간다.

정씨의 특기는 무엇보다 ‘마사지’다. 병원봉사를 하기 전, 노인복지관에서 경락마사지를 해온 덕분인지 정씨의 마사지는 수준급이다. 어떤 환자들은 정씨가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기도 한다.

“오전에만 환자 다섯분에게 마사지를 할 때도 있어요. 저를 기다려준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기쁜데 어떻게 안 해드릴 수 있겠어요.”

항상 밝게 웃는 정씨는 어디서든 자신의 봉사활동을 떳떳하게 드러낸다.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상(相)’ 없는 봉사를 해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말을 꺼리는데 비하면 특이하다. 그러니 가끔은 ‘자랑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정씨에게는 이유가 있다.

“봉사활동 자랑을 해야 봉사를 같이 하실 분도 늘지 않겠어요? 봉사가 얼마나 좋은지,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는지 알려야한다고 생각해요.”

정씨는 봉사자 중에도 특히 불자 봉사자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정씨가 봉사하고 있는 일산병원 호스피스 병동에는 정씨만 불자 봉사자다. 다른 봉사자들과 종교적 갈등은 없지만, 불자들의 호스피스 봉사 참여도가 낮은 점은 늘 정씨 가슴 한 구석에 남아 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호스피스 봉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알린다.

“누구나 생을 마감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를 뿐이지요. 생을 마감하시는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지키다 보니, 가족이 환자를 대하는 모습 등에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무작정 슬픔에 빠져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배우면서 부처님께 기도 한 자락이나마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늘 기쁘게 봉사하며 나이를 잊고 산다는 정씨. 그가 사회에 봉사자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이 많은 봉사자들도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경험과 체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사실 사람 나이 60대는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열정도 가장 많은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봉사 의지를 가진 노년층에게도 적절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강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www.hypnos114.com
전생·빙의
인간 잠재의식 직접 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 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잠재의식속에 숨겨진 심리적 근원을 밝혀 인간을 변화시키는 최면의 위력"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부부솔루션등 출연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ICHT)
심리상담 전문가,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생활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의 실제, 최면요법 등
빙의치유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영가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현재 접수중
미국최면전문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한국최면과학원 대표전화 : 1544~2741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대전 042)222-0737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영남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사무국에서는 본 보존회 초대이사장이시고 영남범음범패 및 장엄도량의 보유자이신 문구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판소리, 가곡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성악곡의 하나인 범패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승 보존하고 우리전통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영산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저변인구 확대를 통해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과정(기본 : 6개월) 전문반 1년 (기본과정 수료자에 한함)
성적 우수한 스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
□ 교육과목 : 사물다루는법 / 각종제반의식
□ 작 법 무 : 천수바라작법무, 오공양나비작법무
□ 국 악 기 : 법고, 태평소, 대금, 단소,(영산회상, 청성곡 등)
□ 개 강 일 : 2008년 7월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수시모집)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 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 대강당
□ 접수 연락처(사무국) : 051)327-5095 / 010-2314-1279
각종 사찰행사 본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전수자 스님을 배정하여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보시금 중 일부는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행자(예비스님)모집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buddhanews.com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고 산다면 부처!

☞25면에서 계속

둘이 아닌 불이 들어올 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같이 둘이 아니게 착하게 됨으로써 바로 물리가 터지고 마음의 발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식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어야 육체가 따라오지, 마음으로 붙들지 않고 말로 다가 이놈 저놈 하고서 욕을 아무리 해 봤던들 더욱더 차게만 느껴지고 더욱더 멀어만지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위없는 가르침이고 진실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여여하게 깨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신 밥 먹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네들이 하는 염불을 들어 보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하죠? 이 다섯 가지를 잘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아주 그지없이 깨칠 것입니다.

첫째, 계향이니 말입니다, 계향이라고 해서 계를, 280계나 350계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는데 왜 꼭 그렇게만 지켜야 합니까. 만약에 계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단 십계도 못 지킵니다. 단 오계도 지키기 어렵죠. 그런데 첫째 계향이라고 했으니까 일체를 내 탓으로 돌리고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처음부터 기초가 잘되어야 집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부처라는 뜻도 되죠. 그러나 이게 처음부터 직선으로 들어가야지 만약에 잘 지키는 것만 계라고 가르친다면 이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계향이니, 내 탓으로 돌리고 또는 부처님께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은사 스님에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도 절대 안 된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자기 탓으로 돌린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화목을 가져오죠, 미움이 없어지죠, 증오가 없어지죠. 그렇게 하니까 사형 사제들이 모두 화목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한 형제들 간에, 부모자식지간에도 화목을 가져온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향 아닌 계향을 지킨다면, 돌아가는 용도에 따라서 일체 모든 것을 '너만이,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에다가 놓았을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향이니, 이것은 물질세계와 내면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기에 물질세계고 나를 다스리는 자가 있기에 바로 내면세계다 이겁니다. 내면세계와 물질세계가 둘이 아닌 까닭에 내가 있으니까 내 내면에 선을 세워 놓고, 즉 주인공을 세워 놓으란 말입니다. 마음을 내는 것과 몸이 움죽거리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내게 하는 놈, 이 삼위일체가 같이 합동으로 돼서 찰나에 돌아가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가 자기 껍데기다 아니다 할 것도 없이 주인공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너만이 이끌어 갈 수가 있고, 너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병고도 네 몸이니까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는 것도 너뿐이다!' 어떠한 상대가 나를 때리고 찢고 찍고 정신을 뺏어 먹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둘 아닌 까닭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거는 너밖에 없다!' 하고 놔 버린다면, 바로 그것이 정향이자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패기를 잃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그렇게 귀하고도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정향' 할 때에 우리가 문을 찾아서 다니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광대합니다.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고 우주 밖에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건 문을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고, 벽도 봇장도 우주도 대기권도, 땅속도 물속도 물론 여지없이 통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선을 세워 놓고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할 때 그 말이 한데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바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투는 까닭입니다.

또 '혜향'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둘로 보지 않는, 바로 지켜보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밝게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혜향입니다. 둘로 보지 않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실험하는 마음, 체험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혜향입니다. 매사 일체 만법을 움죽거리는 것을 어떤 놈이 하고 있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말입니다. 잘한다는 데서 끄달리고 못한다는 데서 끄달리고 회개다 해서 끄달리고, 이거는 뭐 끄달리는 데 아주 난장판이 돼 있어요.

'혜향' 했으니 다음에 해탈향이 있죠. 만물만생의 무명 굴레에서 아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벗어나서 밝은 마음으로 여여하게 다스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해탈향입니다. 외부의 모든 중생들이나 내면의 자생중생들이 바로 무명에서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굴레에서 벗어나서 밝게 다스리고 여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향에서부터 잘해 나가신다면 계향은 정향에 하나가 되고, 혜향이 잘되면 정향에 또 하나가 되고, 정향과 해탈향, 해탈지견향도 모두가, 다섯 가지가 모두 하나의 정향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해탈지견향, 그것은 우주 일체 만물만생을 다 밝게 보고 보살피며 바로 걸림 없이 여여하고 구족하게 다스리면서, 밝게 조건 없는 자비로써 많은 중생들을, 모든 일체 만물만생들을 응신으로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죽은 중생이나 산 중생이나, 보이지 않는 중생이나 보이는 중생이나, 말이 있는 중생이나 말이 없는 중생이나 모든 중생들에게 조건 없는 자비로써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투는 까닭입니다. 천백억이다 함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을 잘 받아들이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내 몸 안의 자생중생들을 다스려서 한마음에 나라는 것이 없다면…, 즉 말하자면 여러분의 자생중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생명체들이 그렇게 많은데, 의식이 그렇게 많은데 한 부분 부분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작용을 하는데, 어떤 거 작용을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몸뚱이 하나가 여러분인 줄 알지만 여러분 몸뚱이 속에 정말 천백억이라는, 아니 천차만별의 생명과 모습과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의식 하나하나가 바로 나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몸 안에 들어 있는 거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한테서 자기가,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는 거와 같습니다.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죠.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는 것뿐이죠. 그래서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업식이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돌려 놓는다면, 앞서 입력됐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 것을 나오는 데다 되입력을 한다면 과거에 입력됐던 게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스려서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되돌려 놓으란 말입니다. 모든 걸 그놈이 하는 거니까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죽든 살든 그놈이 하는 겁니다. 죽어서 다시 형성을 시켜도 그놈이 하는 거, 또 죽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껍데길 벗겨 버리는 것도 그놈이 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마땅히 '내가 내가 아니구나! 나와 더불어 같이 있는 부처는 중생 속에 들어 있는 것이요, 중생 속에는 부처가 들어 있다. 모두가, 시발점도 종점도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셔야죠. 타는 것도 내리는 것도, 시발점도 종점도 따로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 정신계와 물질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은 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했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 모두가 동심으로서 모든 걸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동심으로서 동참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이 바로 자성부처를 상봉해서 잘 안다면 이 세상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근본이 내 마음의 근본이요, 이 세상 사바세계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가설이 됐다 이 소립니다. 가설이 돼서 돌아가니까 남이 모른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우주간 법계에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일체제불의 마음이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요만큼이나 에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만큼이나 어찌 거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끼면 빼고 뺐으면 끼고 이러지 마시고 좀 지혜롭게 물리가 터지면 정말로 남을 위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지혜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러한 것도 지혜롭게 써야 된다 이겁니다. 싸움을 붙이거나 남을 나쁘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람 사는 바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해 나가는 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여보, 당신 시장하지 않았소?"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 주고, 그리고 주인공에다가 '저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닌데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맡긴다면 화목을 가져오고 그 마음도 밝아져서 둘이 아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아주 자비로써 가정이 화목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중 박수)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데, 지금은 부부가 모두 나가서 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여러 군데를 다녀 봤지만 부부가 모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집을 비워 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와서 자기네들이 꺼내 먹고 자기네들이 그냥 놀러 나가고 자기네들이 또 들어와서 엉망으로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쁜 친구도 사귀게 되고 또는 자기대로 나가서 나쁜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 줬죠. 나가더라도 좀 큼직하게 글씨를 써서 냉장고 앞에 붙여 놓아라. 뭐라고 쓰느냐 하면 "아무개 아무개야, 너희들 사랑해! 여기다 너희들 좋아하는 것 해서 넣어 놓았으니까 꺼내 먹어.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 줘. 참으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같이 살려니까 어쩔 수 없잖아. 너희들도 협조해 줘." 하고 써서 뽀뽀도 거기다 좀 해서 냉장고에다 붙여 놓으면 애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말입니다, 마음에서 감동을 해서 절대로 나가서 나쁜 짓을 안 하게 됩니다. 나쁜 아이들하고 끄달리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들하고 화목해집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겉으로만, 돈만 주고 음식만 잘해 주면 그 모두가 사랑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란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사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모두가 화목해지고 엄마 아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면서, 엄마가 들어오거나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엄마!" 하고 부르고 야단법석이 나고 아주 착실해지죠. 그렇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한 분들은 다들 되찾았어요. 갈라섰던 자손들하고도, 부모 자식 사이에 갈라지고 부부 사이에 갈라졌던 분들이 다 화목하게 사랑을 하게 됐더라 이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미묘한지 여러분이 실험해 보시면 바로 체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속속들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까닭에 불교라는 자체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 호에 이어서)

먼저 나부터 알아야하고, 나부터 믿어야 하고,

나부터 발견해서 즉, 이전 부(父)와 현재 자(子)가 둘 아니게 상봉을 해야

※위 법문은 1993년 7월 24일 마산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 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82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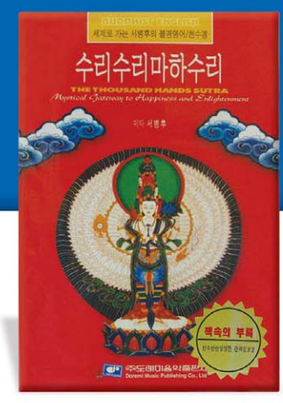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재즈보컬리스트 웅산

'빗물에 고여 더해만 가는 외로움 비워야 하나봐 한낮과 밤처럼 익숙할 때까지.
파란새벽을 나비처럼 날아올라 새 하얀 달빛 아래서 긴 한숨은 잠든다.'

"많은 불자님들과 만날 준비 되어있어요"



재즈를 '허공으로 사라지는 음악'이라 했던가.
지그시 눈을 감고 리듬에 몸을 맡긴다.
공연장을 압도한 호흡소리는 심장의 비트에 메아리친다.
재즈 팬이 선정한 2008년 한국 최고의 보컬 부분 수상자로 선정된 웅산(雄山 · 36)의 목소리다.
감미로운 중저음의 블루스 톤으로 전하는 안개 빛 향기는 즉흥적인 재즈의 선율로
자아와 대화하며 무상(無常)의 공(空)을 전한다.
잿빛 도시의 우울함과 마주한 웅산의 매력을 6월 28일 '리더스폴(Readers' Poll) 콘서트' 현장에서 함께했다.

향기 도반의

웅산. 1996년 1월 홍대 클럽 '써티(thirty)'에서 프로무대에 데뷔했다.

재즈클럽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던 시절, 성남에 위치한 클럽 '음악마당'에 공연차 온 신관웅 · 류복성 선생과의 만남이 재즈 인생의 서막이다. 이후 일본 재즈 팀(오모리 밴드)과 투어,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재즈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차근차근 내공을 다졌다. 그렇게 재즈를 시작한지 8년 만에 첫 데뷔앨범 'Love Letters'를 내놓는다. 현재 케이블방송 '리얼스토리 묘(猫)' 진행자로 활동 중인 웅산은 일본에서 활동 중인 '웅산밴드' 신곡과 한국 4집 앨범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법명 웅산(雄山)처럼 쉼 없이 정진하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



웅산의 첫 인상은 강했다. 짙은 눈 화장은 '친절한 웅산 씨'라는 애칭처럼 세상에 대한 강한 홀로서기의 주문 같았다. 그러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너머의 진심은 진중하면서도 다정다감했다. 눈은 에너지의 저장고와 같다고 말하는 웅산의 눈망울은 선했고 인터뷰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웅산은 고등학교 시절을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보냈다. 20년 전 일이다. 고요한 절에 은은하게 울리는 풍경소리가 좋았다. 그러나 고요함과 한적함 가운데 평온했던 그 마음을 세상으로 다시 불러낸 것 또한 마음속으로부터 끝없이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울림이었다. 하다못해 '관세음보살'을 정근하는 예불시간에도 음을 실어 노래했다. 도반들은 그의 소리를 즐거워했다. 음악에 대한 열망이 맹목적이었던 만큼 출가에 대한 미련을 접는 결단도 빨랐다.

"일본의 재즈문화는 생활 속에 보편화됐지요. 시골 휴게소에서도 재즈가 흘러나와요. 한국 음악인으로서 바람이랄까, 재즈의 교감차원인데요. 재즈 불모지인 한국에서 재즈의 대중화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애환을 털어 놓으면서도 활짝 웃는 웅산의 미소 속에는 13년째 접어든 재즈 인생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다. "오늘 무대에 대한 감회가 남다릅니다. 재즈 마니아가 뽑아준 최고의 음악인으로 선정된 것도 그렇고 이번 무대에서 처음 만나는 연주자도 있거든요. 좋은 연주자와 함께 공연한다는 것은 뭐랄까 잘생긴 남자와 데이트 하는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녀의 영웅은 '빌리 할러데이(Billie Holiday)'다. 불법을 만난 기쁨만큼 생애의 기쁨으로 꼽을 수 있는 만남이란다. 2집 '블루스' 중 '비새(雨鳥)'는 불교색채가 강한 곡이다. '지친 어깨 쓰다듬고 날갯짓하며 다정히 내 님이 부르면 이 눈물 훔치며 날아가겠노라'는 애잔함이 그가 지닌 근원적 공허함과 닮았다. 20년 전 불교 안에서 평화를 노래하던 자기연민이 세상을 향한 자비행으로 반조(返照)된다.

웅산의 고민과 애정의 대상은 오직 음악뿐이다. 가끔 푸념처럼 '애인구함'을 외치지만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제야 노래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재즈를 기본으로 많은 장르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산사음악회에서 많은 불자님들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산골 작은 음악회도 대환영"이란다.

웅산에게 음악은 수행과 같다. '예스터데이(Yesterday)'란 곡도 한 번의 영감으로 써내려간 곡이다. 꿈을 꿨고 아침에 일어나 그 꿈을 잊지 못해 그 마음 그대로 음악으로 옮겨 완성했다. "정말 잘 해야겠다고 욕심냈을 때는 단 한 번도 좋은 음악이 나온 적 없었어요." 매사 겸손한 그도 꿈에 대해서만은 욕심이 많다. "거북이처럼 느리게 꾸준히 하다보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 꿈에는 어울리지 않음을 알았어요. 제 음악, 제 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세상을 향해 서원한다. "음악을 하면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불교는 해탈을 통한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지요. 인간이기에 원했던 자유, 재즈 안에서 무한히 누리고 있습니다."

웅산이 지난 시절 불교를 공부했고 지금 현재 음악을 하는 것도 모두 같은 하나의 길이었다. 분명한 것은 웅산은 쉬지 않고 꾸준히 정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웅산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다. 꿈꾸는 웅산, 그녀는 아름다웠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사진제공=이형우 · 2008 리더스폴세션

tip) '2008리더스폴어워드'는…

재즈 팬 3000여 명이 참여해 무대에 오를 스타플레이어를 직접 선정하는 것으로 현재 대중 인지도를 극명히 반영한다. LIG아트홀(대표이사 구자준)과 월간 '재즈피플(편집장 김광현)'이 주최하고 음악 포털사이트 '벅스뮤직'이 공동 참여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 상 불 소 영
장 량 장 가
의 장 천
식 식 사 용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개신교 강요’ 초등교사 직위해제

수업중 “하나님 믿으면 천당, 불교 믿으면 지옥”

경북 경주초등학교(교장 최창윤)에서 학부모들이 특정 교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자녀의 등교를 막고 ‘촛불집회’를 여는 일이 벌어졌다. 학부모의 자녀 등교 거부로 전교생 1418명 중 182명만 등교했다. 학부모대책위원회는 4학년 담임 김모(59·여) 교사가 스스로 퇴임하거나 출근 정지 조취를 취해줄 것을 경주 교육청에 진정서로 제출했다. 이에 경주교육청은 7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문을 일으킨 교사에 대해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습권 침해와 종교교육, 강압적 생활지도 등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했으며 특정 장소를 근무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부모가 퇴진을 요구한 문제의 교사는 4학년 담임인 김모 교사. 학부모들은 진정서에서 “김모 교사는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 지옥 불에 떨어진다’고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종교관을 주입했다”며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모 교사가 일요일 아침 아이들 집으로 찾아가거나 교회에 가자는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만난 후 경주 시내의 교회들을 차례로 돌았고, 집안행사로 교회에 빠진 학생은 ‘일요일엔 어떤 약속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혼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743명은 경주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전출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6월 27일 교육장 면담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수업거부, 촛불집회라는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학부모들은 “김모 교사가 상담을 하면서 ‘아이가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지도가 필요하니 교회 안에서 길러야 하며 부모님도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게까지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동료 교사와 학부모, 지역 상인들을 고소·고발한 건수가 600건이나 되는 등 교사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모 교사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교회에 가자고 권유한 적은 있지만 강제로 데려간 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조용히 수업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이야기는 모두 허위”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것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학교 측은 특정 종교를 강요한 것과 수업거부 사태를 일으킨 데 책임을 물어 김모 교사에게 경고장을 보낸 상태. 최창윤 교장은 “송구스럽지만 학부모 연대의 등교거부에 따라 아동들의 학습권 침해가 있으니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아동들이 조속히 등교해 학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밝혔다.



7월 1일 경주교육청을 찾은 학부모들(위), 학부모들의 자녀 등교 거부로 텅빈 교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부산지부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 해동고 강석표 교장은 “해동고는 불교 종립학교이지만 기독교 학생들이 예배를 보게 배려해준다. 부활절에는 선생님들에게 계란을 건네줄 정도로 학생들의 종교를 존중해주는 분위기”라며 이번 사태를 안타까워했다.

한편 경주교육청은 진상조사를 통해 진정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린 뒤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hdbp@hanmail.net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찬불가 합창단 ‘수다원’

생명의 소리 행복의 소리

음성공양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실천하고 있는 ‘수다원’(단장 이옥희) 찬불가 합창단을 찾아가는 길은 부산의 대표적 수산시장 자갈치를 품에 안은 듯한 절 대법사(주지 진명)였다.

수다원 찬불가 합창단은 부처님을 공양하는데 정성을 다해 여러 가지 으뜸가는 공양으로 항상 공양해야한다는 보현행원품의 한 구절처럼 부처님을 찬양하고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마음을 연습하는 수행단체이다.

이옥희 단장(법명 묘음성)은 “종을 치면 맑은 소리가 울리는 것은 종의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이며 비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종을 쳐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비우면 생명의 소리, 행복의 소리를 낼 수 있다”며 “마음이 욕심이나 헛된 망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부처님 마음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신심으로 모였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소속 사찰은 다르지만 부처님께 올리는 음성공양이 좋아 인연있는 불자 몇 명이 한마음으로 모여 시작해 지금은 4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단원들의 나이는 다양하지만 음성공양을 올릴 때의 마음은 나이를 초월해 똑같다.

‘수다원’ 찬불합창단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이옥희 단장의 노력이 숨어있다. 이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 및 노래와 반주지도 등 1인3역을 소화하고 있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1988년 부산 옥련선원에서 합창단 반주를 시작으로 찬불가와 인연을 맺은 이 단장은 지금도 합창단이 없는 사찰의 부처님 점안식이나 49재 등의 행사에 언제든지 동참하여 음성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의 대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평소 이 단장의 보살행을 지켜본 진명 스님(대법사주지)의 배려와 격려로 지금은 서구 남부민동에 위치한 대법사에서 매주 월요일 2시 찬불가 연습을 하고 있다.

또한 ‘청목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회원들이 정성으로 모은 기금으로 음성공양과 더불어 불우·결식아동 돕기, 고아원·양로원 봉사 등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취재를 마치고 대법사 법당 문을 여는 순간 바다 내음이 코끝을 자극했다. 음성공양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수다원’ 합창단의 목소리가 부산 앞바다의 파도소리와 만나 멀리 펴져갔다.



소속 사찰 다른 40명 회원 ‘하모니’
정성으로 모은 기금으로 자비행

오세룡 부산지사장

울산불교방송 6월 30일 첫 전파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전하는 방송 될 것’

울산지역 불자들을 위한 부처님 법음이 6월 30일 첫 전파를 탔다.

울산불교방송(사장 전영도)은 30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개국법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과 울산불교방송 운영위원장인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울산불교방송 전영도 초대사장, 박맹우 울산시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울산불교방송 운영위원장을 맡은 정우 스님은 환영사에서 “울산 지역 불자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개국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한 만큼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을 전하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은 “불자만을 위한 방송이 아닌 모든 울산, 양산 지역 청취자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말씀이 연꽃처럼 피어나길 바란다”고 치사했다.

울산불교방송은 울산과 양산, 울주 지역을 가청권으로 FM105.3㎒에서 새벽 5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하루 21시간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게 된다.

박지원 기자

부산 사찰들 우란분절 행사 다채로워

백중기도 ‘조상 천도하는 기복 불교’ 탈피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 우란분절(백중)이 그동안 고인이 된 부모와 조상을 위해 재를 올리던 백중 기도의 개념을 탈피. 색다른 불교문화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백중기도에는 <지장경>이나 <부모은중경>을 외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색다른 경전을 독송하는 곳이 있다. 부산 불암사(주지 미공, 051-333-0013)에서는 <자비도량참법>으로 백중기도를 봉행한다. 백중기도 기간도 49일에서 37일이나 줄어든 12일이다. <자비도량참법>을 읽으면 죄는 참회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전해진다. 원 제목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보물 제875호로 총 10권으로 구성된 고려시대 불교경전이다.

동명불원(주지 정산, 051-624-7667)은 백중기도 회향일인 8월 15일 인근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마련한다. 49일간의 백중기도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였다면 경로잔치는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위한 행사다. 대중공양과 함께 김해 교방전통예술단의 공연이 마련된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강선태, 051-711-0700)도 백중기도 회향법회에 맞춰 이색 행사를 준비한다. 백중기도와 같이 조상을 천도하고 원한 맺힌 영가를 천도하는 불교 전통의식으로 성문 스님(부산 선광사 주지)이 ‘바라춤과 나비춤’을 공연한다.

박지원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광고·구독
문의 (051)632-0064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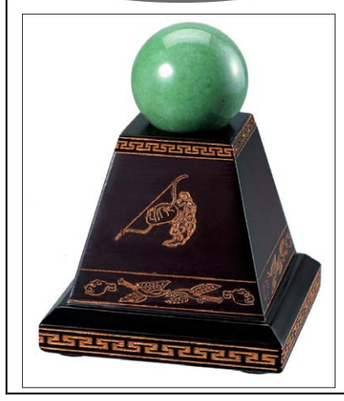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학대 없는 행복한 노후 만들어요"

고창군노인복지회관 노인학대 예방 행사 열어

노인학대 등 패륜적인 사건들이 뉴스를 장식하는 요즘, 지역사회로는 드물게 노인학대 예방캠페인을 실시한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6월 27일 고창군청 앞에서 '학대 없는 사회, 노인과 함께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열었다.

'NO 학대, Yes 사랑'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캠페인은 노인학대예방을 다짐하는 효 서약서 작성,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효 메세지 쓰기, 노인학대예방 사진전 등으로 진행됐다.

7월 4일 고창군노인복지회관 대강당에서는 '행복한 노후 만들기 프로젝트 1' 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을 위한 강좌와 문화행사도 진행됐다. 오전 건강강좌 등을 비롯해 오후에는 사물놀이, 판소리 등이 펼쳐졌다.

무공 스님(고창군노인복지회관 관장)은 "자식 위해 평생을 바친 어르신들이 자신의 노후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노인학대를 미연에 방지해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노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열다섯 선재, 남도사찰에 빠지다"

'남도의 선지식 찾아서' 템플스테이 현장



백양사 쌍계루에서 성오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명 선재들이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를 찾아 특별한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다.

호남불교문화원(원장 이준엽)이 '남도의 선지식을 찾아서'를 주제로 연 템플스테이는 6월 25일부터 4박5일간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남지역 조계종 교구본사인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를 찾아 각 사찰 선지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호남불교문화원만의 각별한 사찰체험을 했다.

행사를 기획한 이준엽 원장은 "백양사 주지 성오스님, 화엄사 선등선원장 현산 스님, 송광사 원로의원 법흥 스님,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을 만나 함께 다담을 나눈 것에 큰 호응이 있었다. 선지식과 차담시간을 가진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스님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참가자 권태성씨는 "바쁜 현대생활을 잠시 떠나 즐기는 달콤한 휴식과 대화는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기운을 충만 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구례 화엄사 산내 암자를 둘러보며 스님에게 직접 들은 적멸보궁의 역사가 생생했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편 패키지 형태의 여정을 도입한 이번 행사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새로운 장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련 보러 오세요"

김제 청운사 백련축제 8월 17일까지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 하소백련축제가 13만㎡ 백련지 일원에서 7월 5일 시작됐다. 하소백련(蝦沼白蓮)은 새우가 알을 품고 있는 명당터에 위치해 이름한 청운사 백련을 일컫는다.

올해 7회를 맞은 하소백련축제는 백련처럼 세상을 하얗게 정화하고 자신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얼굴'이라는 주제로 8월 17일까지 열린다.

7월 5일 올해 첫 수확한 백련차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예경, 헌다로 시작된 백련축제는 혜안 스님의 범패와 정읍시립국악단원의 해금 연주, 춤과 먹물재 풍물패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함께 한 백련음악회로 이어졌다.

축제기간 주말마다 최병두의 '무명식의 강성음악', 양택동의 필묵 행위예술, 품바공연, 춤 퍼포먼스 등이 펼쳐지고, 도원 스님의 부처님 십대제자전, 명선 명시전, 길 사진전, 김영수 불교조각전, 백련 한지 회화전, 백련 천연염색전 등이 상시 전시된다.

자반과 부침, 죽, 칼국수, 순대, 무침 등 백련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 시식회와 흙 연꽃 만들기, 부채에 불화 단청그리기, 백련 천연염색 체험, 백련차 시음 등 체험프로그램도 백련축제의 자랑이다.

도원 스님은 "8년 전 주변 농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 차를 만들 목적으로 연꽃을 심은 것이 하소 백련축제의 계기가 됐다. 하얀 연꽃의 은은한 향내가 도심의 바쁜 일상을 벗어 던지고 자연과 여유를 즐기려는 분들에게 잔잔한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 청운사 백련지 모습. 7월 5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7회 하소백련축제가 열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bud1080@naver.com

광주 무각사 청년회 창립

7월 셋째주 창립법회 봉행

청년 불자가 부족하다. 대학생 법회 소멸과 함께 청년회 위기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생각하면 큰 위기라는 호소가 곳곳에서 들린다. 호남불교 역시 어린이법회부터, 청소년법회, 대학생, 청년법회까지 법회운영이 어려울 정도다.

이런 가운데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가 청년회 창립을 위해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무각사 청년회 임시회장을 맡은 이충호 법우는 "7월 셋째 주 창립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불교에 관심있는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62)383-0107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은 숲 생태계 지키는 파수꾼

광주불교환경연대 생태 프로그램 마련

광주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가 사찰이 숲 생태계를 지키는 파수꾼임을 일깨우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생태,환경 행사를 만들어 눈길을 끈다.

7월 20일 순천 선암사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사찰생태기행'을 갖는 것으로 시작되는 행사는 가족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사찰과 사찰주변 숲 생태를 체험하고 명상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8월 22일부터는 2박3일간 쌍봉사에서 제1회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도 연다.

광주불교환경연대 임상숙 사무국장은 "어린이생태학교는 도시 어린이들에게 자연 체험과 명상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넓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062)223-36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독신청 기사제보 |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 북 지 사 (063)910-5199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불교전문기획사를 운영하는 이진중 대표

"가정과 절 가까워야 해"



<구사론(俱舍論)>이 말하는 세계는 거대한 원통 모양의 풍륜(風輪)·수륜(水輪)·금륜(金輪)으로 떠받쳐져 있고, 금륜 위의 대양에는 다시 9산(九山)과 8해(八海)가 있다. 대양의 중심부에 수미산이 16만 유순(1유순은 약 7㎞)의 높이로 솟아 그중 8만 유순은 물속에 잠겨 있다. 이곳 정상에는 제석천의 궁전이 있고 중턱에는 사천왕의 거처가 있다.

옛부터 티베트와 인도 성인들은 카일라스를 수미산이라고 일컬었다.

광주에서 수미산과 같은 큰 원력으로 부처님 일을 하는 불교전문기획사 카일라스 이진중 대표를 만났다.

최근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풍경소리음악회, 백양사 야단법석 등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 이진중 대표는 "카일라스에서는 사찰에서 행해지는 행사(봉축행사, 산사음악회, 해외성지순례 등)를 스님들과 일반 불자들을 대신해 기획에서 진행까지 총괄 대행하는 곳"이라 설명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불교계의 열악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불교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기도 하다. 실제 사찰에서 많은 행사와 법회를 하며 체계적인 진행과 자료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터라 그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평소 낙천적인 성격인지 주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이진중 대표는 "타종교에 비해 세가 약하다고 하지만 주변 환경을 탓하기 전에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알차고 즐거운 불교신행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사회에서 사찰의 변화는 시급하다. 20~30대 문화적 감성세대는 법회와 기도위주의 사찰환경은 접근하기 쉽지 않다. 각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급선무다.

"어린이와 청소년법회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대표는 가정과 절을 가깝게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진중 대표는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먼저 가까운 이웃이 되고 거리낌 없이 절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진중 대표는 이미 대불련 활동과 원각사 종무소 사무국장,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여 불교에 대한 오랜 활동인연을 갖고 있다. 또한 현재 지역 젊은 재가불자들로 구성된 육화포럼에서 활동하며, 지역 불교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불교는 21세기형 종교"라고 전제한 이 대표는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이것을 불자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는냐에 따라 불교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많은 부문의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062) 384-3009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최근 광주지역서 왕성한 활동 보여

각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시급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교 육 : 매주 목요일반, 토요일반 • 교육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교육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 기 사 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앞 ☎ 02)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안거중인 수좌들이 길을 나선 까닭은?

수덕사 스님들 '백제 미소길 걷기' 행사…"가야산 관통도로 중단" 촉구

여름 안거 중인 수좌스님들이 선방을 나섰다. 6월 1일 수덕사 스님들은 반결제를 맞아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옹산)가 주최한 충남 예산 가야산 관통도로 건설 중단과 '백제의 미소길' 조성 촉구를 위한 걷기 대회에 참석했다. '백제의 미소길'이란 충청남도가 가야산 관통도로를 내려하자 가야산연대가 사람이 걷는 길로 만들자고 제안하며 붙인 이름이다.

올해로 2회째 맞이하는 '백제의 미소길걷기' 행사에는 설정 스님(수덕사 수좌), 옹산 스님(수덕사 주지), 우송 스님(수덕사 유나), 정범 스님(가야산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수덕사 조인선원과 정혜사 능인선원 등 조계종 제7교구 본·말사에서 수행정진 중인 스님 300여 명과 재가불자 1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은 원래 반결제일로 결제에 들어간 스님들이 지나간 수행을 점검하고 앞으로 수행에 정진하기 위한 시간. 가벼운 몸 풀기 산행과 삭발, 목욕 등을 하는 날이다. 그런데 왜 스님들은 '백제의 미소길' 산행에 올랐을까? 이유는 지난 1년여 간 가야산 개발 저지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차량 통행용 순환도로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선 것.

충남도는 가야산에서 서산 쪽에 위치한 '마애삼존불상'과 '보원사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산 넘어 반대편에 있는 예산지역의 문화재와 관광지 등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해 가야산 관통도로를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보은사지 밑에서 덕산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나있다. 또한 서산지역으로 뻗어있는 대부분의 산은 산림청 소유로 차량 이동을 차단한 채 숲속의학교와 삼림욕장 등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충남도의 계획대로 '관통도로'가 뚫릴 경우 '환경 박물관'인 가야산은 심각한 훼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가야산이 환경박물관이라는 것은 충남도가 환경보전 종합대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01년 가야산 일대를 조사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너구리, 노루, 고슴도치, 족제비, 두더지, 박쥐, 부엉이, 올빼미, 꾀꼬리, 멧비둘기, 새매, 소쩍새, 딱새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나무, 굴참나무, 으름넝쿨, 경경류 등 100여종의 생물이 자생하고 딱정벌레목, 나비목, 메뚜기목, 노린재목, 사마귀목 등과 같은 곤충이 서식하는 등 전체 식생상태가 계룡산국립공원의 2.5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차량 통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생태 환경은 어떻게 될까.


'백제의 미소길 걷기'에 나선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왼쪽) 등 300여명 스님들.

덕숭총림 사부대중의 이번 산행은 가야사지에서 출발해 보원사지까지 '백제의 미소길' 약 7km 구간을 걸으며 가야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날 설정 스님은 산행에 참가한 대중에게 "그 옛날 여기는 민가 하나 지나면 절이 있고, 절 하나 지나면 민가가 있을 만큼 절이 많고 백제시대 때 5000여 스님들이 살았던 곳"이라며 "야외에 자리를 마련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뜻을 가진 '야단법석'이라는 말도 이곳에서 나온 말이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이곳 가야산에는 많은 자연 생태계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니 만큼 자연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이곳에 있는 문화유산 또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옹산 스님은 "지금 만들려는 도로가 군사도로도 아니고 산업도로도 아닌 관광도로인 만큼 이 아름다운 가야산을 위해 담당 관료들이 하루빨리 생각을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범 스님은 걷기 행사에 앞서 '가야산 관통도로 건설 중단과 백제 미소길 조성 촉구를 위한 다짐대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범 스님은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옛 절터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산 자체가 문화 유적지인 국내 유일한 산이 가야산"이라며 "가야산을 통째로 생태역사 박물관으로 지정하고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관통도로 대신 사람이 다닐 길을 만들지 않으면 '관통도로저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선 기자

우리 지역 부루나존자 | 청주 용화사 각연 스님

"사찰 모임 불씨 되살려요"

"새롭게 바뀌겠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불자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사찰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주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 스님은 현재 승가대학 총무국장 소임을 겸하며 용화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물론 스님 혼자 이 사찰을 이끌어 간다는 말은 아니다. 스님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종무행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각연 스님은 용화사 주지로 부임해 사찰운영을 살펴본 결과 "전통사찰이면서 시내 중심에 불교교리를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법회를 진행한다는 것.

이 뿐만 아니라 6월 14일 보살위주의 사찰 운영 때문에 절에 오기 힘들어 하는 거사를 위해 사찰 내에 '거사림회'도 만들었다. 이는 거사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해 모임과 사찰과 불교에 애착을 갖게 하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용화사 신행모임들이 이렇게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만 대장경독송회, 용화사 체육대회



불교대학총동문회·신도회 등 활성화 노력

"신행단체 특성에 맞는 법회·활동 개발할 것"

위치한 포교당이기도 해 많은 불자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럴싸한 '외형'적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외형만 갖춰져 있을 뿐 사찰 내부의 결집력이 약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숨이 끊어져가는 사찰 내 모임들을 살려내는 것.

이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첫 번째가 바로 기존에 결성돼 있는, 그러나 이름뿐인 그 신행단체들을 살려낸 일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불교대학총동문회와 신도회의 활성화다.

불교대학총동문회의 경우 비교적 젊은 층으로서 불교교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불자들이 모이기에 이들을 따로 모아 경전을 갖고 법회를 본다. 또 노 보살 위주의 신도회의 경우는 전통방식의 법회를 본다. 전통방식이란 같은 전체 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총동문회 회원이 신도회 회원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류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즉, 이원화되면서도 하나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조직을 구성한 것.

각연 스님은 "현재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아이들이 없어 운영하던 유치원이 현재 문을 닫아 적은 인원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법회만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유치원과 보육원을 다시 개원하려고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각연 스님은 "용화사 신행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사회·문화 등의 문제에 있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부여 정림사지 정비사업 사전조사로

백제시대 가람구조 '윤곽'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직무대리 김낙중, 이하 연구소)는 2008년 3월 17일부터 실시한 '부여 정림사지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조사(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가람구조의 전모를 밝히게 됐다고 6월 27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조사에서 와적(瓦積)기단의 강당지와 회랑지를 새롭게 확인해 강당지 좌우에 별도 건물지가 강당지와 나란히 위치하고, 별도 건물지 남쪽으로 와적기단의 회랑이 배치되는 가람구조와 북·동 회랑지 적심석군이 고려시대 조성된 것을 알아냈다.

부여 정림사지(사적 제301호)는 1942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의해 조사가 시작된 이래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충남대학교박물관이 본격적인 조사를 펼쳤다. 조사에서 연지·중문·회랑·강당지, 우물, 와요지 등이 확인돼 가람구조의 전체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백제시대와 고려시대 유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시기별 가람구조의 구분이 모호했다.

연구소는 백제시대와 고려시대 가람구조 및 축조기법 규명을 위해 발굴 중심의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대전시청불자회 '孝잔치' 봉행

35개 동아리연합 공동 주관

대전광역시청직장불자회(회장 이진옥)가 대전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의 70~80세 어르신 300분을 모시고 '효(孝) 잔치'를 봉행했다. 6월 28일 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린 효 잔치는 대전시청불자회와 대전시청의 35개 동아리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효 잔치는 위문 공연과 점심 공양으로 마련됐다. 위문 공연에서는 '노래 부르는 스님' 해운 스님(삼은사 주지)의 사회로 대전시청 직원들의 쌍절곤 시범, 노래, 색소폰 연주 등을 선보였다. 이에 보답하듯 어르신들도 하모니카 연주와 합창 무대를 만들어 봉사자와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훈훈한 공경의 무대가 연출됐다.

이날 공연장에 참석한 박성효 대전시장은 "노인이란 말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을 뜻한다"며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갖고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대전시청불자회 회원 전형진씨는 "3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 봉사를 하며 매 분기 1회씩 위문공연을 해 왔지만 오늘처럼 시청의 35개의 동아리 회원들과 공연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불자들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뜻 깊은 봉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문 공연 뒤 이어진 점심 공양 또한 대전시청불자회를 비롯한 시청 35개 동아리 회원들이 보시금을 걷어 마련했다. 참석하신 모든 어르신들께 떡과 음료를 간식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손효선 기자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봉행

한국 최대 전법 포교도량인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대규모 수계법회가 열렸다.

논산 호국연무사(주지법사 김종봉)는 6월 28일 환성 스님(영평사 주지)을 수계사로 훈련병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충청지역 군불교후원회인 화엄회와 동학사승가대학, 불교어머니회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계사로 나선 환성 스님은 "5계를 받은 오늘, 이렇게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탄생해 너무 기쁘다"며 "5계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니 잘 지키다 보면 그 삶이 행복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계식이 끝난 후에는 훈련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신인가수 바이올렛의 무대와 함께 벨리댄스, 스포츠댄스 공연 등이 마련됐다. 손효선 기자

봉행

(사)대한불교대승종 제10대. 제11대
총무원장 이·취임 대법회

귀의삼보하옵니다.
불타의 자비광명이 법계에 두루 하시기를 삼보전에 기원드립니다.
금번 대한불교대승종 **제11대 총무원장으로 추대받은 법진 도일 큰스님**과 아울러 **제10대 총무원장 법천 청화 큰스님의 이·취임**을 봉행코저 하오니 제반불사에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꼭 왕림하시어 뜻 깊은 법석의 자리가 되도록 빛내주시길 앙망합니다.

◆일 시 : 불기 2552년(2008) 7월 15일 (화요일) 오후 5시
◆장 소 : 서울 중구 장충동 소피텔앰베서더 호텔 2층 대연회장 / 02)2275-1101
◆연락처 : 02)951-1074 / 010-9903-1257

사단법인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이·취임 법회
봉행위원장 법암 혜심
집행위원장 법장 원해 합장



실크로드에서 찾은 부처

행복은 가까운 곳에

박재동 화백의 '실크로드 스케치 여행'

강 사 : 박재동(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화가)
주 최 : 참여불교재가연대
일 시 : 2008년 7월 1일 오후 7시
장 소 : 만해NGO센터 대교육장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

법정 스님 〈홀로 사는 즐거움〉中

90년대 '풍자'와 '파격'으로 정치의 감춰진 진실을 들춰내 대중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던 한겨레 그림판의 박재동(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화백.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로 구법의 길을 떠난 현장 법사처럼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을 찾아 실크로드 기행을 떠났던 그를 만났다.
그는 실크로드를 다녀온 후 '행복과 아름다움은 이런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렸다. 실크로드 기행을 통해 세상 보는 눈이 바뀐 것이다. 실크로드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또 다른 행복과 아름다움을 느낀 그는 '우리 문화가 최고'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우리 문화'라는 시각으로 바뀌었다고 밝힌다.
돈황 석굴의 불상 • 실크로드의 악공과 무희 • 천진난만한 아이들 • 절벽의 토굴집 • 사막에서의 달빛 등 34일 동안 실크로드에서의 경험은 그의 손끝을 거쳐 스케치로 꽃피운다. 7월 1일 열린 '박재동의 실크로드 스케치 기행' 강연에서 박재동 화백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만났다.

행복과 아름다움 담아온 법의 길 따라
34일 실크로드 여행으로 세상 보는 눈 바뀌어

 # 실크로드 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실크로드. 즉, 비단길은 이름과 다르게 위험한 길입니다. 높은 산맥과 사막으로 새가 날아 넘어가지 못하고 해골들이 길을 알려준다는 곳이죠. 이런 위험한 길을 따라 동서 문물이 교류되고 더불어 종교 · 예술 · 철학도 전파됐습니다. 인도불교가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전해진 후 이런 불법을 전하겠다는 열의는 당나라 때 현장 법사의 인도구법기로 이어지죠. 이는 신라 통일전쟁 중에 위험한 당 유학을 떠났던 의상 대사에게까지 전승됩니다. 저의 실크로드 기행은 이러한 구법열의를 이어받아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라는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현대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그 무엇이 저 먼 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것이죠.

 # 장안의 2월은 향잔으로 가득하고, 육진의 도로는 차마가 덜커덩거리며 다닌다

이번 기행의 시작인 중국에서의 첫 느낌은 먼지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먼지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기행을 하면서 느낀 느낌은 먼지 그 자체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차이로 중국은 절벽이 있으면 절벽을 파서 집을 짓습니다. 이것이 돈황 석굴을 낳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북경을 출발하여 서안을 지나 난주로 가면서 화려한 중원문화와 다른 소박한 변방문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안 이화원의 아름다운 연못과 대비해 난주로 향하며 본 맑은 하늘아래 붉은 대지는 마치 초벌구이한 듯 보여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붉은대지를 지나 돈황에 도착했습니다. 돈황은 절의 계곡입니다. 절벽을 보면 집이나 절이 지어져있습니다. 돈황 45불 중 한 불상을 스케치 했습니다. 그 불상은 너무나 유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띄어 스케치하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 불상에서 마치 부처님을 친견한 듯 장엄함을 느꼈습니다.

그 장엄함을 뒤로한 채 우리는 돈황을 떠나 투르판으로 이동했습니다. 투르판에는 두 강물로 싸인 천연 요새 교하고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절벽요새인 환경 요인으로 인해 아래로 흙을 파내려가 그 위에 지붕을 얹습니다. 대들보를 세우고 지붕을 얹는 우리와 다르게 파내려가 지붕을 얹고, 더 나아가 유목민은 지붕조차 없는 집을 짓는 것을 보고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졌습니다.

이곳 투르판에는 〈서유기〉에 나와 유명한 화염산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70도까지 올라가는 산이죠. 그 인근에는 천산의 만년설이 녹은 차가운 물이 흐르는 하천과 화염산의 뜨거운 열기가 만나는 베제클리크 사원이 있죠. 이 지역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곳을 꼽습니다. 사원 스님들이 절로 수행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경이었습니다.

 # 쏟아지는 달빛 속에

투르판을 떠나 천산고원으로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밤이 깊어 흙으로 지어진 숙소에 묵었습니다. 숙소건물은 문도 덜렁 덜렁거리고 페인트가 없어 양피로 표시를 해놓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소시설과는 반대로 지금까지의 일정동안 가장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문소리와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의 절묘한 조화가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갔을 때 맑은 하늘에는 달빛이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환한 달빛이 모든 만물에게 비추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은 모든 만물을 가리지 않고 고루 비춥니다. 무주상보시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달빛이 주는 절대적인 평온함 속에 이것이 우주의 본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 말 타는 소녀의 행복

천산고원에서 아을샤 온천으로 가는 중간에 다섯 가구정도 되는 유목민 마을에 들렸습니다. 사람이 쉽게 올 수 없는 오지마을의 인정이 넘치는 것을 보며 지역과 환경이 다르지만 인정이 넘치는 문화는 한국과 같음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말을 타고 있는 한 어린 유목민 소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살다가 슬픈 일이 어떤 일이 있었니?"
"그런 거 몰라요"
"가장 즐거운 일은 뭐니?"
"말 타는 거요."
"학교 갈 때 말 타고 가니?"
"예."

가난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그 소녀와 마을 주민들을 보며 행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행복에 관해서는 천산산맥을 지나 이슬라마바드 사원에 도착했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니 사원 안에 머리가 하얀 한 노인이 누워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그 소녀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언제 행복하십니까?"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노인과 부처님의 모습이 겹쳐보였습니다.

저는 실크로드에서 악기와 널뛰기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공유되는 것을 보며 느꼈습니다. '사람과 문화는 다르지만 생활 속에서의 본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남보다 더 갖고 더 높아지기 위해 발버둥치는 일상 속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라 보이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같음을 깨달아 생활 속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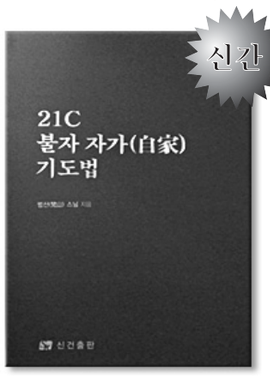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한국불교여래종
입 종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샤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 · 문도를 환영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석 · 굴법당
전문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옷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놀이 벗 삼아 치유 해답 찾아



어린이 마음 치료
정혜자 지음
교양인 펴냄 | 2만원

상처받은 어린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놀아주는 것과 놀이치료는 엄연히 다르다. <어린이 마음 치료>는 어린이 놀이치료의 개척자, 놀이치료사의 멘토 정혜자 선생의 30년 경험을 고스란히 담은 마음치료서다. 놀이치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학술이론서를 넘어 오랜 시간 마음을 닫아버린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갈등과 고뇌를 정화하고 전인적 성장을 이뤄가는 과정의 생생한 기록이다. 놀이를 벗 삼아 치유의 해답을 찾아가는 어린이의 노력을 지켜보면서 저자 자신도 다독임을 받고 있노라 고백한다. 오히려 '어린이가 나의 스승'이라 말한다.

자기 문제에 파묻혀 스스로 얽어만든 어둡고 작은 고치 속에 웅크린 어린이들이 놀이치료를 통해 세상과 호흡하기 시작한다. 아픔을 극복해 가는 60여 건의 임상 치료 사례는 마왕을 어진 왕으로 변화시키고 자유의지를 탄생시킨다. 저자가 소개하고 분석하는 극단적이고 특수한 경우는 아동 심리의 보편적 심층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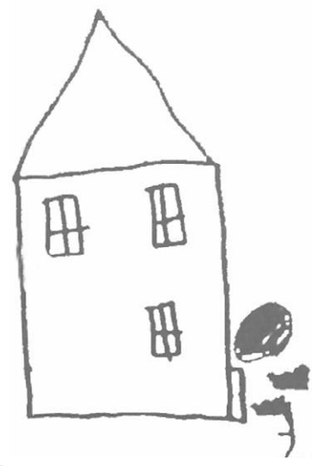
<어린이 마음 치료>는 어린이와 치료사 사이의 공감대 형성과 인내와 존중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는 마음을 열기까지 겪게 되는 좌절과 미로의 험로를 이겨내고 개척해 간다. 서서히 형성되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상처받은 감성은 회복된다. 아이는 치료자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고 긴장을 이완하면서 방어기제로 은폐했던 잠재의식을 마음 놓고 열어 보인다. 전진과 퇴보를 반복하던 일상의 현실 검증 능력을 비교적 무난히 유지하려 애쓰면서 조심스럽게 무의식을 개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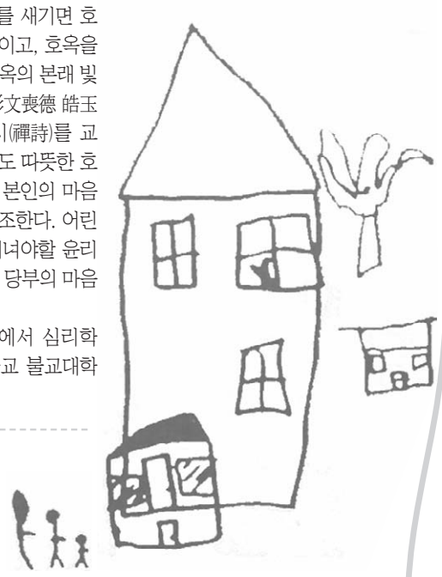
저자는 존경받는 불가의 스승으로부터 심리학보다 더 넓은 인간 이해의 길을 엿본다. 노자의 <도덕경>과 불경 속에서 자연의 '덕(德)'을 형용한 현(玄)'과 대자 대비한 구원의 존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일깨운다. 노자가 세상을 향해 조용히 들려주는 '현덕'은 어린이를 만나고 그들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우는 치료자가 본받아야 할 덕목으로 강조한다.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은 이심전심의 교감과 온정을 베푸는 치료자의 마음가짐이라고 말한다.

'호옥(흰 옥)에 무늬를 새기면 호옥이 지닌 덕(德)을 죽이고, 호옥을 갈고 닦으면 오히려 호옥의 본래 빛을 발한다. (皓玉無瑕彫文喪德 皓玉無瑕琢磨增輝)'는 선시(禪詩)를 교훈으로 삼는다. 차갑고도 따뜻한 호옥의 마음으로 치료자 본인의 마음을 순화시켜야함을 강조한다. 어린이 마음치료에 있어 지녀야할 윤리적 책무와 덕목에 대한 당부의 마음을 함께 담았다.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불교 상담관련 논문을 썼다.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폐아들과 일반 어린이를 통합하여 교육했다. 어린이 심리치료를 연구하는 인간발달복지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어린이 마음을 읽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해왔다. 현재 한양대학교 대학원과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에서 배움을 전하고 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호옥(흰 옥)에 무늬를 새기면 호옥이 지닌 덕(德)을 죽이고,
호옥을 갈고 닦으면 오히려 호옥의 본래 빛을 발한다

산사서 읊조리는 자연의 독백



'먹물 옷 가사 장삼 내 그림자가 보리수나무의 그림자 되어 아득한 꿈으로 뜰에 어린다. 내 마음에 아련히 돋는 염원, 접동새 피를 쏟는 이런 밤이면 둥글고도 환한 보름달 되어 이승과 저승을 훔건히 적신다.'

출가 사문의 삶에서 피고 지는 희로애락, 그 심원에 깔려있는 갈등과 번뇌를 달래고저 스님은 시와 차를 반려로 삼는다. <보리수 가지위에 걸린 보름달>은 20여 년간 자연과 생의 교감을 나눈 영원의 돌탑이다. 해조음 들리는 빛 잔잔한 진해항에서 솔바람 속 화엄 세계를 노래한다. 작설차 돌돌 끓는 자비암의 사계는 저자의 시 한 수로 전하는 평안의 선물이다.

그리움의 시어들이 애틋함으로 마음을 울린다. 스님은 스스로 본래 산새였노라 말한다. 산이 좋아 산기슭에 묻혀 사는 삶이기에 전생의 과보로 출가사문이 되어 아득한 그리움을 꿈꾸었노라 한다. 호젓한 산사에서 읊조리는 자연의 독백이 그윽하다. 가연숙 기자



보리수 가지위에 걸린 보름달
홍찬 스님 지음|모아 펴냄 | 2만원

진정한 지도자상 서산대사 통해 구현



서산사상과 신자유주의
신지견 지음|화은각 펴냄 | 1만3000원

이 시대의 불평등과 빈곤은 자본주의에 의한 풍속화로 전락한 지 오래다.

단지 총소리만 없을 뿐인 한국의 처지를 바라보며 서산 대사(西山大師)의 삶을 추적한다. 16세기 조선왕조 중기 임진왜란을 전후해 혹독한 역경 속에서도 자아를 완성하고 나라를 구출했던 한 인물의 조명이다. 현대사를 사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진정한 지도자 상의 구현이다.

서산 대사는 우리 민족사의 대 사상가로 실천불교를 행한 큰 지도자다. 임제종의 가풍을 이어 선 · 교 통합을 이루었고 위란에 처한 국가를 되찾아 낸 호국 성사다.

필자는 우리 역사와 서산 대사의 삶을 되돌아보며 세계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찾아야할 가치란 과연 무엇인지 살핀다. '대한민국의 역사국가표준 인물'이 되어야 할 이유와 '21세기 대흥사의 역할과 그 방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의 환기를 모색하며 확산을 기대한다. 가연숙 기자

수행과정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



신에 이르는 길
람 다스 지음 · 이균형 옮김|정신세계사 펴냄 | 1만3000원

힌두교 최고의 경전이자 인도의 논어로 불리는 <바가바드 기타>.

기타는 크리슈나(신)의 가르침을 받아 적은 경전이 아니라 크리슈나 그 자체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바가바드 기타>를 저자의 수행과정에서 겪었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곁들여 얘기한 <신에 이르는 길>이 발간됐다.

저자 람 다스의 본명은 리처드 앨퍼트. 1931년 출생해 심리학 박사로 하버드대학교 교수직을 역임하던 중 LSD실험을 통해 인간의식의 새로운 지평에 눈뜨게 된다. 이에 캠퍼스를 떠나 1968년부터 구루 크리파 · 박티 요가 · 명상 · 수피와 유대교 전통을 포함한 다양한 영적 수행을 추구해왔다.

이 책은 1974년 람 다스가 한 '나로파 인스티튜트' 강연의 결과물이다. '기타'의 원문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기타'를 공부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어서 '기타'와 깊숙이 만나게 해주는 흥미로운 후밋길이 된다. 노덕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력	혜인	클리어마인드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신심	혜인	클리어마인드
4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5	인연(1)	정찬주	작가정신
6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7	가시가 꽃이 되다	혜거	책으로 여는 세상
8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9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10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광우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민족사 '왕초보' 시리즈 인기몰이 내년까지 15권 출간 예정

불교박사되고 싶은 왕초보 다 모여라



주제별 집중적으로 쉽게 전달이 기획 포인트

독자 '수준' 염두해 편안한 글 필자에 주문

책 한권을 읽고 박사(博士)가 된다? 그것도 왕초보가. 정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박사라는 개념을 학사 석사 다음의 박사로 이해하지 않고 그저 글자풀이 그대로 두루 잘 아는 사람 정도로 이해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두루 아는 것만으로도 박사 소리를 들을 만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족사(사장 윤창화)의 기획물 '왕초보' 시리즈를 주목해 보면 박사 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히 인기를 누린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석지현 윤창화 일지 공저)가 지난 5월 개정판을 냈고 이에 앞서 4월에 계환 스님(동국대 교수)의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가 나왔다.

최근 조계종 포교연구실 고명석 선임연구원이 쓴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가 나오며 '왕초보' 시리즈의 행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앞으로도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유마경, 천수경, 아함경 등 경전과 선, 교리와 지식, 문화, 부처님 생애, 한문 등을 주제로 한 시리즈가 계속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민족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15권의 '왕초보' 시리즈를 다 낼 계획이다.

왕초보 시리즈로 나온 3권의 책은 정말 왕초보들에게 쉽게 다가서고 있을까? 2002년 첫 선을 보인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가 8쇄를 찍고 올 봄에 개정판을 냈다는 점을 미루어 나름대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독서모임이나 교양대학에서 교재로 채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래는 왕초보가 아니라 깡초보란 말을 쓰려고 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독자를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연령대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윤창화 사장의 기획 의도는 간단하다. 불교를 주제별로 집중적으로 쉽게 전달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엉성하게 이해하는 불자가 아니라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이해하는 불자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올바른 신행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족사는 필자들에게 독자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 가장 쉽고 편안한 글을 주문하고 있다.

"쉽게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불자들이 불교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여 생활화 하기 위해서는 쉬운 언어와 쉬운 해설을 담은 체계적인 책을 만나야 합니다."

윤창화 사장은 불교 교리서나 경전, 수행 등에 관한 서적은 어렵다는 선입관을 깨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쉽게 쓴 불서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 평범한 불자나 불교에 갓 입문한 초심자가 교리나 경전 수행 관련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불교사전의 해설문장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사전을 이해하려고 다시 사전을 찾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쉬운 불서를 통한 불교 제대로 이해하기'를 모토로 하는 '왕초보' 시리즈의 인기몰이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민족사에서 나온 왕초보' 시리즈 엿보기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불교의 교리나 의식, 절집의 문화, 신행생활 등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용어들에 대한 해설이다. 불교에 귀의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이 한권의 책이 해결해 준다. 초심자 뿐 아니라 오래 신행생활을 해온 불자라 할지라도, 어떤 용어나 교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앞이 꽉 막히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 책을 펼치면 답이 보인다. 가사나 장삼 등 의복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지만, 주지 스님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종정 스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도 들어 있다.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불교에는 다양한 경전이 있다. '팔만대장경'이라고 할 정도로 경전의 수는 많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모든 경전이 어렵다는 생각도 갖게 된다. 한자나 빨리어 등의 경전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 언어로 번역되기까지 역사도 장구하다.

거기다가 각 경전이 내포하고 있는 사상체계도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경전을 무시하고는 불자가 될 수 없다.

경전의 성립 배경과 구성형식은 물론 <금강경> <화엄경> 등 48가지의 대표적인 경전에 대한 성립동기와 주된 가르침 등이 설명되어 있다.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는 말은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는 말과 같다. 수행이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것이다.

그런데 수행도 다양하다. 염불 참선 사경 절하기 등등. 전통적으로 전해온 수행도 있고 시대에 따라 첨가되는 수행법도 있다.

수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참다운 불자도 될 수 없다. 이 책은 바로 수행의 정의와 각각의 수행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간화선, 위빠사나, 염불, 절, 간경, 주력 수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생활 수행의 실천을 위한 안내를 덧붙였다.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티벳의 성자를 찾아서

맥도널드 베인 | 정신세계사 | 1984

전정봉 카이스트 교수

'내안의 실재'에 눈 뜬 계기



"나는 종로에서 '티벳의 성자를 찾아서' 서성거렸다."

나는 25년 전 서울 종로거리 책방에서 이 책을 만났다. <티벳의 성자를 찾아서>. 마치 순례기를 쓴 것처럼 쓰여 진 이 책은 맥도널드 베인의 역작이다.

이 책은 파묻힌 채로 잠들어있는 '내안의 실재(內的實在)'를 눈뜨게 해준 책이다. '참나(眞我)'가 지닌 모든 힘과 가능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책이기도 했다. 우리가 자각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한정된 생명의 작은 '나'가 아니라 우주의 움직임의 중심이며, 온 세상의 모든 힘과 직접 연결이 되어있는 큰 존재다. 그러므로 '나'란 곧 우리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농락되는 운명의 노리개가 아니라 조잡한 몸뚱이 속에 갇힌 그 하찮음과 고뇌에서 해탈을 함으로써, 스스로 깨달은 자연의 주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 책이었다. 그 때 바로 그 종로의 인연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이 책의 무엇보다 큰 미덕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진리의 일면일 뿐인 온갖 관념. 사상 · 이념 · 교양 따위의 알음알이 일체를 넘어선 저편으로, 독자인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점에 있다. 어리석은 작은 나의 마음에 신성의식의 초월적인 힘을 도입하여 정신과 육체를 바탕에서부터 바꾸어 놓고, 물질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나타나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니 말이다.

내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특히 "부처님의 길을 따라, 불교에 귀의 하려한다면 먼저, 지금까지 읽고 들어온 모든 것들을 냉정하게 그리고 치우침 없이 가려냄으로써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러면 시간을 초월한 고요가 발견 될 것이며 그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배울 것"이었다.

무신론자는 자기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종류가 다른 신앙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불교의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뒤져서 거기에 스스로 만들어 쌓아놓은 온갖 관념과 공식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참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이 책에서 여러 성자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

'我'가 지닌 힘과 가능성 깨닫게 해 마음 비우면 부처님의 진리 배울 것

이 책을 통해 내안의 부처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내게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해외불서에 대한 눈을 새롭게 뜬 것도, 제자들과 함께 영어공부를 하면서 <금강경>을 영문으로 번안하도록 만든 계기도, 불교에 점점 가까워진 것도 어쩌면 <티벳의 성자를 찾아서>를 만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현대불교 후원 | 계좌번호 038-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에이치비엠씨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봉 해동불교무량종 행
종 도 모 집
해동불교무량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자각, 계송,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바탕으로 상구보리하화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 속의 적극적인 포교를 종지로 합니다



학성 (무량 대종사)

· 총재 및 조실 : 김정일 (법일 대종사)
· 종정 대행 총무원장 : 학성 (무량 대종사)
· 중앙고시법계위원장 : 박찬옥 (춘파 종사)
· 중앙교육원장 : 신원식 (도우 종사)
· 중앙포교원장 : 이광춘 (혜엄스님)
· 중앙사정원장 : 김광윤 (성일스님)
· 비 서 실 장 : 조종훈 (광원스님)

◆사암등록 입종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소정양식 1통
· 승려, 교임, 전법사 신고서 1통 · 명함판 사진 7매

(재)해동불교무량종
총본산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1구 10번지 무량사
전화 061)683-7147 / 010-3114-4074
※입종시 사암등록증과 주지임명장과, 법계증서, 수료증서, 승려증을 드립니다.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 에서는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에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 선 사 주지 정 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법성게 출간

보인 전등록 전5권 / 보인 무문관 / 보인 벽암록
보인 천부경 / 보인 금강경 / 보인 신심명 / 보인 증도가
보인 반야심경 / 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보인 법융선사 심명
보인 선가귀감 /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

오늘의 禪語

㉖ 즉심시불

'즉심시불(卽心是佛)'이란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즉심즉불(卽心卽佛)' '심즉시불(心卽是佛)' '시심시불(是心是佛)'이라는 말도 있는데,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모두가 동의어로서 '마음이 곧 부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은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대가 찾고 있는 진리(부처)이므로 부질없이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마음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이 희로애락의 발원
'순수한 마음' '청정한 마음' '空한 마음' 찾아야

선의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잘 나타낸 대표적인 선어(禪語)입니다.

여기서 '부처(佛)'란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경배하는 부처님이나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불상, 또는 역사상 실존했던 붓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대명사로서 '부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도에서 붓다 즉 부처님이란 인격적 · 정신적으로 하늘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초기 인도불교에서 수행자들은 설사 노력하여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도 아라한은 되어도 부처님과 같은 분이 된다는 것은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란 금생에 닦은 수행공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생 동안 생사를 되풀이 하면서 닦아야만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타카> 등 수많은 전생이야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처님에 대한 극진한 흠모와 숭앙심으로부터 나온 것이기도 하고, 또 설사 부처님께서 입멸했다고 해도 아직 그 가르침이 귀에 생생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불승(佛僧)들은 문화적으로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특유의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도 중국의 사유방식대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담하게도 '중생이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고 하는 <열반경>의 불성사상을 바탕으로 아라한이 아닌 부처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 상징어가 바로 '즉심시불(卽心是佛)'입니다. '부처(진리)'란 항상 저 먼 곳에 있는 줄로 생각하여 늘 밖을 향하여 찾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봄을 찾아 이 산 저 산을 헤매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문득 봄은 뒷마당에 핀 매화나무에 있더라는 어느 시인의 독백처럼, 깨달아야 할 진리는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발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이 부처'라고 하여 그 마음을 찾으려고 보니 막막하기는 여전히 매일반입니다. 마음의 어떤 점을 찾으라는 것인지? 마음속에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인지? 설마 인간의 육체 속에 마음은 어디쯤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을 찾으라는 말일까? '마음을 찾으라' '마음을 깨달으라'는 말도 사실 매우 추상적입니다.

'마음이 부처(진리)다' '마음을 찾으라' 또는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정도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속에 있는 오염심(번뇌심)을 제거하여 본래 깨끗한 마음(본래청정심)을 찾으라는 뜻이고, 다음은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마음의 본질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본래청정심(本來淸淨心). 우리의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청정합니다. 매화꽃처럼 티 없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시기 · 질투 · 허영 · 욕망 등으로 마음은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루 속히 본래 깨끗했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염을 제거하면 청정심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청정심이란 모든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 등 번뇌로부터 벗어난 마음, 가을 하늘 같은 맑은 마음입니다. 예컨대 갓난아이의 마음은 젖을 먹고 싶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권모술수나 교활함 같은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마음' '청정한 마음' '공(空)한 마음'입니다.

희로애락의 근원. 다음은 희로애락의 근원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은 뒤틀려 있습니다. 악담을 퍼트려서 시기, 질투, 비방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충고하면 노여워합니다. 그러다가도 당신이 최고라고 추켜세워 주면 희희낙낙해 합니다. '나의 존재' '나에 대한 가치'는 없고 타인의 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희로애락이 일어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발원(發源)한다고 생각합니까? 탐욕(貪)과 노여움(嗔), 어리석음(痴)으로 얼룩진 마음, 그 마음의 실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와 같이 본래 청정한 마음과 희로애락에 흔들리는 마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에서 '마음을 찾으라'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찾아보라(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청정심을 회복하는 것도 깨달음이고, 희로애락의 실체(근원)를 파악하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어떤 것을 발견해도 귀결점은 같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깨달으라

㉖ 사마 비구니

<증일아함경> '비구니품'에는 "앉아 참선해 선정에 들어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이는 사마(奢摩) 비구니요"라는 부처님의 평이 나온다. 이 사마 장로니는 불과 1주일만에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경전에 묘사되고 있다.

<장로니게>에 따르면, 사마 장로니는 이전의 부처님들 아래서 공덕을 짓고, 이런 저런 존재로 태어나 해탈을 위한 토대인 공덕을 쌓으며 윤회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시에 꼬삼비(Kosambhi) 성의 부유한 거사집에 태어나 사마라 불리었다. 그녀는 결혼 적령기가 되어 우전왕의 세 명의 왕비 중 하나인 사마와띠(Samavati)의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었고, 그녀가 죽었을 때 삶에 대한 혐오심이 생겨 출가했다.

하지만 그녀는 출가하고도 사마와띠 때문에 생긴 슬픔을 잊을 수가 없어서 성스러운 도(道)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후, 강당에 앉아 아난다 장로의 훈계를 듣고 위빠사나를 확립하여, 그로부터 7일째에 분석적인 통찰과 더불어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그녀는 아라한과를 성취하고 자신의 성취를 통찰하며 이렇게 게송으로 노래했다.

"네 번, 다섯 번 나는 마음의 평온을 성취하지 못하고, 마음에 대해 자재하지 못하여 정사에서 나왔다. 갈애(渴愛)를 완전히 제거한 이래로 나에게 8일째 밤이다. 많은 고통스런 대상 때문에 경계함을 즐기면서, 나는 갈애의 멸함을 성취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이 게송에서 '마음의 평온'이란 성스러운 도와 삼매에 관련하여 말한 것이다. 마음에 대해 자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균형잡힌 정진이 없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에 자재하지 못하여 그녀는 더욱 더 정진에 힘썼다. 사마 비구니는 아난다 장로의 훈계를 받은 때로부터 밤낮없이 계속해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8일째 밤에 균형잡힌 정진을 획득하고, 도의 성취로 번뇌를 소멸했다는 의미이다.

1주일만에 위빠사나 수행 통해 깨달아
닦은 시간 보다 집중된 마음 챙김이 핵심

사마 장로니의 구도역정을 보면, 한결같은 위빠사나 수행으로 불과 7일만에 깨달음을 증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禪)에서 자나 깨나 화두가 성성적적(惺惺寂寂)한 일여(一如)의 경지가 되면 1주일 안에도 화두가 타파된다고 하는 이치와 같다. 깨달음은 얼마나 오랜 시간 닦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한결같이 수행의 대상에 집중(止)하고 또렷또렷하게 마음챙김 또는 주시(觀)하느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될 때 세계관이 뒤집어져 '거꾸로 된 꿈같은 생각(顚倒夢想)'에서 깨어나는 일대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마 장로니의 수행과정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갈애(渴愛)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표현이다. 그 어떤 수행법이든 탐진치 삼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참된 깨달음이 아니기에, 탐진치의 원인이 되는 '갈애'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필요하다.

느낌(受)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갈애는 범부가 목마르게 갈구하는 것이다. 육입(六入)이 육경(六境)에 부딪쳐서 생기는 현상으로서 사물, 소리, 냄새, 맛, 접촉, 마음 등 여섯 가지 대상에 대한 갈애가 있다. 이 갈애를 다시 분석하면 세 가지로 나뉜다.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갈애,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상견(常見)과 결합된 '존재에 대한 색계 · 무색계의 갈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단견(斷見)과 결합된 '비존재에 대한 갈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갈애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특징이 있다. 갈애가 존재하면 집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갈애가 없으면 집착이 없고 갈애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한다. 오온의 느낌에서 갈애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집착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윤회를 끝내는 출세간으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위빠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이는 <금강경>에서 설한 여실지견(如實知見)과 같은 것으로, 선(禪)에서 '산은 산, 물은 물' 있는 그대로의 실상(實相)을 깨달으라는 가르침과 같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늘이지 말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려 하지 말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등 일체의 분별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법문이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반냐라마 여름 사띠 캠프**=반냐라마 사띠스쿨이 2008 여름 사띠 캠프를 개최한다. 10차례에 걸쳐 열리는 사띠 캠프 가운데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정화하는 미디어 다이어트 캠프, 자유와 행복 수행과 창조 휴식과 여유 등을 통해 조화를 모색하는 해피그룹 캠프 등이 눈길을 끈다. 사띠 캠프의 일정은 ▲대학생-7월 14~17일 ▲일반인-7월 18~21일, 24~27일, 28~31일, 8월 21~24일 ▲교사직무연수 심화-8월 2~6일 ▲청소년 기초-8월 7~10 ▲청소년 심화-8월 18~21일 ▲미디어 다이어트 캠프-8월 10~13일 ▲해피 그룹 캠프-8월 14~17일이다. 동참금은 10만원 (055)331-2841

●**우곡선원 7월 정기법회**=우곡선원이 7월 정기법회 우곡 선사의 〈달마혈맥론〉 설법을 개최한다. 부산선원(051-740-6288)은 7월 10 · 24일, 일산선원(031-975-3127)은 15 · 29일 정기법회가 열린다. 한편 우곡선원은 8월 13~17일 상해 소주 항주 황산으로 만행정진을 떠난다.

●**호두마을 위빠사나 수행**=천안 위빠사나 명상센터 호두마을이 7~9월 수행 일정을 발표했다. 집중수행은 김열권 법사 지도로 7월 18~23일, 8월 15~20일, 우또다나 스님 지도로 7월 24~29일, 성오 스님 지도로 8월 22~28일 진행된다. 주말 수행은 능혜 스님 지도로 매주 금~일요일 이어진다. (041)567-2841

●**홍원사 자비관수행 개강**=서울 홍원사가 7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자비관 수행 지도에 나섰다. 주지 성오 스님이 자비관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할 예정이다. 수행기간은 3개월이다. (02)2658-310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참선단식 간화선의 생활화와 단식수련 단식과 간화선체험
몸에 끄달리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다.
일상의 삶을 통해 접근하는 간화선 수행의 지름길을 찾는다.
생활 속에서 화두참구로 공부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세운다.
- 일상에서 바로 들어가는 간화선 생활화
6박 7일 동안에 공부 힘을 얻을 수 있다.
- 공부 힘이 생기면 생활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공부 힘은 운명과 천성에도 좌우되지 않으므로 사주팔자를 한탄할 필요가 없다.
업장과 습관도 본래공적하다.
단식의 신체적 자극을 통해 외부로 향한 타성을 내면의 세계로 회복하는데
대단히 뛰어난 수행이다.
참선과 단식수행으로 사고의 틀을 헐고 무한자재의 절대근원의 자아를 회복한다.
시원한 제주앞바다에서 만나는 간화선 삼매체험 단식수련
간화선과 금강단식의 진행과 특징
1. 체질개선 해독 피부미용 아토피 체중감량(1일 최고3kg) 고혈압 당뇨 위장 대소장 심장 간장 폐 신장 치료 예방 절연 등 부작용 없는 다양한 효과. 예비단식 보식이 필요 없음
2. 자아통찰로 운명 천성이 바뀜. 심신개벽 자신감 신념증대 창의성 능력개발 성격개조 우울증 신경쇠약 정서안정 공포불안 대인관계 인내심 집중력 기억력
3. 단식은 마음으로 한다. 몸과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단식으로 부담 없이 가볍게 화두참구에 들어간다.
4. 신체 정신부담을 줄인 정진과 단식병행 - 몸과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기에 가능하다.
5. 바로 끊고 바로 먹는 금강단식. 단식 부담은 최소 위험부담은 없음.
6. 단식 전 예비단식, 단식 후 보식이 전혀 필요 없음. 7. 물만 마시고 난치병 성인병을 치료할 수 있다.
8. 하루일과 - 선법문 좌선 행선 운동 묵언 취침
가. 홈페이지 www.wseon.com / 원명선원.kr
나. 대상 및 일정 : 일반인 60세한(6박 7일) ◆1차→08. 7. 29~8. 4 ◆2차→08. 8. 8~8. 14
다. 회비할인 : 7월 15일까지 접수시 회비의 30%할인(홈페이지 수련회 안내문의 내용에 따름)
라. 입금계좌 : 농협 953-17-000706(예금주-원명선원)
마. 접수후 항공편을 속히 예약바람(제주도외 지역해당)
바. 연락처 : 제주시 화북 1동 원명선원(교대옆) ☎ 064)755-3322
통찰의 도량 한라산 원명선원 圓明禪院
물만 마시고 성인병을 치료 할 수 있다!

buddhanews.com



‘무념무상’ 한 자세가 부처자리에 드는 길

선지식을 찾아서 의룡

의룡 스님 (각황사 조실)

의룡(義龍) 스님은 1936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다. 6세에 용꿈을 꾸고 용주사를 찾아가 출가해 14세에 일해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탄허 • 관응 스님에게 교학을 배운 스님은 35세 되던 해에 ‘한영-명봉 스님’의 강맥을 이어 받았다. 일생을 제방 강원의 강사로 살아온 스님은 2002년 직지사 강주를 끝으로 강단에서 물러났다. 30세 되던 해에 창건한 각황사에서 홀로 수행정진 했던 스님은 직지사 강주에서 물러난 후 각황사를 맏상좌에게 넘겨줬다. 고향인 안성 미륵당에 평소 읽던 경전과 불서 수 만권을 모아 ‘자심난야’를 꾸며 머물고 있다.



안개가 나지막이 깔린 7월 첫째 날 의룡 스님(각황사 조실)이 머물고 있는 안성 미륵당을 찾았다. 서재 한 동이 전부인 미륵당은 바로 옆에 죽산석불입상을 이웃하고 있는 한적한 곳이었다.

반듯이 앉아 <금강경>을 보던 스님은 기자를 반가이 맞으며 세조대왕 번역본 <금강경>에 얽힌 이야기를 꺼낸다.

“세조대왕이 번역한 <금강경>은 세조의 꿈에 세종대왕이 나타나 <금강경>을 번역하라고 해서 한 것이에요. 세조가 불교 믿게 된 것도 그때부터야. 세조는 <법화경> <아미타경>도 번역했어요. 당시 번역은 유교 선비들을 비롯해 강사 선객 스님들이 토론하고 한학자와 불교학자들이 모여서 해낸 거라 번역이 참 잘됐습니다.”

훈민정음과 한자가 뒤섞인 의룡 스님의 <금강경> 책은 스님이 붙인 주석으로 페이지마다 빨갛고 파랗고 까맣게 깨알 같은 글씨들이 가득했다.

“불교는 자꾸 연구해야 해요. 50년 전, 60년 전 본 경전들을 다시 보고 주를 다는 것은 의심스러워서입니다. <금강경>은 내용이 생명이지요. 강의를 꼭 들어야 합니다. 입으로 ‘여시아문’이라 읽고 속으로 뜻을 해석하며 읽어나가야 해요. 천천히 읽어야지 급하게 딱딱 끊어지도록 읽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에 설해진 ‘범소유상 개시허망’을 따라야할 불교계가 천불전 만불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스님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마음이 부처’라 하면서 불상들은 왜 여러 구를 만들어 모시나요? 왜 천불이니 만불이니 모으는 겁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시는데 세상은 왜 어려워집니까? 모시면 좋아져야지. 불상은 상징적으로 한 불만 모셔도 돼요. <금강경>에 ‘범소유상 개시허망’을 말하는데 천불 만불 모시는 것은 교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왜 합니까.”

조계종 스님들이 자가당착에 빠져있음을 한탄한 스님은 “조계종에서는 화두선을 강조하는데 조계종도들은 화두 참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한다.

“모양 없고 형상 없는 것이 진리이자 부처”임을 강조한 스님은 “진공묘유(眞空妙有)가 진리인데 마음도 진리도 모양이 없고 이름도 없고 그래서 부처”라고 설명한다.

“비어있지 않으면서 비어있는 것이 진공이요, 있지 않으면서 있는 것이 묘유”라 해설한 스님은 “진공묘유가 다 마음이요 진리라, 여기서 인과가 생겨난다”고 지적한다. 진공묘유한 것이 어떤 것은 원인이 되고 어떤 건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교가 발전은커녕 오늘날 엉망이 됐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스님은 또한 욕심의 문제를 말한다.

“욕심을 충족시키려 불교를 믿으니 행복이 없죠. 물질 가지려는 욕심을 버릴 때 행복한 것이에요. 불만족에는 행복이 없어요. 탐진치를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극락은 없습니다.”

의룡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 즉 ‘부처되겠다’ ‘깨닫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념무상’의 상태에 있는 것이 곧 부처자리에 드는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불자들이 요즘 같은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여쭸다.

“위기도 인연에 의해 맺어진 것이죠. 자기가 만들고 누리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만든 위기는 아니죠? 우리가 지은 복이 거기까지니까 내가 만들어 사는 겁니다. 이 인연은 없어지지도 늘지도 않아요. 그대로 사는 것, 멸하지도 않고 계속된 것입니다. 씨가 곧 결과예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위기타개책은 스스로 나옵니다.”

지금 힘들다고 절망할 필요 없다는 말을 계속 해준 스님은 “남 탓하고 정치인 탓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파동을 일으켰지만 우리 모두 다 같이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그런 것이기에 대통령 원망할 것 없다”고 단정한다.

모든 것이 내 탓이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파고든다.

“우리 불자들은 공부를 안 해요. 불교를 모르고 교리를 연구하지 않으니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 죽을 때 개종하는 겁니다. 혼이 들락거릴 때 옆에서 찬송가 불러주고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끄덕끄덕 개종하는 거죠. 김두한씨 부인도 불교서 기독교로 갔잖아요. 교화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에요. 모두 교화 제대로 못한 스님들 책임입니다.”

불교공부와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스님은 아난존자 일화를 전해준다.

“아난존자가 고요히 나무 아래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 염구아귀(입에서 불이 나오는 아귀)가 나타나 ‘3일 있다가 죽을 건데 뭘 그리 열심히 참선을 하나’고 말했어요.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아난존자가 물으니 아귀가 설명하길 ‘아귀들이 100만명 있는데 이들한테 삼보에 공양을 올려달라. 그러면 죽음 모면하고 장수하리라’고 했어요.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아뢰니, ‘공양을 올리되 아귀에게만이 아니라 일체중생에게 모두 공양해라. 복지으면 된다’고 허락하셨죠. 이 공양이 시식입니다. 구명시식이 그때 생긴 거예요. 아난존자가 벼 열섬으로 밥을 지어 아귀무리를 청해 시식했어요. 그 공덕으로 아귀 백만대중은 천상에 나고 아난존자는 장수했지요.”

돈사탐진치 상귀불법승(頓捨貪嗔癡 常歸佛法僧)

염념보리심 처처안락국(念念菩提心 處處安樂國)
탐진치를 끊고 불법승 삼보에 항상 귀의하라.
찰나찰나 보리심 내면 가는 곳 모두 극락이다.

“부처님은 아귀가 된 것은 탐진치 때문이라고 아난에게 법문했어요. 이 법문을 아난존자가 아귀들에게 해주었고 덕분에 천상에 모두 태어난 것이죠. 잘 살려면 탐진치를 버리세요.”

탐진치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바로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탐진치를 항복받는 것,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탐진치를 버린 마음은 계정혜 삼학에 머무를 것”을 스님은 주문한다. 계정혜 삼학에 머물면 복이 되는 것이고 곧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통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계정혜 삼학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계를 잘 지키고, 참선해서 선정에 들어야 지혜 발달하는 것”이라고 스님은 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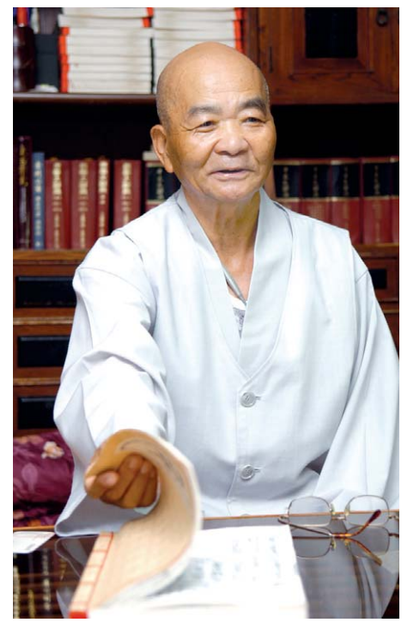
신시보리수(身是菩提樹)요
심여명경대(心如明鏡臺)라
시시근불식(時時勤拂拭)하니
물사약진애(勿使惹塵埃)라
몸은 보리의 병풍이요, 마음은 지혜의 집과 같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 끼지 않도록 하라.

“<육조단경>에서 신수 대사는 마음은 지혜의 집과 같다고 했어요. 마음의 주인공은 지혜인데 이 지혜에서 생각이 발해지는 것이죠. 신수 대사가 옳게 본 겁니다. 중생을 위해서 닦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부처가 병든 게 중생입니다. 병을 고쳐야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중생이 먼지라면 먼지 다 털어내면 부처가 되는 거죠. 신수 대사는 중생병을 고칠 수행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의룡 스님은 신수 대사의 말씀을 빌어 끊임없이 공부하고 닦을 것을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탐진치 끊어내 버리려면 ‘마음의 항복’ 필요
위기는 ‘자업자득’…타계책도 자신에게 있어



SHC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45 곰취 두부 쌈

곰취는 고원이나 깊은 산 습지에서 자란다. 1~2m 높이로 뿌리와 줄기가 굵고 털이 없다. 뿌리에 달린 잎은 길이가 9cm에 이른다. 큰 심장 모양으로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가 길다. 뿌리에 달린 잎 사이에서 줄기가 나와 잎이 3장 달리는데 모양은 뿌리에 달린 잎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작고 잎자루 밑 부분이 줄기를 감싸고 있다. 7~9월 줄기 끝에 지름 4~5cm의 노란색 설상화가 총상꽃차례로 핀다. 열매는 수과로 10월에 익으며 길이 6.5~11mm다. 갈색 관모가 있어 바람에 잘 흩어진다.

독특한 향미로 '산나물의 제왕'으로 불려

어린 잎은 생으로 쌈 싸먹으면 향기 일품

곰취는 잎모양이 말발굽과 비슷해 마제엽(馬蹄葉)이라 불린다. 지역에 따라 왕곰취, 곤대슬이(지리산 부근)라고 하며 영어로는 휘셔 리귤라리아(Fischer ligularia)다. 곰취류에 피는 특색 있는 설상화 모습은 혀와 닮았다.

한방에서는 가을에 뿌리줄기를 캐서 말린 것을 호로칠(葫蘆七)이라 한다. 해수 · 백일해 · 천식 · 요통 · 관절통 · 타박상 등에 처방하며 한국 · 일본 · 중국 · 사할린 섬 · 동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한다.

곰취의 큰 용도는 나물이다. 어린잎을 나물로 먹는 곰취는 향미가 독특하다. 어린 잎새를 생으로 쌈 싸먹으면 쌉쌀하게 입안에 남는 향기가 일품이라 '산나물의 제왕'이라는 거창한 별명도 붙었다. 잎이 조금 거세면 호박잎처럼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쌈 싸먹거나 초고추장을 찍어먹는다.

지리산 산골마을에서 억세진 곰취 잎으로 간장과 된장 장아찌를 담군 것을 맛본 적 있는데 입안에 맴도는 향기와 맛이 일품이었다. 곰취꽃이 유난히 푸른 하늘을 배경 삼아 화려하게 피기 시작하면 가을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다. 산촌 (02)735-0312



곰취 두부 쌈

재료 : 곰취, 두부, 배추김치, 참기름, 간장, 깨소금.

만드는 법

① 곰취를 깨끗이 씻어 소쿠리에 건져둔다.
② 방금 만든 따끈한 두부를 한 입에 먹을 정도의 직사각형으로 자른다.
(시간이 경과된 두부라면 펜에 노릿 노릇하게 부친다.)
③ 배추김치는 두부 크기만큼 썰어둔다.
④ 곰취 잎을 펴 두부를 그 위에 올리고 두부 위에 배추김치를 올린 다음, 모양 좋게 싼다.
⑤ 간장에 깨소금과 참기름을 넣은 양념장을 올려 낸다.



청오 스님의 청다향 이야기 ⑥

"청다향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계절마다 향을 모아 3년 이상 밀봉 숙성시켜야 완전한 향으로 태어난다. 솔가지 한 트럭 분량으로 10ml 원액 밖에 추출할 수 없지만, 그 속에는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돼 살균 및 항균효과가 우수하다. 청다향은 덕유산 깊은 청정지역에서 채취한 참솔, 산초, 박하, 편백, 산쑥 등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보물들로 만든다.

솔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솔은 노화방지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줘 수험생에게 좋다. 약리 실험에서 회충을 죽이고 살균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초는 천식, 부스럼, 습진 치료제로 이용된다. 박하는 한방에서 두통, 풍열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본초서>에는 박하가 독한 기운(毒寒)을 몰아내고 중풍 등을 없애고 눈을 밝게 하고 피로를 풀어준다고 했다. 편백은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삼림욕 효과로 현대의학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편백은 아토피 같은 알러지 피부 질환을 개선시킨다. 집안의 진드기 및 해충을 억제시키는 기능과 면역기능 증대 및 스트레스 완화작용을 한다.

봄 깊은 산에 자라난 쑥만을 사용해 농약 없이 자란 산쑥은 비타민 A, C, B1, B6가 많이 들어 있다. 항암효과가 있어 최근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동의보감>에 "쑥은 오래된 여러 가지 병과 부인의 하혈을 낫게 해 안태 시키며 복통을 멎게 한다"했고, <본초강목>에는 "위장, 간장, 신장 등 내장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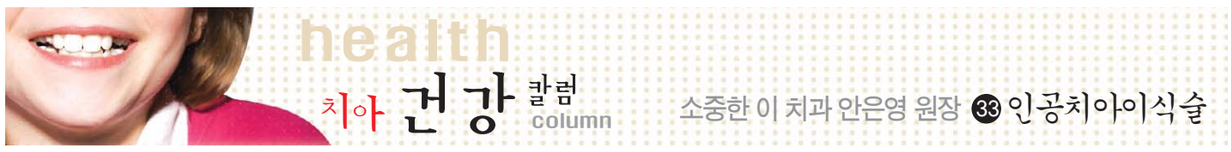
정성을 다해 추출한 청다향 천연향을 자연 그대로 피어내기 위해 무공해 청자 도자기를 빚어 온열 36도로 기화되는 방식을 택했다. 높은 열이 아닌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자연 기화 하는 것이 건강한 실내 공기를 만든다. 환경 호르몬 노출이 없는 친환경적인 생향기(향로)에 생명의 빛 녹색 녹황색 조명을 더했다. 조명 조절을 통해 향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해 공간 크기에 따라 향기를 조절하고, 자연 가습장치를 겸하도록 만들었다. (실용특허 제0164576호)



신심과 원력으로 만든 청다향 천연향을 대중들에게 선보이려면 과학적 증빙자료가 필요했다. 동국대 이광근 교수(식품공학과)의 도움을 받아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청다향을 10배 희석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로 분석했다. 박하, 솔잎, 편백 등에서 50여가지 천연성분이 분석됐다.

한번은 거창 J보살이 아토피를 심하게 앓는 생후 2개월 된 아이에게 청다향을 물에 두어방울 떨어뜨려 세수시킨 적이 있었다. 이틀만에 아토피는 개선됐고, 아이엄마는 달마사를 찾아 감사인사를 왔다. (055)941-1083 <계속>



소중한 이 치과 안은영 원장 33 인공치아이식술

잇몸뼈 손상 진행되기 이전에 시술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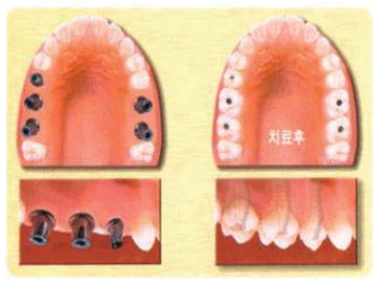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발치 후 치아가 없어진 위치에 틀니를 하거나 양 옆 치아를 삭제 후 금관(크라운)을 씌워 인공치아를 거는 보철치료를 했다. 특히 최후방 어금니를 뺀 경우는 틀니 외에는 치료법이 없었다.

최근 치아가 없는 위치의 턱뼈에 인공치아를 심는 임플란트시술이 대중화되고 있다. 임플란트는 치아 뿌리처럼 생긴 금속체를 턱뼈에 심어 단단히 고정시킨 후 그 위에 인공치아를 조성한 새로운 보철 치료법이다.

임플란트는 자신의 치아와 같은 감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공치아 이식술은 틀니 사용 시 불편함과 고통을 해결한다. 틀니를 사용할 때 보이는 금속고리 부분이 없어 임플란트가 심미적으로도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인접해 있는 건강한 치아를 갈아 씌우지 않기 때문에 자연치아를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며 치아 기능을 회복하는 이점도 있다.

임플란트치료 전에는 임플란트필요성 여부와 환자의 전신 상태, 구강 상태 등을 검사한다. 특히 임플란트는 환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지와, 환자가 임플란트에 적용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임플란트시술은 생체적합성이 탁월한 치근모양 금속고정체를 턱뼈에 심는 수술과정과 그 윗부분에 자연치아와 유사한 인공치관을 올려주는 보철과정으로 이뤄진다.

인공치아 뿌리의 재료는 생체에 전혀 해가 없는 티타늄 등을 사용한다. 치아가 없는 부위의 뼈 상태가 단단해지면 사람 몸에 들어가도 이상이 없는 생체친화성이 좋은 재료의 임플란트를 악골 내에 심어 자연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든다.

수술 후 3~6개월 안정 기간을 거쳐 임플란트가 융합돼 일체감을 갖도록 한 후 뼈 속 임플란트에 기둥을 세워 잇몸 밖으로 노출시킨다. 기둥이 세워지면 그 위에 자연치아와 유사한 모양의 인공치아를 장착한다.

이렇게 시술된 임플란트는 어떤 음식이든 저작이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와 웃음 및 미소가 가능하게 하며, 적극적 생활과 삶의 질이 고양된다. 또한 인접 치아에는 아무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치아결손부위의 뼈수축을 막아 안면 외모를 유지시킨다.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잇몸의 뼈가 충분해야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쉬우므로 뼈 손상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임플란트시술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잇몸뼈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도 상악동 골이식술, 골 확장술, 인공뼈 이식술 등을 통해 뼈의 양을 충분히 확보 후 임플란트시술을 한다.

요즈음은 치아를 빼는 것이 치료의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치료를 위한 단계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치아를 빼서 다음 단계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플란트시술을 한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올바른 양치질 방법에 의한 청소상태 및 잇몸상태 등을 검사받아야 임플란트를 오래 잘 사용할 수 있다.

(02)776-2882

[법보시 PR]



진정한 출가는 무엇인가

보살의 출가란
단지 자신의 삭발만을 가지고 출가라 하지 않는다.
중생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며,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불법에 만족하게 하는
이타(利他)의 행동을 하는자, 그가 곧 참다운 출가자다.

<대장엄법문경>

불교경전 가운데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것은 무엇보다도 승만경이었으며, 또한,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위제희(韋提希)부인, 법화경에 나오는 용녀성불(龍女成佛)과 유마경에서 사리불을 희롱한 천녀 등인데 이것은 모두 흥미가 깊은 내용이다.

이 경은 왕사성의 창부(娼婦)인 승금색을 문수보살이 교화한 것으로, 대승의 교리가 종횡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경전이다. 그런데, 번뇌가 곧 보리임을 밝히는 대승의 교리를 실시하는데, 창부가 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제재라 할 것이다. 첫 머리는 그 창부인 승금색광명덕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여인은 전생의 인연이 있어 아름다운 여성으로 태어났으며 그 태도도 아름다워서 왕사성의 모든 사람, 특히 장자나 장자의 아들 혹은 부호의 아들들이 한번 보면 마음을 빼앗겨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문수보살이 몸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자, 사랑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때 비사문천은 사람의 모습으로 현신하여, 그여인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에게 탐심을 일으키지 말라" 하였으나 그 여인은 문수보살에게로 가서 입고 있는 옷을 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문수보살이 대답하기를 "네가 보리심을 일으키면 주겠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대승불교 특유의 교리에 대한 문수보살과 승금색이 대답이 이어지게 된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오로지 원하옵건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출가에 대한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라고 애걸하자 이에 문수보살의 첫 마디가 바로 여기에 보인 일절이다. 간단히 말하면 문수보살은 출가의 참다운 의미를 그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만이 꼭 출가가 아니니 자리를 성취한 너는 이제부터 이타의 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출가다" 하셨다. 다음에 나오는 스스로 열반에 드는 자, 스스로 번뇌를 여의는 자, 스스로 계행을 지키는 자, 스스로 계율을 지키는 자, 스스로 선법을 닦는 자, 스스로 승복을 입는 자, 스스로 몸과 마음을 구호하는 자, 스스로 몸과 마음의 속박을 푸는 자, 스스로의 생사의 공포를 해탈하는 자, 자신의 열반을 즐거워하는 자 등을 가리켜 출가라고 하지 않는다. 중생의 삼독을 여의케 하고, 계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참다운 계율에 머무르게 하며, 4무량심을 일으켜서 능히 중생에게 선근을 증익하게 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에 들게 하며, 모든 중생의 번뇌를 끊게하고,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을 구원해주며, 그 몸과 마음의 얽매임을 풀어주고 모든 중생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며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불법에 만족하게 하는 이러한 이타의 행동을 하는 자가 바로 참다운 출가자라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승금색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 상위덕장자의 아들을 교화 시키기도 한다. 그 여인은 상위덕 장자의 아들의 무릎을 베개삼아 잠을 자며 죽음을 모양을 보여 주는 방법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그 묘사가 매우 진실감 있게 펼쳐진다.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이리하여 부정관으로 더욱이 수림계를 설하고 상위 덕장자 아들의 선근을 성취시키고 게송을 들어 말하였다.

"색을 보기를 물방울과 같이 하라. 모든 감각기관은 물거품과 같으며, 모든 상은 아지랑이와 같다. 이렇게 내가 저들을 안다"

이것은 인간의 애욕은 그 순간 뿐이라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보살은 마땅히 정진으로서 욕구를 떠나라는 뜻이다.

[미륵암 청운 011-870-0021]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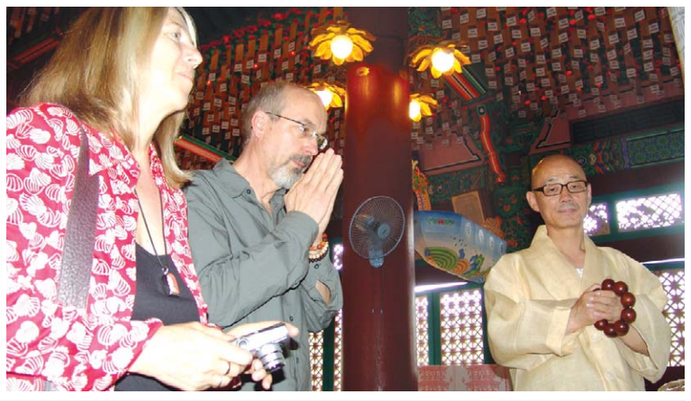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찾은 비디오아티스트 '빌 비올라'

깨달음이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본질 그 자체다. 윤회와 순간을 비디오아트(Video-art) 영상 언어로 작업해온 빌 비올라(Bill Viola, 57)가 한국을 찾았다. 백남준(1932~2006)의 제자, 1970년대 비디오아트 1세대로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예술로 승화한 시대의 증인이다.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신관)는 '변형(Transfiguration)'을 주제로 7월 31일까지 개인전을,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서 선보인 '해변없는 바다'를 10월 26일까지 특별 상영한다. 빌 비올라는 6월 30일 백남준의 유분이 안치된 서울 삼성동 봉은사(주지 명진) 다래헌(茶來軒)에서 주지 스님과 다담(茶談)을 나눈 후 법왕루에 안치된 백남준의 영정에 헌화했다. 그중 다담 '선(禪)과 비디오아트' 문답을 소개한다.





'禪'과 '영상예술'의 만남

BV: 기독교와 불교는 숫자 '6'에 대한 해석이 다르던데요?

명진 스님: 탐욕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지요. 불교의 육근(六根)·육경(眼·耳·鼻·舌·身·意)은 탐욕의 개인적 주관에서 비롯된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기독교는 숫자 '6'을 악마의 의미로 지니지만 바른 해석은 탐욕심에서 비롯된 인식으로 해석해야겠죠.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쉬는 의미가 바로 '7'입니다.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극복한 상태를 불교는 최고의 안식처로 삼습니다. 6식의 경계를 넘어서 제7식의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반야의 지혜며 불교 수행입니다. 선(禪)의 궁극 목적은 바로 욕망의 비움을 통해 반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BV: 강하고 아름다운 필체인데요. '단지불회(但知不會)' 의미는 무엇인지요?

명진 스님: 소크라테스가 제자의 물음에 답하던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나는 사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오직 하나, 나는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사건입니다. '오직 아는가 알지 못한 줄을(但知不會)' 소크라테스의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Only onething I know, I don't know myself'라고 하지요.

BV: 그리스 아폴로신전에서 본 '너 자신을 알라'와 통하는군요.

명진 스님: 가장 중요한 지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의 선은 사실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 있지요. 끝없는 물음으로 얻는 지혜가 바로 선수행입니다. 알 수 없는 그 자리가 분별심 없는 본래면목입니다.

BV: 물음의 해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깨닫는 것이군요.

명진 스님: 알 수 없는 그 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는 시간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름을 부정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거꾸로 모름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그때 모름 그 자체는 내가 됩니다. 모름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부동하여 지속될 때 고요히 깨닫게 됩니다. 그 때 부처님은 별을 본 것입니다.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모름이란 허공과 같습니다. 이미 모르는 그 자리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모름의 그 세계를 화가는 미술로 표현합니다. 빌 비올라도 비디오아트를 통해 표현하지요.

BV: 2년 전에 달라이 라마를 만났습니다. 작가로서 현대 시대는 수행이 무척 힘든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도 제일 먼저 TV리모콘을 찾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쭸더니 답하시길 "나도 어디 가면 텔레비전부터 켠다" 하시더군요. 그 자리에는 아들도 함께 했습니다. 제 아들은 어릴 적부터 벌레가 죽으면 그 벌레를 모아 다른 친구들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돌봤습니다. 아들이 달라이 라마에게 질문했습니다. "한 방에 백 명의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백 명의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달라이 라마께서는 그 한 명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백 명을 위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달라이 라마가 답하길 "부처님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한 명이 짓게 될 악업을 차단하고자 후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스님은 폭력이 과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명진 스님: 폭력은 때에 따라 필요합니다.

BV: 의도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왜 폭력을 행해야 합니까?

명진 스님: 폭력 그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풀 한포기 꺾는 것도 풀에 대해선 폭력입니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배려 없는 행위의 폭력은 중단돼야 합니다.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이 절대 해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BV: 근래에 티베트와 중국의 폭력 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진 스님: 티베트가 중국 중원을 침략해 장악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의 독립을 허용치 않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BV: 티베트는 현재 어렵지만 달라이 라마 사상은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노와 폭력의 관계는 조절 가능한지 복잡합니다.

명진 스님: 자비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연민을 지닐 뿐 분노의 화는 없어야 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 근원을 물어 들어가 보세요. 화의 실체는 없습니다. 마치 물거품처럼 말이죠. 화를 내는 것과 보리심은 둘이 아닙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며 예술가의 고민일 것입니다.

프레임에 담아낸 '삶과 죽음의 경계'

한 사회와 시대를 지배하는 인물과 가치가 지닌 복잡 다양한 얼개는 불교의 인드라망으로 정의된다. 빈 컵이어야만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참선 수행을 통해 작업 세계를 구축해 온 빌 비올라. 그는 1970년대 대학생 시절 친구와 함께 방문한 명상센터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불교와 첫 인연을 맺었다. 존 케이지(John Cage, 음악가)와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 시인), 앨런 왓츠(Alan Watts, 명상가)는 당시 불교신도였다. 뉴욕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시라큐스 대학에서 1972년에 전시 준비중인 백남준 선생을 만났다. 그의 전위적인 작업을 보고 비올라는 '나의 업을 만났다'는 직감이 왔다. 선생은 자상히 본인의 모든 작업을 지도해 주었고 2년 뒤 백남준의 개인전 준비를 돕는다. 그것이 바로 74년 선보인 'TV-부처'와 'TV-정원'이다.

지난 35년간 건축적 비디오 설치·사운드 설치·전자 음악 퍼포먼스·평면 비디오·TV방송영상 등 다양한 빌 비올라는 '변형'을 선보인다. '물의 장막'을 경계로 넘나드는 어둠과 밝음에 의한 실체의 생멸은 비디오의 속성인 '프레임(frame)'과 찰나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물의 물리적 힘과 겨루는 인간의 격양된 표정 표출은 영적 신비감을 체험하게 한다. 변형의 총 여섯 테마는 변모되는 인간의 외적 형상을 통해 내적인 인간 감정의 변화를 삶과 죽음 사이의 간극으로 승화한다. 국제갤러리 (02)733-8449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노영심 피아노 연주회 미황사 공연 CD 발매

판매 수익 서정분교에 기부

노영심이 연주한 5월의 피아노 '사랑이 사람에게 말을 거네'가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에서 공연 후 CD 음반으로 발매됐다. 판매수익은 미황사 아랫마을 서정분교 학생들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창건 1259주년 기념 산사음악회로 매년 5월 17일 인연 있는 곳에서 연주하는 노영심의 피아노 연주회는 300여 명의 지역민과 탐방객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연과 시골 학교를 배경으로 정감어린 선율에 참다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담았다.

'자연·학교·마음'을 주제로 자하루(紫霞樓)에서 나눈 10곡의 피아노 선율은 미황사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연주가 끝난 후 마련된 대화의 시간은 미황사가 붉은 노을에 잠들 때까지 계속됐다.

한편 천년 고찰 미황사는 2002년부터 템플스테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기획·진행해왔다. 괘불재·산사음악회·한문학당·참선수행 '참사람의 향기' 등 산사에서 펼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찬란한 불교문화를 시대에 환원하고 있다. (061)533-3521

가연숙 기자

방송인 김C가 전하는 태교 UCC '감성동화'

방송인 김C가 태교 UCC '감성동화' 성우로 나섰다. 태아 발달 시기를 '봄·여름·가을·겨울'로 구분하여 아름다운 사계절을 전한다.

제목에 걸맞게 일러스트와 내레이션·동화로 어울린 작품이다. 특히 더와이즈 황병원 전문의의 감수를 받아 신뢰할 수 있는 태교법이다.

임신 21~24주차가 되면 뱃속의 아기는 엄마가 보고 느끼는 색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서정적인 수채화로 제작된 그림과 색상은 태아의 감수성과 상상력, 창의력을 발달시키고 사회성과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

또한 시각적인 교육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영상에 접목해, 태아에게 사계절을 소리로 가르친다.

김C가 전하는 '봄·여름·가을·겨울'은 다양한 색이 포함된 영상과 자연의 소리로 아이와 산모의 감성을 자극한다. (02) 539-9153

가연숙 기자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전화: 서울 02)585-1141 / 부산 051)505-2434
www.twotwocom.co.kr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축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검색
四柱大典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성장 카이로 프락터 양성
교과목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클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 상 • 종교인,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맛사지사,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자 격 • 초보자 및 실직·정년 퇴직자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7월 10일 (선착순 20명)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최면으로 전생,현생,미래생 탐색 · 나를 찾는다
전생·빙의·자기 최면·치료 최면
• 진정 누가 당신을 능숙한 최면술사로 만들어 줄 것입니까?
• 수많은 교육생이 바글 거리는 교실에서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얼마 만큼의 교육 효과를 얻으시겠습니까?
• 수강비가 수백만원 해야만 고급교육 일까요?
• 훌륭한 강사 입니까?
• 최면의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최면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개강일 2008년 7 월 10일(목요일) 오후 2시
교육기간 주2회(총8회) 고급속성 과정
모집인원 선착순 20명
교육비용 50만원
교육대상 스님, 성직자, 의사, 한의사, 대체 의학인 체육지도자, 최면 관심자, 일반인
교육내용 자기최면/타인최면/기억력, 집중력 증강/우울증 해소/대인공포/성격개선/스트레스/수면장애/빙의/전생/금연/금주
◆특기 사항
1.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경비
2. 개인별 심층교육, 이론을 토대로 실기 위주의 교육
3.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 평생교육
4. 지방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무료이용



원장 우혜안 스님
사단법인 해동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웃음보살 불등거사 <5>

구성 : 김흥인



대문과 나귀와 밧줄만 지킨 하인 [백유경(百喩經)]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하인에게 분부했다. "너는 문을 잘 지키고 나귀와 밧줄을 잘 살펴라." 주인이 떠난 뒤 이웃집에서 풍물놀이가 열렸다. 하인은 풍물놀이가 보고 싶었다. 하인은 밧줄로 문을 매 나귀 등에 얹고 풍물놀이를 즐겼다. 하인이 나간 뒤 도둑이 들어 집안 재물을 모두 훔쳐 갔다. 집에 돌아온 주인은 깜짝 놀라 하인에게 물었다. "재물은 모두 어쨌느냐?" 하인은 대답했다. "어르신께서는 아까 저에게 문과 나귀와 밧줄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밖에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주인은 다시 말했다. "너를 남겨 두고 문을 지키라 한 것은 바로 재물 때문인데, 재물을 모두 잃었으니 문은 어디에 쓸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이 애욕의 종이 되는 것도 이와 같다. 부처님은 항상 '여섯 가지 감관의 문을 잘 단속하고 여섯 가지 경계에 집착하지 말며, 애욕의 밧줄을 잘 보라' 고 가르쳤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양(利養)을 탐하여 구하고, 거짓으로 청렴한 채하며 고요한 곳에 앉았어도 마음은 다섯 가지 쾌락에 탐착한다. 즉 빛깔과 소리와 냄새와 맛에 홀리고 어지럽혀 마음을 덮고 애욕의 밧줄을 묶는것은 바른 생각과 깨달음의 재물을 모두 잃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부처님의 큰 제자들

가섭구도(迦葉求道)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죽원정사(竹園精舍)편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부처님이 교화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1200 아라한 등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 전역에 퍼져나가며 불교 교세는 크게 신장됐다. 부처님 제자 중 상수제자가 마하가섭존자다. 이 삽화는 불암사판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삽화 가운데 한 장면으로, 마하가섭 존자가 스스로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것을 보고, 천신들이 내려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죽원정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장면과 마하가섭이 부처님께 제자 되기를 청하는 장면이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다.

마하가섭은 출가해서도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아는 소욕지족의 삶으로 항상 두타행(금욕의 고행)을 닦아 하늘과 인간세계의 존경을 받았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 "나의 정법을 가섭에게 부촉한다"는 유교를 남겼다. 마하가섭의 두타행으로 유명한 일화 중 문둥병 여인의 탁발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가섭존자가 탁발을 나갔다가 문둥병 여인과 마주쳤을 때, 마침 쌀죽을 한 그릇 갖고 있던 여인은 가섭존자의 인자한 모습을 보고는 "저렇게 훌륭한 분에게 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이라 생각했다. 여인은 자신의 쌀죽을 가섭존자에게 대접하려 죽을 바리때에 부었다. 그 때 바리때에 부어진 죽 속에 파리가 빠졌고, 파리를 꺼내려던 문둥병 여인의 썩은 손마디도 죽에 빠졌다. 가섭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쌀죽을 맛있게 먹었다. 이에 감동한 여인은 감사한 마음으로 큰절을 올렸다.

가섭존자는 여인의 소원을 물었다. "저는 가난하고 또 나쁜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이 몸을 벗고 다음 생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몸을 받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래지 않아 가섭존자에 대한 신심을 간직하고 죽은 문둥병 여인은 가섭존자에게 죽을 보시한 공덕으로 도솔천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 행복한 삶을 누렸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달새

달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네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요
내 가슴에 사랑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리워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다만,
내 가슴에 그리움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네 존재의 슬픔을 알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 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현대불교 제 687호 2008년 7월 9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600년된 벽조목(霹棗木)
● 양도가액 3천만원
● 벼락맞은 대추나무뿌리
● 사진 자세히 보실분
다음까페 부처골풍경소리
cafe.daum.net/jijangsw
054)383-8553
011-9585-4908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 (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 학인수시모집 : 범음,범패, 바라,나비춤
● 사찰행사 : 49재,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스님 되시렵니까?
전화 주십시요
02)584-8844
011-354-8484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2)939-3327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미얀마 사야도 명상지도
참나를 찾아가는 열린명상원
건 봉 사
뜻 있는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7월부터 합니다 / 매주 토,일)
5인 이상 단체는 수~일(4박 5일가능)
문의 033)433-3847

불화그림 배울분구함
남 · 여 20~30세
노원구 상계동 전철 4호선
당고개역 부근 화실
011-257-4601
02)931-2287

자격취득안내
◦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도심속의 통영사
(희망을 열어가는 젊은 부처들)
산사 음악회, 대중행사 전문
포교도량 (무료봉사)
◦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역8번 출구앞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고속터미널옆
선화법사 합장
02)3426-1357
010-8726-1357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부전스님 모십니다
042)282-92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 위치 : 경주
011-9562-4457

가족처럼 함께 할 공양주 보살님을 찾습니다
▷ 서울 우이동
02)990-1725

충남 천안시 광덕면 신덕리 12번지 천안공원 앞 천안사 봉안당(납골당)
동참하실분 모집
041)568-4610
010-5777-4799

간병인 구함
건강하신 할아버지 돌보시며 같이 생활 하실분 구합니다
(단, 60-65세 여자분 구합니다)
017-573-2905

비구니스님 15년 이상 염불하신 기도 잘하는 스님, 노전스님 모십니다
054)762-4269
010-3156-9797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칠곡
016-521-0003

부전스님 기도하실보살 스님될 행자 모십니다
▷ 서울
02)359-4492

서울근교 신축 사암 비구스님, 총무(女) 화주보살(女)모십니다
011-351-2993

부전스님 모십니다
▷ 양산 문수암
011-574-3303

기도스님 구합니다
(비구스님)
▷ 경남 양산시
055)375-014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 - 65대)
보시금 상담후 결정
010-3188-51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안동
054)858-2630

운전기사 모집
채마밭관리하며 운전하실 거사님 모십니다
(숙식가능자)
<충북 청주>
011-9732-8562
043)298-22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5세이하)
서울 구파발 전철역 10분거리
02)352-0572 (시연사)
011-261-0572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부산지역
(40대후반-50대중반까지)
010-2029-1903

강원도 홍천 요양원 전북 전주 포교원 운영같이 하실분, 스님(비구,비구니)신심 있으신 불자님 모심
063)247-7063
010-9046-7006

기도스님 모십니다
▷ 대구 임휴사
053)632-4844

불사 현장을 보살펴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 70만원,숙식제공)
▷ 경북 칠곡군
011-804-1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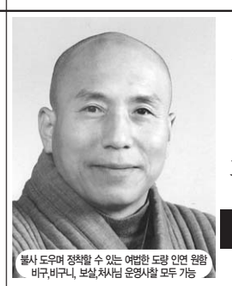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부전스님 모십니다
스님이 될 행자 모십니다
051)524-8932
010-7574-151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아미산 보현사
(내외분 환영)
011-603-8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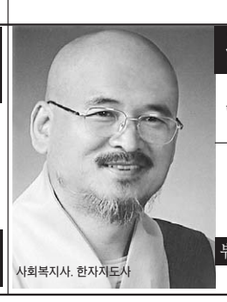
마음이 편치않으신 분들을 위해
구병시식을 집전해 드립니다
019-4949-9705
지리산 토굴에서 이산 합장

역 학 공 부
※ 공개강의 : 건강과 부동산 풍수인테리어
• 7월 17일 (18시 30분 부터 ~ 2시간. 참가비 1만원. 선착순 20명)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급반 7월 7일(월) 18:30개강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불사 도우며 정책할 수 있는 여법한 도량 인연 원함
비구 비구니, 보살,처사님 운영사찰 모두 가능

바라 · 작법무등은 원할경우에만 시연해 드리며 큰 법력으로 사물과 함께 우리말 · 한문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비구승 무진장 합장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 스님,법사님의 포교 방편최고 ◇
■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빙의(퇴마)치유,귀신을 잡아 보여줌
2.환상을 보게 하고, 온,냉의 기를 발생
3.기를 쏘아 부황으로 사혈
4.맨손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임
신통기공사 중국정부 추인 자
■ 웰빙 최고의 건강비법
1.스트레스 해소,각종 질병이 치유된다
2.기억력 상생,화생 성적 증진
3.성격이 바뀌고 비만이 치유
※ 일반 기본전수 3개월,속성전수 2개월
법회 100명이상 동참시 시범을 보여드립
사단법인 : 대한선행불교 조계종 총무원 * 사찰 입종 환영
부설: 삼삼구 불기공 총연합본부(5호선 명일역 3번출구 인근)
전화 02)426-4774, 011-9092-0533 / 팩스 02)426-5585

중풍 오십견 요통 관절통 담결림
㉮ 장기 병원치료 했으나 효과없는 각종신병환자
㉮ 스님 포교사 기치료사 코치감독단장 비법전수
㉮ 무속인 지압시술 및 신묘한 령적비법 전수
※ 중국 초능력기공사 초빙 치료기법시술 및 전수
02)584-8844 / 010-9137-1667
청계암 주지 만허 합장

풍기 정품
풍기 정품 홍삼액 골드.액기스.
레드파워(산삼배양근추출액 50ml×16병)판매



100ml×60포 (한달분)
액기스(500ml)
● 판매처 054)634-3429
● 휴대폰 011-9373-3778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 (예금주 : 박영애)
삼을 직접재배,가공하여 만들어진 양질의 홍삼만을 선별,연구개발하여 스님,불자님께는 특혜드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드립니다
유효사포닌(32종)의 성분들이 살아있는 최상의 건강식품 입니다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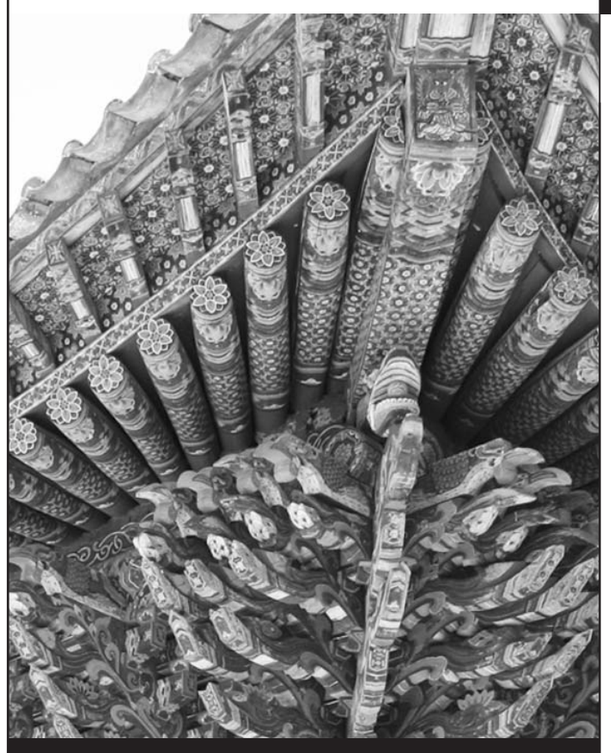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古典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과 실수가 많치만 太極四柱는 四柱감정이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다. 필자도 20여년간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려운 命理學을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재운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할것인가 실패할것인가, 시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배우자 덕이 있느냐 없느냐, 해로하느냐 이별하느냐, 궁합은 좋으냐 나쁘냐, 자식덕이 있느냐 없느냐, 관재구설수와 교통사고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승진운은 있느냐 없느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해와 달은 언제인가? 등을 확실하게 감정할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 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현재 대구에서 20기생 강의중, 수강희망자 상담환영)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 테이프13개와 敎材代 포함 : 20만원 (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대가람)안내

마이 부처바위 출현(보물급)
※ 자연석 높이 15m, 가로 50m

● 건물:법당 및 요사채 400평(6동)
● 대지:2500평 임야:12000평
● 사찰 내 유명 약수터(100년생)
● 도량 주변 칠보석 다량 매장
● 30년생 주목, 단풍나무 다수
● 심산유곡,주변 직벽암반 경관최고
● 계곡 폭 25m, 전면 300m
● 버스진입가능(12m 도접)

※ 가액 9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 ~ 3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3억

● 위치 : 서울
● 법당 : 28평
● 요사 : 38평
● 부지 : 170평
● 가액 : 10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2평
● 요사 : 25평
● 부지 : 191평
● 가액 : 7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소재
● 부지 약 500평(종교용지)
법당 25평(목조,단청)
요사 90평(2층)
산신각 7평(목조,단청)
● 가액 : 4억 2천만원(융자 3억가능)
● 특징 : 석불(20자),석탑,연못 등
● 특징 :도심인근에 위치한 도량임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
● 법당 : 40평(방3개)
● 보증금 1천만원, 월 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특징 : 번화가 도심 포교당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5820-0455/서울 010-5828-0455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교촌동
● 건평 39평(법당 35평임)
● 사용할 수있는 뒷편땅
30평정도있음
● 가액은 7천만원입니다
054)332-3961
011-9583-396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가 아파트 밀집 최요지
● 평수 : 45평
● 방2, 법당, 공양간, 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절충가
055)337-8600
011-834-85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주택지)
● 4층 건물의 3,4층(120평)
● 진신사리 봉안
※ 30여 년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상 급 안내 합니다.
● 최고의 시설, 일산상의 이유로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함
● 가액 : 총 4억 (절충가능)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도심속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역 7분)
● 평수 : 23평(2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200만원
전세 4500만원. 양도가 9000만원
010-7669-8600

포교원 안내

● 위치: 칠곡군 약목면
약목기차역 맞은편
● 건평 : 약 45평
● 2층 건물중 2층, 아주편리함
● 법당, 큰방2, 주방, 화장실, 베란다
● 보증금 1,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200만원
● 스님 LA 파견으로 급 안내함
017-217-1919
054)974-03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대지 : 300평(건물만)
도지 : 1년에 쌀 한가마
● 법당, 가사, 산신각, 구옥 2채
법당 : 와불(3m), 삼존불(관음, 약사, 지장), 미륵(160cm)
● 양도가 : 2700만원(절충가능)
010-9793-8977(달마스님)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화왕산 주령
상교산 명산 사찰터
● 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임야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4억6천(급)
017-570-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60세 이상 연락바랍니다
063)543-5551
018-427-225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강서구
● 전체 평수 100평,
법당 삼존불, 요사채 방2
● 보증금,시설비 합 2천만원,월5만원
010-6222-2624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동인천역에서 6분거리
(유동인구 多)
● 평수 : 약 80평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주차장 완비,심야 보일러
010-2892-9877

사찰(급) 안내

● 위치 : 안동 암산 유원지
테마 마을
● 대지 200여평 법당 28평
● 큰방3개, 비품 일절 양도
● 삼존불, 소불(240불)각단탱화
● 관광단지조성계획지로 주변 경관이 수려함
● 삼성각,지장보살(6m),
텃밭(80평) 시내 10분거리
주변땅으로 잔디조성
● 가액 : 1억 7천만원
054)858-9628-9
019-377-896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4445-5179

사 찰 안 내

● 충북 영동 1100만원
1년 도지 10만원
● 충남 온양 3,800만원
1년 도지 쌀2가마
● 충남 도고 6,000만원
1년 도지 50만원
● 문중땅 양도조건 권리금 입니다
● 상호 형편에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 이광고는 7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041)541-053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로변
● 법당 42평(5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호신불, 방1,주방,
샤워실(비품일체 양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최저가 답사후절충가능
●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5013-2526
010-9964-5040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진주,고성,통영,
함안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가액 : 3억(융자가능)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사 찰 안 내

● 위치 : 노원구 상계4동
당고계역 3번 출구
상가건물 2층
● 평수 : 23평
(법당,공양간,사무실)
●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 즉시법회가능,최고의 명자리
02)931-7994
011-797-6828

포교당 안내

● 위치 : 동대문 청량리 역전
현대코아 뒷편 시장 2층
● 보증금 400만원,월 20만원
● 시설비 꼭 하실분만 절충가능
010-8929-1215

조용한 수행터

● 위치 : 경남 함안군 소재
● 전 및 임야 관리지역
● 1200평 평당 8만원
● 터 작업 완료 되어있음
010-2447-115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김해재래시장 옆
● 단독 3층 : 46평
법당, 요사, 주방
● 현대식 최상급 시설
사찰 비품 일절
● 보증금 300만원, 월42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시설비 방문 후 절충가능
010-9308-7913

고찰터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 평수 : 대지430평 전 50평
임법당 25평 구가옥 25평
● 특징 : 천년고찰터 -
절뒤 문화재 5층탑
● 가액:1억9천 (절충가능)
010-5213-032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부경남
● 부지 800여평
● 대웅전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 특징 : 주위에 시끄러운 것이 없으며 아주 명당터임
● 가액 : 7억
010-3636-4413 (지장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두시지하철 2분거리
불교 도량 최적지
● 법당 25평, 요사25평, 대지 600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9798-1091
011-574-330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 평수 : 35평 3층건물중2층
법당,방2,부엌,거실(총4칸)
단청시설되어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후 절충가능
011-847-51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에서 10분거리
● 법당 1,2층 약 45평
요사채 1,2층 약 50평(현대식)
● 단청필, 전체보일러 완비,
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가액 : 2억 2천만원
(융자 1억5천만원까지 가능)
010-6298-2588
054)435-3816

도심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칠곡 아이씨 근교
● 평수 : 46평, 3층 건물 중 2층
법당, 방 3개, 인등, 원불 평생입회 봉안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주차장 완비
아파트 밀집지역, 시설비 가격절충
● 즉시 법회 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011-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
(대지 238평, 전 538평)
● 건물 : 요사채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삼성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 이상(2~3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진입
함창읍에서 2~3분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사찰터 · 다용도 (최고조건)

● 위치 :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83-1번지 영남물류기지 부근 대지 약 2860평, 평당 80만원
● 83-2번지 약 925평 평당 70만원
● 임야 8-3번지 400평 평당 10만원
● 임야 8-17번지 700평 평당 10만원
● 분할가능
011-536-6789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http://blog.naver.com/mine4you
010-6304-5998

포교당 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 도로변
● 대지 : 33평 건물 2동
● 포교당으로 적합
● 가액 : 7천만원
055)744-4879
010-8223-4879

해운대 포교당 안내
삼존불 봉안

● 위치:부산 해운대구 우2동 1088-14번지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2번 출구 앞)
● 평수 : 6층 건물 중 6층 (내부-60여평)
● 외부정원이 잔디로 잘 꾸며져 있음 (외부 30평)
● 보증금 5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직접오셔서 보시면 손색이 없습니다
010-2462-4974

사 찰 안 내

● 충북 영동 1100만원
1년 도지 10만원
● 충남 온양 3,800만원
1년 도지 쌀2가마
● 충남 도고 6,000만원
1년 도지 50만원
● 문중땅 양도조건 권리금 입니다
● 상호 형편에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 이광고는 7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041)541-0533

사 찰 중 개

● 위치 : 서울, 종로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암자 급히 양도하실분이나 구입하실분 전화주세요. 만족을 드립니다. 성불하세요.
전 국 사 찰 암 자 포 교 당 부 전 스 님 공 양 주 소 개 합 니 다

신축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 삼태산 옥녀봉 아래. 향토집 금년신축
● 앞이 확 트여 전망좋으며 조용한곳, 포장도로접
● 나무떼는방에 동파이프시공
● 연료비 대폭 절약
● 텃밭가꾸며 조용히 공부하실분
● 건평 23평, 대지+전, 답:965평
● 가액:1억3천5백만원
043)423-1101
010-6460-1316

불사중인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안금
● 임야 2만4천평 정도
● 대지 206평, 논(밭)900평
● 법당 겸 공양간,숙소(30평 임시)
● 가액은 3억으로 공사비, 땅매입비 및 건축시공비임(답사후 절충가능)
010-3157-8504
010-2055-850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 (국악문화회관 후문 건너편)
● 평수 : 90평(7층 건물중 7층 전체사용)
● 법당 : 40평(미타삼존불, 원불 200불, 인등 600개, 신중단, 영단, 연등)
● 주지실, 사무실, 상담실, 주방겸 공양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천만원(최상급, 절충가)
스님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
042)252-5450/055)944-5450
011-649-0108

멋진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령(신촌유원지 옆)
● 대지 2000평, 대웅전 단청 40평
● 요사채, 큰방4, 현대식 주방2, 목욕탕, 실내화장실, 요사채 1층 원룸 15개, 2층 원룸 15개, 다락 : 큰방 2개. 현대식 신축
● 2007년 5월 올수리 14억원
● 가액 : 4억(융자 2억있음) ● 주인직접 급 양도
011-869-8608 / 055)346-2908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43>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⑦

지관을 쌍수해야 정혜가 평등

若於坐禪時 雖爲對治心浮動故修止 而心不住 亦無法利 當試修觀 若於觀中 卽覺心神明 寂然安穩 當知宜觀 卽當用觀安心 是則略說隨便宜修止觀相 但須善約便宜修之 則心神安隱 煩惱患息 證諸法門也

앞에서는 편의를 따라 지 수행하는 측면에서 밝혔으므로 편의를 따라 관 수행하는 것에 대해 밝히겠다.

수행자가 좌선할 때 지 수행을 닦아 들뜨고 혼침에 빠지는 병마를 대치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들뜨고 안주되지 않으면 그 때엔 시험삼아 관 수행을 닦아야만 한다.

관 수행을 닦을 때에 마음과 정신이 맑고 청정하고 담적하고 안온하다는 것을 자각해서 안다면 관 수행과 서로 호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 수행으로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편의를 따라 지관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지관을 수습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훌륭한 솜씨로 편리하고 알맞은 곳에 합치하여 수행을 하면 마음과 정신이 안정되며 번뇌의 환란이 식멸하여 마하반야바라밀문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다.

四對治定中細心修止觀 所謂行者先用止觀對破麤亂 亂心旣息 卽得入定 定心細故 覺身空寂 受於快樂 或利便心發 能以細心取於偏邪之理 若不知定心 止息虛誑 必生貪著 若生貪著 執以爲實 若知虛揀不實 如愛見二煩惱不起 是爲修止 雖復修止 若心猶著愛見結業不息 爾時應當修觀 觀於定中細心 若不見定中細心 卽不執著定見 若不執著定見 則愛見煩惱業悉皆摧滅 是名修觀 此則略說對治定中細心修止觀相 分別止觀方法 並同於前 但以破定見微細之失爲異也

네 번째로 오랜 수행을 닦은 사람이 대치하는 것에 대해 밝히고 있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병통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종류의 경계는 가장 미세하여 거친 마음으로는 쉽사리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거칠고 혼란한 망상을 타파하면 들뜨고 요동하는 망상이 소멸된다. 이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선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선정 속의 마음은 미세하기만 하다. 따라서 공공적적하여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이롭고 편리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여 끝내는 선정가운데서 종횡으로 망상의 헤아림이 일어나 지견이 무더기로 일어나게 된다.

미세한 마음은 선정경계와 서로 호응하기 때문에 미세한 마음으로 산을 생각하면 즉시 산이 보이고, 미세한 마음으로 물을 생각하면 바로 물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이것을 특수하게 뛰어난 경계로 여기고 편협하고 삿된 이치를 취하여 그것을 실제라고 집착하면서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것이 선정의 마음에 머무는 한 점의 허망한 경계로서 법진의 그림자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만일 이를 실제라고 고집하면 끝내 사견의 재앙에 떨어지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 문제를 두고 능엄경에서는 "지견에 아는 마음을 수립하면 그것이 바로 무명의 근본이다"라고 하였고 또 "성인의 마음에 그친다면 훌륭한 경계이겠지만 성인이라는 견해를 일으킨다면 뭇 사견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 같은 경전의 내용은 모두가 좌선하는 사람을 훈계하는 진실한 말씀이므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만일 이 허망한 경계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료하게 안다면 탐심을 일으키지 않고, 분별마저 일으키지 않으면 견혹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탐욕의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혹의 번뇌가 일어날 곳이 없는 것이다.

견혹과 사혹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되는데, 이것이 지 수행이다.

그러나 다시 지를 닦아 망상을 정지했다 해도 자기 마음속에 허깨비 경계를 제거하지 못하고 생각 생각 집착심을 일으키면 사혹과 견혹으로 업이 맺히고 사혹과 견혹으로 맺힌 업의 번뇌가 그대로 쉬지 않는다.

수행자가 지 수행을 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관 수행을 해서 관조해야만 한다. 관조를 통해 선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미세한 마음을 돌이켜 관찰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신을 밝히고 고요한 가운데 관조를 일으키기를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 빈틈없이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간단없이 은미하게 관조하고 나면 선정 속에서 미세한 마음은 끝내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미세한 마음 가운데서 관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세간의 외도들은 약간의 선정 맛을 보면 바로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견을 일으켜 인과를 무시하며 지관수행을 통해서 대치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라고 집착하게 된다. 이는 미혹한 가운데 갑절이나 미혹한 사람이다.

미세한 선정에서 세밀하게 관찰해야 번뇌 결사를 단절하여 마음이 청정

五爲均齊定慧修止觀 行者於坐禪中因修止故 或因修觀 而入禪定 雖得入定 而無觀慧 是爲癡定 不能斷結 或觀慧微少 卽不能發起眞慧 斷諸結使 發諸法門 爾時應當修觀破析 則定慧均等 能斷結使 證諸法門 行者於坐禪時因修觀故 而心豁然開悟 智慧分明 而定心微少 心則動散 如風中燈 照物不了 不能出離生死 爾時應當復修於止 以修止故 則得定心 如密室中燈 卽能破暗 照物分明 是則略說均齊定慧二法修止觀也 行者若能如是於端身正坐之中 善用此五番修止觀意 取捨不失其宜 當知是人善修佛法 能善修故 必於一生不空過也

다섯 번째로 닦는 지관에 대해 말해보자. 번뇌를 끊지 못한 사람은 번뇌의 결사(結使)를 끊어 제거하지 못하지만 모든 법문을 증득한 사람은 즉시 원교 · 돈교의 바라밀법문을 증득하게 된다.

관찰하는 지혜가 희미하고 적은 사람은 지 수행만 있고 관 수행이 없으며 선정이 지혜보다 많다. 반대로 선정의 마음이 희미하고 적은 사람은 관 수행만 있고 지 수행이 없어 지혜가 선정보다 많다.

선정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이것은 바짝 마른 선정이며, 지혜만 있고 선정이 없으면 이것 역시 미친 지혜이다. 번뇌 결사를 끊어 제거하고 모든 법문을 증득하려 한다면 지관을 쌍으로 일제히 수행하지 않으면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지 못하다.

수행지에 있어서는 지관이라고 부르고, 깨달음에 있어서는 정혜라고 한다. 지관 이라는 두 가지 법은 새의 두 날개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불리하면 양쪽이 다 손상되고 합하면 쌍으로 아름답다. 따라서 밀실 속의 등불로서 비유하여 지관을 평등하게 닦아야만 생사고해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지관을 쌍수하여 정혜가 평등한 사람은 어떠한 경지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한 구절의 아미타불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미타는 번역하면 시간적으로는 무량수불이고, 공간적으로는 무량광불이다. 여기에서 광명은 지혜에 해당되고, 수명은 선정에 해당된다.

광명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고 오묘한 지관이다. 가령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한 구절을 염불할 때에 염불하는 마음과 염불대상으로 떠오른 부처님을 끝내 얻지 못하는 것은 지 수행에 해당되고, 염불하는 마음과 대상으로 떠오른 부처님이 분명하게 떠오른 것은 관 수행에 해당된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역력 분명할 때에 그 자체를 끝내 얻지 못하며, 그 자체를 얻지 못할 때가 원래 역력 분명하여 그 자리가 지에 상즉하고 관에 상즉하며, 관에 상즉하고 지에 상즉하여 지와 관이 평등하고 정혜가 둘이 아닌 무량광수불이 된다는 점이다.

수행자가 훌륭하게 염불법문으로써 지관수행을 하여 일생을 부질없이 보내지 않는다면 현재나 사후에 결정코 성불하게 될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삼성(三性)의 의미

유식학에서는 '식'에는 세 가지 성질이 있으며, 동시에 세 가지 성질은 없다는 학설이 있습니다[삼유성삼무성(三有性三無性)].

삼성(三性)이란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의타기성(依他起性), 원성실성(圓成實性)을 말합니다.

우선 변계소집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변계소집성은 능변계(能遍計), 소변계(所遍計), 변계소집(遍計所執) 등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첫 번째 능변계는 제육의식의 활동에 국한되는데, 변계라는 두 글자로써 다른 심식활동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변(遍)은 두루 보편하다는 뜻이며 계(計)는 헤아린다는 의미인데, 제육의식은 다른 식과는 달리 일체법을 시간과 공간, 그 어디에도 장애함이 없이 두루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변계는 의타기성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일체의 심왕과 심소엔 각각 견상이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육능변계식의 인식대상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견상이분이 상대동시 의존관계인 의타기성으로 일어나면 제육능변계식의 인식대상경인 소변계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변계소집은 의타기성인 소변계의 허상을 허망하게 집착함으로써 실아실법으로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능변계식이 소변계식에서 자체의 허망한 집착심을 따라 잘못 오해를 일으키는 심리상태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인식대상인 견상이분, 즉 의타기성에 있어서 그것은 인연으로 일어난 허깨비임을 여실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변계소집성은 단지 제육능변계심으로 인식대상인 소변계법, 즉 견상이분의타기성에 있어서 우리의 심식이 활동하는 인연으로 일어난 허깨비임을 여실하게 모른 채 잘못 오해를 일으킨 모습입니다. 즉 실아가 아닌 견분(見分)에서 실아로 헤아리고 실법이 아닌 상분(相分)에서 그것을 실법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착대상인 아법상을 소집(所執)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아법은 우리의 심식활동의 모습인 견상이분의 작용을 떠나선 따로의 모습이 본래 없다[情有理無]는 것이 유식학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갑자기 목전에 나타난 나뭇등걸을 사람인양 잘못 착각을 일으켰을 경우, 착각을 일으킨 마음이 능변계이고, 나ant등걸이 소변계이며, 사람은 대상사물을 굳게 집착하는 변계소집성에 해당됩니다.

■정리=張如舟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흡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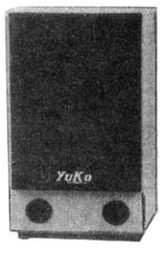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상,석탑,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대한명인(06-122호)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노동부장관 표창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우수한 생태자원 풍부

(101) 설악산 신흥사

MAB(Man And the Biosphere)는 '인간과 생물권'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국제적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MAB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는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뛰어난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세계 500여 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설악산이 처음으로 지정받았다.

MAB는 단순한 생태계 보전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 즉, 생태와 문화의 지속가능한 관계 유지에 있다. 따라서 설악산의 자연과 그 산중에서 싹이 튼 불교문화와의 지속가능한 관계가 설악산 MAB의 골자이다.

설악산에는 유수한 천년가람들이 골골이 깃들어 있다. 설악산 본사인 신흥사의 전신은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 율사가 창건했다는 향성사(香城寺)이다. 옛 터에 삼층석탑이 홀로 남아 옛 일을 전해주고 있다.

반달곰 동상이 인상적인 설악동 소공원 바깥으로 우회차도가 있고, 그 찻길 옆에 여러 기의 부도가 모셔져 있지만, 주된 동선(動線)에서 멀리 밀려나 있어서 찾는 이가 없다. 원래 일주문 안에 있었으나, 청동대불상이 들어서면서 제자리에서 쫓겨나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되어 버렸다.

청동대불상을 조성할 때 말들이 많았다. 예나 지금이나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설악산 MAB를 위하여 사찰의 대규모 불사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자제되어야 한다고.

소공원을 지나면 왼쪽에서 비선대 계곡물이 내려오고, 오른쪽에서는 내원암 계곡물이 내려온다. 신흥사 앞에서 합류한 두 계곡물은 '쌍천'이라는 이름을 달고 15km 떨어진 물치에서 동해로 들어간다.

쌍천은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하류까지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소공원 아래 구간에서는 몇 종의 담수어류가 나타나는데, 신흥사 주변과 비선대 계곡과 내원암 계곡 등 상류엔 한 종류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도에 나온 조사보고서에도 마찬가지였다.

내원암 계곡에 걸린 세심교 다리를 건너면 신흥사 사역이다. 일주문이 외문이라면 사천왕문은 신흥사의 내문이다. 보제루 누하를 지나면 중정을 가운데 두고 극락보전, 명부전, 삼성각 등이 윗단에 자리하고, 아랫단에 운적당, 청하당, 적묵당, 요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경내 식생조경은 외래종 조경수 대신 박태기, 딱총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등 우리 고유 꽃나무들을 심어서 수더분한 느낌을 준다. 대개의 사찰이 경내에 느티나무를 두고 있는 데 비해 신흥사는 아름드리 물푸레나무들이 자리하고 있다.

물푸레나무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예전에 바위를 자를 때 물푸레나무를 썼다고 한다. 바위의 결을 따라 작은 홈을 파고 그 안에 물이 잘 스며드는 물푸레나무 토막을 박고 뜨거운 물을 계속 부으면 나무가 팽창하면서 바위가 갈라진다고 한다.


동고비어린새.


물푸레나무.

곤충들은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따뜻하고 밝은 곳을 좋아한다. 따라서 출현빈도에 있어서 일사량이 많은 사찰 경내외가 더 높다. 경내에서 발견된 제일줄나비는 북방계 나비로, 줄나비 가운데는 비교적 대형에 속한다. 꽃꿀 외에도 짐승의 배설물이나 참나무류의 수액에도 잘 모인다.

신흥사 주변에서 발견된 양서류는 청개구리,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등이 있다. 북방산개구리는 진한 갈색 몸통에 흑갈색의 불규칙한 무늬가 있다. 주둥이 끝은 둥글고, 고막은 둥글고 뚜렷하다. 특정 야생동물 목록집에 올라 있는 보호종이다. 신흥사 경내외는 새들의 도솔천이다. 지난봄에 딱새가 극락보전 보머리에 둥지를 틀더니 벌써 어린 새끼들이 이소를 해서 경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다. 참새들도 지붕기와와 연함 틈 사이에 둥지를 틀고 어린 새끼들을 길러냈다. 담장 밖에는 어린 동고비가 비행 연습을 하고 있다.

신흥사를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서 관찰된 여름철새로는 알락할미새, 노랑할미새, 흰배지빠귀, 파랑새, 찌르레기, 쇠유리새 등이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설악을 찾는 관광객들은 산행로가 비교적 짧고 순탄한 비선대 코스, 울산바위 코스, 비룡폭포 코스를 찾는다. 그 중 비선대 코스와 울산바위 코스가 신흥사를 기점으로 한다.

신흥사에서 오른쪽 계곡을 따라 비선대까지는 3km에 가까운 숲길이 나 있다. 이 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개설해놓은 자연탐방로이기도 하다.

교목층에는 졸참나무, 아교목층에는 쪽동백나무, 임상에는 조릿대가 우점으로 나타난다. 참나무로는 신갈나무와 굴참나무가 많다. 키 작은 나무로는 개박달나무를 비롯해서 작살나무, 때죽나무, 누리장나무, 노린재나무, 고추나무 등이 숲길 주변에 많이 보인다.


개박달나무.


설악산 비선대 가는 숲길.

개박달나무는 북방계 식물로, 설악산 곳곳에서 쉽게 만나는 나무이다. 키가 5m 가량 자라는 중간키 나무로, 자작나무속에 들어서 잎사귀가 작다. 나무 껍질이 회색으로 조각조각 벗겨지는 특징이 있어서 찾기 쉬운 나무이다. 박달나무처럼 목질이 단단하여 도구재와 장식재로 쓴다.

설악산의 소나무는 수관에 따라 동북형과 금강형으로 크게 나눠진다. 동북형 소나무는 윗부분에서 줄기가 우산살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가까이로는 일주문과 부도전 주변의 소나무가 동북형 소나무의 전형을 보여준다.

금강송은 눈이 많이 오는 영동쪽에서 많이 자라는데, 줄기는 곧게 자라고 가지는 가늘고 짧은 특징이 있다. 비선대로 가는 숲길 좌우에도 이따금 나타나 눈맛을 즐겁게 해주고, 계조암으로 가는 내원암골 물가에도 여러 그루가 이따금 보인다.


북방산개구리.


솔체꽃.

내원암은 자장 율사가 세운 향성사가 화재로 소실된 지 3년 후 의상 대사가 '능인암'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지었다고 전한다.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겨울이면 가끔 멧돼지가 내려온다고 한다. 설악산에는 반달곰, 산양, 사향노루 등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이 살고 있으나, 신흥사 주변에 출현하는 포유류로는 멧돼지가 가장 큰 동물이다.

계조암에 이르는 동안 두 곳에 식당촌과 매점이 있었다. 파라솔에다 나무탁자까지 차려놓고 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학여행단과 단체여행객들을 배려한 편의시설이라지만, 술까지 파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내원암을 지나면서 경사가 점차 가팔라지고 돌과 바위들이 많아진다. 마지막 식당촌에 이르면 우람한 울산바위가 하늘 꼭대기에 솟아 있다. 울산바위는 공룡능선과 용아장성 등 설악산의 지형과 지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암절벽이다.

암산에서는 지대가 높을수록 표토(表土)가 얕고, 토사유출이 많다. 특히 설악산체를 이루는 화강암은 석영, 장석, 운모가 결합된 암석으로, 물의 작용으로 그 구성요소들이 입상(粒狀)으로 서로 분리되어 토사를 많이 만들게 된다.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는 토사유출이 심해서 식물들이 살아가는 데 여간 힘들지 않다.

우리나라 최초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신흥사 기점 비선대·울산바위 코스 탐방객 최다

이 구간의 초본으로는 그늘사초가 우점종이다. 장마철에는 꽃들도 주춤하여 꽃봉오리를 잘 열지 않는다. 성급한 솔체꽃 몇 개체가 꽃봉오리를 열었고, 물가의 부처꽃도 몇 개체가 꽃잎을 열었다.

식물을 보면 그 산의 생태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특산종인 솔체꽃은 대개 산이 깊고 산의 생태계가 비교적 튼실한 곳에서 관찰된다. 줄기는 70cm 안팎으로 곧추서서 자라고, 꽃은 하늘색이며, 가지와 줄기 끝에 달린다.

설악산을 찾는 탐방객 숫자는 연 400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탐방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코스는 신흥사에서 계조암에 이르는 울산바위 코스이다. 초입은 시멘트 길, 나머지는 돌길이다.

계조암으로 가는 숲길은 비선대 코스처럼 평탄하지는 않지만, 소나무가 간간이 섞인 혼효림 숲길이다. 설악산에는 식물구계상 특이식물들이 많이 나타난다. 북방인자로는 눈측백, 분비나무, 눈잣나무, 바람꽃, 솔나리, 만주송이풀, 노랑만병초 등이 있으나, 해발 1500m 이상 능선과 산록에서 나타난다.

남방인자로서 발견된 까치박달, 다릅나무, 음나무, 쪽동백나무, 때죽나무 등은 비선대 코스와 계조암 코스에서도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신흥사 지역은 해발 500m 이하로 지대가 낮고, 바다가 가까워 따뜻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남방계 식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계조암은 한자로 '繼祖庵'이라고 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름에 걸맞게 자장 율사가 창건한 후로 의상, 원효 등 뛰어난 조사스님들이 대를 이어 수행한 곳이다. 흔들바위 주변에는 천변(川邊)에서나 볼 수 있는 늙은 왕버드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계조암 일대는 형국상 물이 모임을 말해주고 있다. 식생학적으로 왕버들은 수기(水氣)를 가까이하는 나무이다. 옛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땅속의 지하수 체계를 짚어보았다. 아마 자장 율사도 이곳에 왕버들이 있음을 보고 겨울에 물이 마르지 않을 것임을 예지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왕버들과 이웃해 소태나무도 바위에 기대어 서 있다. 쓴맛을 흔히 '소태맛'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나무가 줄기에서 쓴맛이 나는 소태나무이다. 황록색 꽃은 이미 지고 보이지 않는다.

가을에 빨간 열매가 달린다. 계조암을 지나 울산바위 정상까지는 1km 거리이다. 절반은 숲길이지만, 나머지 구간은 철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간다. 정상에 오르면 동해 바다가 발아래 보이고 대청봉도 멀지 않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운 송 업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캠페인 PR]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일체제불의 마음 자체가 바로 내 한마음 속에서 들고 난다!



그림 · 최주현

마산 법회를 위해서 큰스님께서 아주 극치의 설법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교연합회 총무부장 스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제자라면 너 나를 분별하지 말고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어떠한 문제를 막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기독교나 가톨릭교는 단결이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지를 못해서 앞으로는 좀 더 잘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잘 아셔야 됩니다. 불(佛)이라는 것은 곤충,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근본을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로 전달을 하지만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돌아갑니다. 무전통신 또는 통신으로 전달을 하고 돌아가고요. 이렇게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찰나의 이 진리를 볼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에 전달과 전달을 하는 것을 교(敎)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란 그렇게 미묘하고 광대하고 어느 곳에도 걸림이 없는 겁니다. 어느 종교라도 불교 안에 들어 있지 불교 바깥에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 깎고 스님 노릇 하는 사람들만 불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일체 만물만생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바로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도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등 동물로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나가 다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인해서 바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각자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수화풍으로 뭉쳐져서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로써 모두…, 지금 전력도 물에서 얻죠? 지수화풍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리, 주어져 있다는 사실, 바로 자기가 자기를 안다면 천차만별의 모든 용도에 따라서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마음의 근본과 마음을 내는 거와 육체가 움죽거리는 삼합이 하나로써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써 육체를 다스리면서 또 마음은 마음을 내게 할 수 있는 근본과 더불어 삼합이 한데 합쳐서 찰나에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그걸 주인공이라고 이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도 이름이요 자아도 이름이요 불성도 이름이요 주인공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아닌 이름이라면 정말 그 길을 손살피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기 이전 그 자체가 바로 나의 마음의 근본이라고 할까요? 한마음의 근본! 영혼의 근본이라고도 하죠. 즉 뿌리 말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자기 뿌리. 나무가 뿌리로 인해서 모든 영양을 흡수해서 푸르게 살고 있듯이 여러분도 영혼의 근본 뿌리로부터 영양을 섭취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기 이전 그 자체, 영혼의 근본이 자기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차원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겠죠. 차원에 따라서 모습을 들고 나오게끔 형성시키는 것도 자기의 그릇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의 자기가 영혼의 근본으로서 자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지금은 정자 난자라고 그러죠? 자기 그릇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같은 그릇의 한 부부, 즉 인간의 부부라든가 개, 짐승의 부부라든가 곤충의 부부라든가 어떠한 부부에게 들어가서 자기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형성시켜서 나오는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붙어 돌아가는 게 있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영혼은 근본이 아닙니다. 영혼은 바로 업식에 의해서 또 그림자처럼 붙어서 형성이 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올 때 벌써 몸에 결부가 돼서 나오죠. 이게 생각하면 아주 복잡합니다만 복잡하더라도 잘 들어 보세요. 그렇지만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탄생을 했으니 이 몸뚱이는 그 업식의 집합소란 말입니다. 몸뚱이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아주 어리석죠. 몸뚱이는 마음의 심부름꾼이자 관리인이자 바로 자기 자생중생들이 있는 집합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주어지는 거니까 누구 탓을 할 것 없고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 업식 속에서 뭐든 자기가 한 대로, 즉 말하자면 세균성이나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유전성, 이 모두가 합쳐져서 차례차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죠. 인간에게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인간의 컴퓨터는 오신통으로 인해서 자동적인 컴퓨터가 됩니다. 오신통이란 자기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고 그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인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입력이 돼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업식이란 말입니다. 업식에 의해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만 과거가 아니라 어저께도 과거요 아까도 과거요 한 시간 전도 과거요 일 초 전도 과거란 말입니다.

몸속에 자생중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한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일체제불의 마음 자체가 바로 내 한마음 속에서 들고 난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위를 받들고, 아래로는 자기 자생중생들을 다스려서 제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스려서 제도를 안 하면 항상 번뇌 망상과 모든 것에 끄달리게 되니까 제도를 해서 그 끄달리는 굴레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바로 상대가 있는 거고 세상이 벌어졌고 우주가 있는 거고, 우리가 모두 불교를 숭상하게도 됐다 이 소립니다.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부터 알아야 하고, 먼저 나부터 믿어야 하고, 먼저 나부터 발견해서 자기의, 즉 이전 부(父)와 현재 자(子)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만이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관습이나 업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너희 마음대로 쓰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렇게 하질 못해요. 아니, 내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해요.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중생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면 부처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처라는 이름은 어떤 개별적인 하나를 세워 놓고 부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일체제불 속에 일체 중생이 들어 있고 일체 중생 속에 일체제불이 들어 있다 이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한마음이라고 일컫는 것이고 그 한마음조차 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부모자식지간이나 형제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식이 잘못했다, 자식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말로다가 몸을 붙들려고 한다면 절대로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어야만 절대적으로 둘이 아니게 되고,

☞26면으로 계속

발행 한 주만에 재판 인쇄

"자애로운 스승, 일타 대종사와의 인연
해인사 장경각에서 108만배 기도 성취
2천번 넘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 방방곡곡 설법
제주 약천사 창건
단양 도락산 광덕사 백만불전 건립불사"

제주 약천사 혜인 스님의 신심, 원력이야기

신심, 원력



신심 | 239P 정가 10,000원 |
원력 | 285P 정가 10,000원 |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02)2198-5151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좌)_ 혜인 선사가 평소에 실천궁행했던 경험들을 책으로 펴냈다. 거기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부대중을 향하여 고구정령 토설했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로 짜여 있다.
무비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_ 사람들을 그토록 감동시키던 그 법문이 이제 글로 화하고 책으로 엮어져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고은(시인)_ 장엄한지고 여기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쉬운 길라잡이를 만나 훤히 트였구나. 이 길 따라 가고 가면 되는구나.

전 언론이 격찬, 격찬 !!!

한국일보_ 오척 단구 어디에서 그렇게 큰 힘이 솟아났을까. 책에는 그 고행의 과정이 별다른 자랑이 아니라는 듯 소개되어 있다. 경향신문_ 책에는 스님의 신심과 원력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스님이 법문 내용을 토대로 쓴 글들이다. 그의 법문은 유쾌하면서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문으로 유명하다. 매일경제신문_ 혜인 스님 법문이 시작되면 불자들은 웃음과 감동이 번갈아 교차한다.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번에 책을 한꺼번에 두 권을 낸 것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한국경제신문_ 불교계에서 '포교제일의 부루나 존자'로 불리는 그가 두 권의 책을 한꺼번에 펴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다 보면 108배를 넘어 140배,150배가 된다고 한다. 세계일보_ 그가 펴낸 수행에세이에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신심과 효심, 용기를 불끈불끈 솟게 한다. 때론 배꼽을 잡게하는 솔직한 이야기도 쏟아져 나온다. 또한 인과의 진리가 담겨 있어 현대인의 잃어버린 가치관을 되찾는 데에도 친절한 길 안내가 돼준다. 국제신문_ 혜인 스님은 108만 배 이후 삶에 큰 변화를 느끼면서 설법 잘하는 법사로 통하고 있다. 감동을 주는 스님의 법문이 알려지면서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전국과 세계 곳곳을 다니며 초청법문을 한다. 불교신문_ 왜 책 제목이 신심과 원력인가. 스님은 이렇게 풀이했다. "신심은 불심(佛心)이요 원력은 보살의 마음입니다." 스님이 책을 발간한 이 유는 하나다.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기 위해서다. 현대불교신문_ 혜인 스님이 그간 걸어온 수행의 길에서 스스로 지켜 온 신심의 근거와 그 기운의 불가사의함이 페이지마다 녹아있다. 법보신문_ 책은 법문의 형식을 빌었지만 혜인 스님의 수행의 향기를 진하게 담고 있다. 서문을 장식한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따라가 볼 일이다.

buddhanews.com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고 산다면 부처!

☞25면에서 계속

둘이 아닌 불이 들어올 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같이 둘이 아니게 착하게 됨으로써 바로 물리가 터지고 마음의 발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식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어야 육체가 따라오지, 마음으로 붙들지 않고 말로 다가 이놈 저놈 하고서 욕을 아무리 해 봤던들 더욱더 차게만 느껴지고 더욱더 멀어만지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위없는 가르침이고 진실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여여하게 깨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신 밥 먹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네들이 하는 염불을 들어 보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하죠? 이 다섯 가지를 잘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아주 그지없이 깨칠 것입니다.

첫째, 계향이니 말입니다, 계향이라고 해서 계를, 280계나 350계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는데 왜 꼭 그렇게만 지켜야 합니까. 만약에 계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단 십계도 못 지킵니다. 단 오계도 지키기 어렵죠. 그런데 첫째 계향이라고 했으니까 일체를 내 탓으로 돌리고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처음부터 기초가 잘되어야 집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부처라는 뜻도 되죠. 그러나 이게 처음부터 직선으로 들어가야지 만약에 잘 지키는 것만 계라고 가르친다면 이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계향이니, 내 탓으로 돌리고 또는 부처님께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은사 스님에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도 절대 안 된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자기 탓으로 돌린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화목을 가져오죠, 미움이 없어지죠, 증오가 없어지죠. 그렇게 하니까 사형 사제들이 모두 화목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한 형제들 간에, 부모자식지간에도 화목을 가져온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향 아닌 계향을 지킨다면, 돌아가는 용도에 따라서 일체 모든 것을 '너만이,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에다가 놓았을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향이니, 이것은 물질세계와 내면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기에 물질세계고 나를 다스리는 자가 있기에 바로 내면세계다 이겁니다. 내면세계와 물질세계가 둘이 아닌 까닭에 내가 있으니까 내 내면에 선을 세워 놓고, 즉 주인공을 세워 놓으란 말입니다. 마음을 내는 것과 몸이 움죽거리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내게 하는 놈, 이 삼위일체가 같이 합동으로 돼서 찰나에 돌아가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가 자기 껍데기다 아니다 할 것도 없이 주인공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너만이 이끌어 갈 수가 있고, 너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병고도 네 몸이니까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는 것도 너뿐이다!' 어떠한 상대가 나를 때리고 찢고 찍고 정신을 뺏어 먹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둘 아닌 까닭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거는 너밖에 없다!' 하고 놔 버린다면, 바로 그것이 정향이자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패기를 잃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그렇게 귀하고도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정향' 할 때에 우리가 문을 찾아서 다니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광대합니다.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고 우주 밖에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건 문을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고, 벽도 봇장도 우주도 대기권도, 땅속도 물속도 물론 여지없이 통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선을 세워 놓고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할 때 그 말이 한데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바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투는 까닭입니다.

또 '혜향'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둘로 보지 않는, 바로 지켜보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밝게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혜향입니다. 둘로 보지 않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실험하는 마음, 체험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혜향입니다. 매사 일체 만법을 움죽거리는 것을 어떤 놈이 하고 있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말입니다. 잘한다는 데서 끄달리고 못한다는 데서 끄달리고 회개다 해서 끄달리고, 이거는 뭐 끄달리는 데 아주 난장판이 돼 있어요.

'혜향' 했으니 다음에 해탈향이 있죠. 만물만생의 무명 굴레에서 아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벗어나서 밝은 마음으로 여여하게 다스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해탈향입니다. 외부의 모든 중생들이나 내면의 자생중생들이 바로 무명에서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굴레에서 벗어나서 밝게 다스리고 여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향에서부터 잘해 나가신다면 계향은 정향에 하나가 되고, 혜향이 잘되면 정향에 또 하나가 되고, 정향과 해탈향, 해탈지견향도 모두가, 다섯 가지가 모두 하나의 정향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해탈지견향, 그것은 우주 일체 만물만생을 다 밝게 보고 보살피며 바로 걸림 없이 여여하고 구족하게 다스리면서, 밝게 조건 없는 자비로써 많은 중생들을, 모든 일체 만물만생들을 응신으로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죽은 중생이나 산 중생이나, 보이지 않는 중생이나 보이는 중생이나, 말이 있는 중생이나 말이 없는 중생이나 모든 중생들에게 조건 없는 자비로써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투는 까닭입니다. 천백억이다 함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을 잘 받아들이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내 몸 안의 자생중생들을 다스려서 한마음에 나라는 것이 없다면…, 즉 말하자면 여러분의 자생중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생명체들이 그렇게 많은데, 의식이 그렇게 많은데 한 부분 부분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작용을 하는데, 어떤 거 작용을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몸뚱이 하나가 여러분인 줄 알지만 여러분 몸뚱이 속에 정말 천백억이라는, 아니 천차만별의 생명과 모습과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의식 하나하나가 바로 나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몸 안에 들어 있는 거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한테서 자기가,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는 거와 같습니다.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죠.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는 것뿐이죠. 그래서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업식이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돌려 놓는다면, 앞서 입력됐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 것을 나오는 데다 되입력을 한다면 과거에 입력됐던 게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스려서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되돌려 놓으란 말입니다. 모든 걸 그놈이 하는 거니까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죽든 살든 그놈이 하는 겁니다. 죽어서 다시 형성을 시켜도 그놈이 하는 거, 또 죽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껍데길 벗겨 버리는 것도 그놈이 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마땅히 '내가 내가 아니구나! 나와 더불어 같이 있는 부처는 중생 속에 들어 있는 것이요, 중생 속에는 부처가 들어 있다. 모두가, 시발점도 종점도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셔야죠. 타는 것도 내리는 것도, 시발점도 종점도 따로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 정신계와 물질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은 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했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 모두가 동심으로서 모든 걸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동심으로서 동참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이 바로 자성부처를 상봉해서 잘 안다면 이 세상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근본이 내 마음의 근본이요, 이 세상 사바세계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가설이 됐다 이 소립니다. 가설이 돼서 돌아가니까 남이 모른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우주간 법계에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일체제불의 마음이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요만큼이나 에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만큼이나 어찌 거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끼면 빼고 뺐으면 끼고 이러지 마시고 좀 지혜롭게 물리가 터지면 정말로 남을 위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지혜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러한 것도 지혜롭게 써야 된다 이겁니다. 싸움을 붙이거나 남을 나쁘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람 사는 바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해 나가는 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여보, 당신 시장하지 않았소?"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 주고, 그리고 주인공에다가 '저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닌데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맡긴다면 화목을 가져오고 그 마음도 밝아져서 둘이 아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아주 자비로써 가정이 화목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중 박수)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데, 지금은 부부가 모두 나가서 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여러 군데를 다녀 봤지만 부부가 모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집을 비워 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와서 자기네들이 꺼내 먹고 자기네들이 그냥 놀러 나가고 자기네들이 또 들어와서 엉망으로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쁜 친구도 사귀게 되고 또는 자기대로 나가서 나쁜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 줬죠. 나가더라도 좀 큼직하게 글씨를 써서 냉장고 앞에 붙여 놓아라. 뭐라고 쓰느냐 하면 "아무개 아무개야, 너희들 사랑해! 여기다 너희들 좋아하는 것 해서 넣어 놓았으니까 꺼내 먹어.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 줘. 참으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같이 살려니까 어쩔 수 없잖아. 너희들도 협조해 줘." 하고 써서 뽀뽀도 거기다 좀 해서 냉장고에다 붙여 놓으면 애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말입니다, 마음에서 감동을 해서 절대로 나가서 나쁜 짓을 안 하게 됩니다. 나쁜 아이들하고 끄달리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들하고 화목해집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겉으로만, 돈만 주고 음식만 잘해 주면 그 모두가 사랑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란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사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모두가 화목해지고 엄마 아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면서, 엄마가 들어오거나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엄마!" 하고 부르고 야단법석이 나고 아주 착실해지죠. 그렇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한 분들은 다들 되찾았어요. 갈라섰던 자손들하고도, 부모 자식 사이에 갈라지고 부부 사이에 갈라졌던 분들이 다 화목하게 사랑을 하게 됐더라 이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미묘한지 여러분이 실험해 보시면 바로 체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속속들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까닭에 불교라는 자체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 호에 이어서)

먼저 나부터 알아야하고, 나부터 믿어야 하고,

나부터 발견해서 즉, 이전 부(父)와 현재 자(子)가 둘 아니게 상봉을 해야

※위 법문은 1993년 7월 24일 마산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 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82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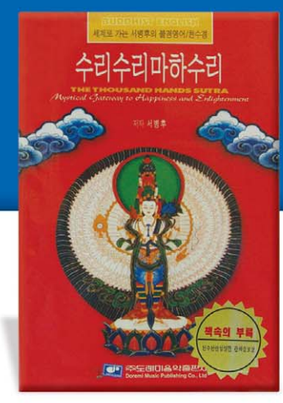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국민의 성숙도와 폭력시위

'아름다움'의 어원을 '앎' 즉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알고 있는 것 '다움'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나온다는 해석일 것이다. 이런 어원해석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 있으니 올바른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그러나 전혀 설득력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 낯선 것을 보면 일단 불안감과 함께 거부감을 보인다. 인류가 처음 낯선 다른 인종을 보았을 때 그들을 괴물로 보지 않았던가. 해방 후 한국인이 처음 보게 된 '양코배기'가 그렇고 '니그로'가 그랬다. 괴물 같았던 그 '니그로'도 이젠 세계적으로 'Black is Beautiful'로 통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긍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바깥쪽에 존재하는 것을 처음부터 아름답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문명, 문화, 관습, 과학이론, 이데올로기, 의식세계의 변화나 진화 역시 처음은 모두 낯선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 모든 낯선 것들은 우리의 경험 속으로 녹아들면서 차츰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한 달 넘어 밤마다 서울 중심가를 가득 메웠던 촛불시위도 우리에게 낯선 것 가운데 하나였다.

사회적 현장에 처음 촛불이 상징성을 드러낸 것은 물론 서구사회다. 그들은 여러 만행의 현장에 촛불을 켜 말없이 만행을 규탄하고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 촛불이 한국에 들어와 보다 강력한 메시지 전달 도구로 진화했다. 세계인의 눈들도 이 경이로운 현상을 보며 놀라워하고 있다. 한국인들도 이를 두고 의견과 견해들이 분분했다. 어떤 이는 혼란하고 불안한 시선으로 또 어떤 이들은 희망적인 시선으로….

변화의 과정에 혼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10년 넘게 '변화와 개혁'이라는 구호가 한국사회 중심에 있으면서 혼란 또한 계속되고 있음을 보지 않았는가.

그 혼란의 한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그 수준을 높여가야 할 대중(大衆)이라는 존재가 있다. 대부분 이성 아닌 감정이 중심에 놓이게 되는 대중도 성숙의 단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성숙 이전의 대중은 선동이나 부추김에 휩쓸리기 쉽고 이런저런 슬로건에 도취되어 정신적 좀비 상태가 되기 쉽다. 인류 역사 이래 교묘한 선전 선동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으며 그 때마다 대중의 역할은 때로는 현명하게 때로는 어리석은 우중(愚衆)의 역할을 해왔다. 대중이 시대에 등장한 슬로건을 가려 평가할 줄 알게 된 현명했던 시절의 역사는 발전했고, 좀비 같은 우중이 활개 쳤을 때 역사는 퇴보했다.

대중이 성숙하려면 주어진 슬로건을 스스로 검증할 줄 알아야 한다.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리고 놀랍게도 감성적인 청소년들이 대거 참가했던 촛불시위를 대중 메시지 전달의 새로운 표현으로, 그리고 이것이 폭력화 되지 않는 이상, 희망적인 시선으로 보아 넘겨야 할 것이다.

문제는 촛불시위에 뒤따른 각 분야 이익 집단들이 참가하는 폭력시위다.

촛불문화제가 시위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면 폭력시위는 지난 세기의 낡은 선동으로 한 때 재미 봤던 일부집단의 구태에 다름 아니다.

인도 땅, 2500여 년 전, 코살라 국이 부처님의 나라 카필라로 쳐 들어오고 있을 때 부처님은 저들이 오는 길에 고요히 앉아 그들을 기다렸다. 단지 고요히 앉아있던 부처님 모습으로 하여 전쟁은 두 번이나 미루어졌다.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인도에서 싹틀 수 있었던 배경이었을 것이다.

지금 한국 국민의 성숙도로 보아도 폭력시위는 이미 청산되어 있어야 마땅한 행위다.

"모두 침착해! 침착해야 산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71 불 속에서 살아남기

침착해야 산다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었죠." 김씨는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오싹하다. 김씨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다. 어느 날 현장사무실 밖 마당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 안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보니 커다란 유리창으로 보이는 사무실 안에서 불이 붙고 있지 않은가. 안에는 직원들이 몇 명 있었다.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문 쪽으로 움직였다. 그 순간이었다. 커다란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불길과 함께 마당 밖으로 튀어나왔다. 조금만 늦었으면 김씨는 그 불붙은 유리창을 뒤집어 쓸 뻔하였다. 그러나 문 쪽으로 갔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 불과 몇 초 사이, 직원들을 구하려고 움직인 것이 위험으로부터 그를 구한 셈이었다.

와락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들은 이리저리 허둥대며 불을 끄려 하고 있었다. 김씨는 "정신 차려! 모두 침착해! 침착해야 산다!" 하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다행히 직원들은 김씨의 외침에 일순 표정이 바뀌며 차분해졌다. 그런데 화학약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불이 퍽퍽 붙으면서 번져갔다. 김씨는 문쪽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올렸는데 어찌된 까닭인지 핀이 빠지지를 않았다. 안간힘을 써도 안 되어 포기하고 소화기를 바닥에 내던져버렸다. 점점 위험해져 직원들은 밖으로 빠져나갔다. 김씨도 일단 밖으로 나가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사무실 안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직원이었다. 그는 나오려고 작은 방 문을 열었다가 불길이 안으로 솟구치자 기겁을 하고 얼른 문을 다시 닫아버렸다. 그 문 주위는 온통 불길이어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있으면 김씨도 위험했다. 살려면 밖으로 나가야 했다.

혼자 살 수는 없다

"그래도 그 순간 저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이다, 그를 버릴 수는 없다. 같이 타 죽더라도 그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기기들을 닥치는 대로 불 위에 던졌지만 불길은 잡히질 않았다. 곧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불을 끌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가슴이 불에 덴 것보다 더 아팠다. 지금이라도 나가면 자신은 살 수 있었다. 그래도 안 된다. "혼자 살 수는 없다! 부처님, 제발!"

바로 그 때였다. 나갔던 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뛰어 들어왔다. "사장님, 어서 나오세요! 위험해요!" "안 돼." "이러다 다 죽어요!" 직원은 발에 뭐가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 그것을 집어 들었다. 작동이 안 돼서 김씨가 내팽개친 소화기였다. 그 순간 소화기가 팍 터졌다. 하얀 줄기가 마구 쏟아졌다. 아까 바닥에 내던질 때 그 압력으로 핀이 빠졌던 모양이었다. 김씨는 정신없이 그것을 잡아들고 불길을 향해 쏘면서 안의 방문 쪽으로 갔다. 직원도 도와 길을 냈다. 문을 열며 소리치니 안에 있던 직원이 나왔다. 셋은 간신히 밖으로 나왔다.

김씨에게는 그 십여 분의 아수라장이 몇 시간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스님에게 "세 가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하고 말하였다. 우선 평소에 마음공부를 해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었던 점이다. 지금도 "침착해!"하는 자신의 외침에 직원들이 일시에 차분해졌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불이 났다고 김씨도 무조건 당황했다면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 두 번째는 사무실 유리가 깨지는 것을 피한 점이었다. 직원들을 생각해 불붙은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를 살렸다는 점이다. 문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꼼짝없이 크게 다치고 말았을 것이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순간에 나갔던 직원이 들어와 소화기를 작동하게 된 점이다. 그 직원은 "전 사장님이 안 나오시고 혼자 불 끄려고 하시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시 들어간 거예요"라고 하였다. 그가 소화기를 들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싶다. 그런데 그 소화기는 작동이 안 되어 포기했었지 않은가. 어떻게 소화기가 그의 발에 걸렸고 작동되었단 말인가. "혹시 부처님이 소화기를 다시 작동시켜주신 건 아닐까요?"하고 물으니 스님은 "네, 아마 거사님 마음을 보고 자성 부처님이 나투신 거겠죠"하며 벽에 걸려있는 법어를 가리킨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하는 한마음인 것이다'라는 말씀이었다.

스님은 "거사님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목숨을 거는데 자기 속 자성 부처님이 그냥 보고만 있겠어요! 덕분에 안에 있던 분을 살리셨네요. 참 장하십니다"하고 미소 짓는다. 김씨는 가슴이 찡하며 눈물이 나왔다. 평소 마음공부를 하고 자성 부처님을 찾는 습을 들이지 않았다면 그 위급한 순간들에 버틸 수 있었겠는가. 지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랐다.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깊이 감사 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종교편향, '주의'만으론 안 된다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사례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무총리 특별지시도 하달됐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곽영진 종무실장이 7월 4일 불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곽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교계가 제기하고 있는 각종 종교편향 사례에 대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인식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종교관련 공식 비공식 업무 추진 과정에서 특정종교 편향이라는 오해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종교편향 사례들은 '주의 환기' 차원에서 묻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7월 3일 20여 교계 단체가 결성한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종식 불교연석회의(연석회의)'는 ▲이명박 정부 불교계 공개 참회 및 대국민 사과 ▲종교편향 행위를 자행한 공직자 참회와 사퇴 ▲공무원의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및 주의 훈령 시행 보장 등을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공개적인 참회와 관련자의 사퇴,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종교편향 관련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거론하고 지침서를 하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 착각하지 않길 바란다. 교사와 교장이, 국토해양부가, 경찰청장이 종교편향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연석회의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템플스테이 전문 연구기관 필요

템플스테이가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6월 27일 열린 서울관광대상에서 조계종 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가 최우수 서울여행상품상을 받았다. 또 경상북도는 템플스테이를 경북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현대인들에게 템플스테이는 각별하다. 일상이 주는 힘겨움을 고즈넉한 산사에서 털어내며 자신의 내면을 관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발현시켜 주는 것이 템플스테이의 참맛이다. 그래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특별한 체험으로 또는 의미 있는 체험으로 각인되는 것이다.

템플스테이는 사찰이 갖는 정적(靜的)인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삶에 불어넣어준다. 고요하고 느림 속에서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를 길어 올리는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가 아니고는 생각도 못할 일이다.

그러나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구가하고 '명품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저 좋기만 한 것일까? 무엇보다 템플스테이 고유의 가치가 약해지고 관광상품으로서의 이미지만 강조될까 염려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의 경우 관광의 한 부분으로만 치부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불교에 대한 오해를 안고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고무적임에 틀림없다. 그런 만큼 각 사찰이 시행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의 질적 성장과 훨씬한 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는 템플스테이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卍 한글 한문 겸용불교상용의식집

겸용의식집 5권이면 염불 [한글염불·한문염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염불+한문염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③겸용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염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④겸용의식집은 염불 중 '운운'을 없게하고 집전자의 작은 애로까지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⑤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삼청하는 청사를(2청은 한문, 1청은 우리말) 염불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우리말 염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구 성

-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 법우당 02)999-8315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입 종 안 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효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호법국장 무타 대한

각 지역구 종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종단으로써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

천하대도 육경신도통으로 생로병사를 다스리고 자신도통으로 운명을 다스리는 최단기 수련법으로 지도자 스승되는 경신 대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로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 경신수행으로 심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천문도통을 창조하여 막힌 운명을 찾아 도통하여 미래를 창조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수련정진으로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도통군자 장수 비법으로 건강의 주인공 되시고 신선으로 만사형통하는 최첨단 기도.

진인도통군자 제위 귀하를 신족통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삼라만상 생명의 근본은 마음자리이고, 心의 근본은 자시와 오시에 생명의 점안을 하는 날이 경신일인 것이고, 경신일 날 천안통과 마음의 점안을 안하면 성불이나 득도가 되지 않고 한생을 고생만 하는 것이다. 경신도통법은 지구탄생과 더불어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내려진 도법으로 만세에도 천세에도 전하지 않았던 하늘과 땅에 감춰진 것을 금년 무자년부터 천용진인태일대사는 만천하에 전하는 바 이오니 경신도법에 전하는 것은 후천대도는 인간의 득도에 따라 **천도는 드러나지 않게 지도는 움직이나 멸하지 않게 인도는 그 사람 그 자리와 기국이나 인품이 아닌 자에게는 전하지 말지니라.** 특히 욕심이나 빨리 배우고 사용하여 이득이나 취하고 영리를 취하는 자에게는 삼가할 지어다.

● 경신도통이란?? 자신의 주인공을 찾는 수행인 것이고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굿을 받아도 안되고 치료해도 안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재하는 수행법인 것이고 도통군자는 경신도통을 하여야만이 무불도통으로 초능력자가 되어 일류 스승으로 되는 것이다.

◆신장 귀속들을 부려 말문과 글문과 도통군자들과 영통능력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태을경과 옥추경 주문으로 신장 귀속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를 수 있는 특별비법인 것이다.

육경신 기도 중 이번 신족통 법회에는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불편하고 심신으로 고생하며 수족이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즉시 혜원상생 도통하는 건강,특별 기도 성취하는 신족통 기도인 것이다. 본 도량에서는 여유가 없어서 조상천도 못해드린 분들에게 무자년 백중49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무량대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足 신족통 수행은 즉시 도통견성하여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혜명과 성품이 둘로 갈라져 혜명은 성품 즉 마음자리를 볼 수 없이 늙고 병들어 제육신하나 관리 못하는 모든수행자들에게 특별 신족통 경신수행으로 신선이나 도인이되어 만천하를 제도하며 천하제일의 견성도통 심령도통 광명도통, 말문도통, 위술도통으로 하늘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만법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경신도통군자 되소서.



일체고액과 삼재팔난을 소멸하고 재수대통 하는 달마 구입처 : 태일 02)821-6622/016-239-3110

◆천하제일의 최장수 황무재도 삼천궁녀를 거느리는 건강장수 비법과 여자로서도 천하를 다스렸던 중국의 측측무후가 수행한 기법인 천하대도 기천법인 배꼽과 두뇌로 숨을 쉬어 정신,심신,육신에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을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육경신 수행인문으로 만사형통하는 도통군자 되소서.

◆**제2도장 태양의 집** - 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명당 수행지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비산비야, 비승비속 수행처 태양의 집 **정신, 심신, 육신의 수행도량 이곳의 지장수를 마시어 고혈압, 당뇨, 중풍 및 살이 빠지고 오장육부가 편해지는 곳. 태양의 집 수련원.**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259번지 ☎ 041)867-7763 / 016-239-3110

세계불교달마종 육경신 도통회 제2도장 태양의집

● **입제 : 양력 2008년 7월 18일(음, 6월 16일 금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08년 7월 19일(음, 6월 17일 토요일)(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한영)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입구 관음정사

웅 조 달 마 경 신 도 통 회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10년도 못살고 떠난 어린 세자 죽어서 '황제'로

㊼ 추존 진종과 효순왕후- 영릉

진종(眞宗)은 영조가 즉위하기 전 연잉군 시절, 스물여섯 살에 낳은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정빈 이씨이며, 비는 좌의정 조문명의 딸 효순왕후이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경의대군(敬義大君)에 봉해졌고, 다음해 일곱 살 나이로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3년 뒤 만 10년도 살지 못하고 요절했다. 영조의 아들 비극이 시작되었다. 이복동생 장헌세자(莊獻世子=사도세자)가 새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 역시 뒤주 속 질식사라는 전대미문의 형벌로 죽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폐한 뒤 사도세자의 맏아들인 세손(정조)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 왕통을 잇게 했다. 명분이 뭐길래? 열 살에 죽은 아이가 서류상 정조의 아비이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코미디다. 처연한 블랙 코미디다. 후일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유지를 받들어 효장세자를 진종으로 추존했다. 1908년(융희2년) 7월 30일 허물어져 가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제 순종은 진종을 황제로 추존, 진종황제가 되었다. 피지도 못한 채 떨어진 꽃봉우리가 과한 대접을 받은 셈이다. 대군에서 황제까지 고속 승진했다. 그러나 죽은 어린아이에게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될까.

곁에 묻힌 효순왕후(孝純王后)는 진종의 비(妃)이다. 아버지는 풍양 조씨로 좌의정 문명이다. 1727년(영조 3) 13세에 세자빈에 간택되어 9세인 효장세자와 가례를 올렸다. 1735년 현빈에 봉해졌다. 남편이 열 살에 죽었으니 당연히 소생은 없다. 1751년(영조27) 창덕궁 건극당에서 춘추 37세로 승하했다. 죽은 뒤 1752년 효순(孝純)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1776년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장남(정조)을 입양 받아 승통세자 빈(承統世子嬪)의 호를 받고, 정조의 즉위로 왕비로 추존되었다.

영릉은 세자와 세자빈의 예우에 따라 능을 조성했기 때문에 다른 능에 비해 한결 간소하다. 황제와 황후로 추존되었으나 봉분 주위에 병풍석, 난간석 등이 없다. 석양, 석호도 한 쌍씩이다.

영조의 장수와 아들들의 요절은 함수 관계가 없을까. 자식들의 수명을 승계 받아 장수한 것은 아닐까. 과보는 참으로 서늘할 정도로 공평하다. 선업(善業)에는 선과(善果)가 열리고 악업(惡業)에는 악과(惡果)가 열린다.



영릉을 답사한 가족이 장명등을 살피고 있다(사진 왼쪽). 금천교 너머 영릉 전경이 보인다.



영조는 그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함에서 오는 심적 갈등이 심한데다가 이복형인 경종의 독살에 관련되었다는 혐의와 심지어는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는 유언비어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마침내는 왕으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무신란(이인좌의 난)까지 겪었다.

이런 환경 탓인지는 모르나 영조는 때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상 행동을 하는 성격장애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자녀에 따라 극단적인 애증을 나타낸 것이 이를 말하며 이것이 결국 사도세자의 울화병을 유발하고 부자간의 갈등을 초래했다.

조정의 인사문제에서도 자신의 감정기복에 따라 사소한 실언을 문제 삼아 심지어는 3정승을 일시에 파직시켰다가 다음날 바로 복직시키는 경우가 흔했고, 이런 경향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해졌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것은 분명히 살인이다. 그러나 왕에게는 살인죄가 없다. 단지 어명이 있을 뿐이다. 즉흥적 지시이든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든 어명 한마디면 목숨을 잃는다. 제드 러벤펠드(JED RUBENFELD)는 현재 예일 대학 법과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저명한 법률학자다. 그는 학자이기 이전에 열렬한 문학청년이었다. 2007년 국내에 소개된 그의 소설 <살인의 해석>에서 영조의 심리를 조명해본다.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 인물인 '영거'라는 미국 정신분석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색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영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존재한다. 하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소유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딸이 태어났다. 딸은 자랄수록 예뻐지고 젊음의 생기가 넘친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늙어가고 볼품없어진다. 여기서 딸에 대한 질투심이 생기고 가상의 감정으로 만들어서 느끼게 된다.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없애려고 합리화한다.

이 논리에 영조와 사도세자를 대입해보면 약간의 실마리가 풀린다. 영조에게 세자는 개인적 비행을 저지르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당파와 대립해 자기 당파를 형성한 '정적'이었다.

사도세자를 죽일 당시 영조는 칠순을 1년 앞둔 노령에 실제로 노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매일 약원에서 올리는 탕제를 들어야 할 형편이었다. 영조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영조는 물론 영조의 정치적 세력인 노론이 긴장했다. 영조가 죽고 세자가 즉위하면 소론, 남인 등과 손잡고 노론을 향해 칼을 뽑을 것이다. 세자는 당시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낸 작품이 나경언의 고변이다. 세자가 저지른 비행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 약발이 떨어졌다. 세자를 제거할 마지막 카드는 역모로 모는 것이다. 역모는 혈육의 정도 통하지 않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다. 세자에게 역모를 씌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노론 대신들이 치밀하게 대본을 작성하고 고변할 인물을 물색했다. 대리청정 하는 권력 실세 세자를 고변하는 것이니 잘못되면 그 대가가 죽음이다.

나경언의 고변은 이렇다. 영조 38년(1762) 5월 22일의 '영조실록' 기록이다. 세자가 죽은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 윤5월 21일이다.

"나경언이 세자를 제거할 묘책을 내어 형조에 글을 올려, 전하의 아주 가까운 인사가 불궤한 모의를 한다. 형조참의 이해중이 영의정 홍봉한에게 달려가 고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이는 전하께 직접 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해중이 세 차례나 주상을 배알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놀라 입시를 명하여 그 글을 바쳤다. 임금이 상을 치면서 크게 놀라, 변란의 주액(肘腋, 팔꿈치와 겨드랑이, 가까운 주변을 뜻함)에 있구나. 친국하지 않을 수 없다."

나경언의 고변서는 영조와 두 대신이 읽은 후 바로 불태워졌다. 음모의 냄새가 짙다. 나경언은 양반도 아닌 일개 서민이다. 서민이 고변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경우, 그것도 대리청정 하는 세자와 관련된 고변이라면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조사 후 근거가 나왔을 때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이 정상이다. 영조실록은 나경언에 대해, '사람이 불량하고 남을 잘 꾀어냈다. 가산이 탕진되어 자립하지 못할 지경이다'라고 적고 있다. 오늘날도 가끔 볼 수 있는 매수의 혐의가 있다. 그로부터 세자는 중죄인이 되어 한 달 후, 이승을 하직해야했다.

후회는 결코 앞서는 법이 없다. 맏아들 효장세자가 10세로 병사하자 영조는 시민당에서 곡을 하고 세자의 세자궁 집영문 밖까지 나왔다. 말년에는 사도세자를 죽인 것을 저리게 후회했다. 그러나 후회와 용서는 동의어가 아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영릉(永陵)**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에 있는 21대 영조의 장자인 효장세자(孝章世子:진종(眞宗)으로 추존되었음)와 그의 비 효순왕후 조씨(孝純王后趙氏)의 능이다. 공순영릉이라 불리는 능역 안에 있다. 사적 제205호. 능호는 1729년(영조 5) 정하였다. 왕릉과 비릉(妃陵)을 쌍릉으로 두어 각각 혼유석만 앞에 두었다. 장명등은 그 중간에 배치하였고, 석양 · 석호 각 2필이 능 주위를 호위하고 있다. 당초 효장세자의 장례 때 영조가 정자각은 옛 제도에 따라 지을 것과 석물은 사가(私家)의 석물에 비하여 좀 풍후(豊厚)하게 하라고 명하여 그대로 하였다.

10세에 요절한 영조의 맏아들 정조의 양부로 정조에 의해 진종 · 순종에 의해 황제로 추존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운 송 업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캠페인 PR]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2교 "아름다운 인연 찾기" 광고 구독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